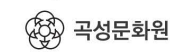


설화 보고서

## 우리 고장 이야기 2

설화 보고서

## 우리 고장 이야기 2





보물 제273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 탑





보물 제274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보물 제275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보물 제1322호 곡성 기곡리 오층석탑





보물 제956호 곡성 태안사 청동 대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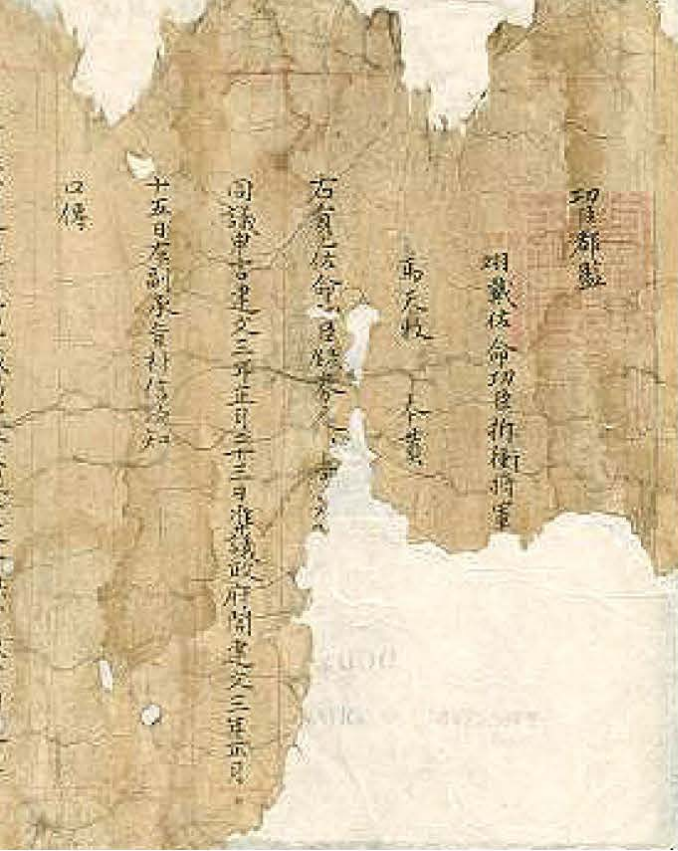


보물 제1341호 도림사 괘불탱



보물 제1349호 곡성 태안사 동종





보물 제1469호 마천목작명공신녹권



국가무형문화재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보물 제1934호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낙죽장도)





국가민속문화재 제155호 곡성 제호성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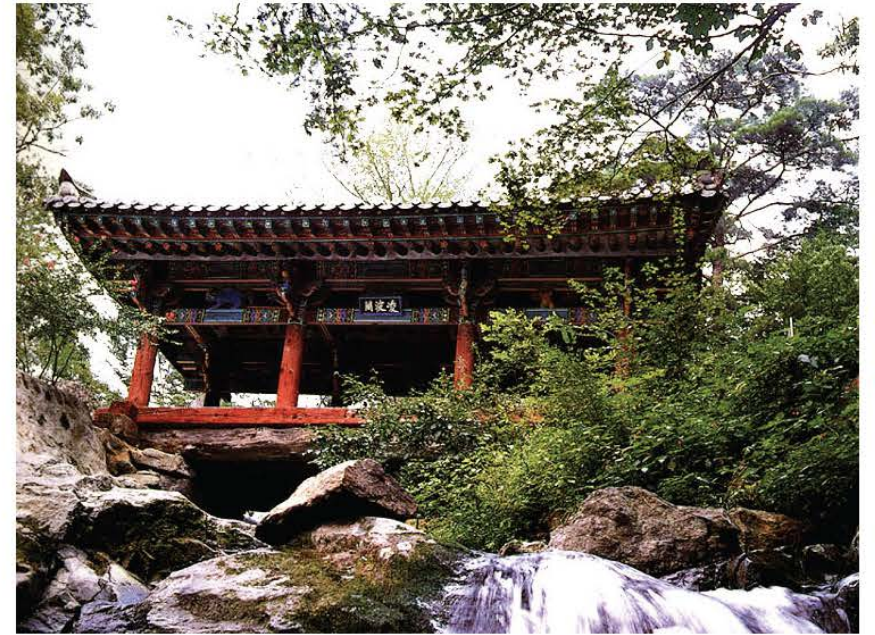
무형문화재 제35호 곡성 죽동 농악



곡성군의 전라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제51호 곡성 총렬문



유형문화재 제82호 태안사 능파각



유형문화재 제83호 태안사 일주문





유형문화재 제160호 곡성 함허정



유형문화재 제109호 옥과창교



유형문화재 제210호 곡성 도동묘 회헌실기목판





유형문화재 제271호 곡성 도림사 보광전 목조 아미타 삼존불 좌상



유형문화재 제320호 곡성 서산사 동종



유형문화재 제272호 곡성 당동리 석조 여래 좌상



유형문화재 제321호 곡성 연운당 고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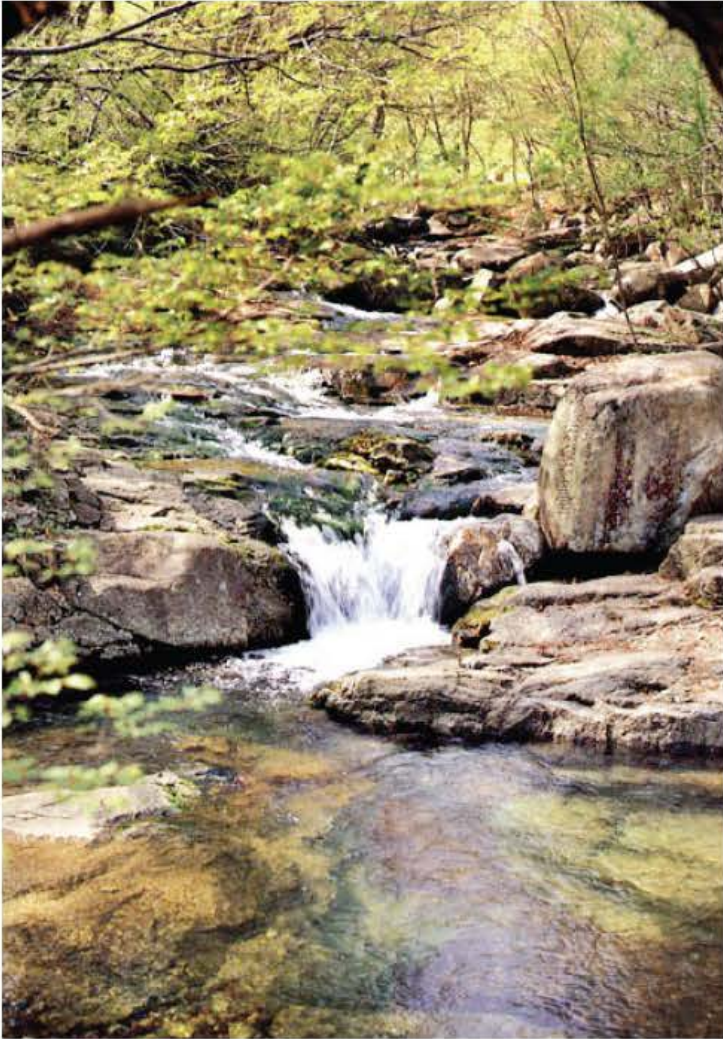


유형문화재 제329호 곡성 수도암 목조 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



신송겸 장군 묘





지방기념물 제101호 곡성도림사 계곡



민속문화재 제2호 옥과 성황당 목조 신상



곡성군의 전라남도 지정 유형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제22호 도림사



문화재자료 제23호 태만사



문화재자료 제24호 관음사





문화재자료 제25호 유월파장군 정열각



문화재자료 제27호 곡성형교



문화재자료 제28호 석곡리 석불입상





문화재자료 제29호 도동묘



문화재자료 제129호 수성당



문화재자료 제120호 덕산사



문화재자료 제167호 영류재





문화재자료 제170호 태안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244호 곡성도동묘안향영정



문화재자료 제281호 곡성 오강사 최익현 초상



곡성의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제25호 곡성 전화장사지 석불 4좌상



등록문화재 제122호 구 곡성역사





등록문화재 제228호 곡성 단군전



등록문화재 제222호 곡성 구심기면사무소



---

## 개인사 같은 사소한 구전 이야기도 귀중한 유산

고광운(곡성문화원장)



등록문화재 제700호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우리 고장에는 유별나게 전설도 많고 구전하는 이야기도 많다. 아마도 지리산과 섬진강이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요인과 함께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지리산 환란의 역사, 그리고 6·25전쟁 같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직도 마을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곡성문화원에서는 위와 같은 구전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지난 2016년 3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곡성군 11개 읍·면에 살고 계시는 100여 분의 어르신



---

들을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들과 함께 찾아뵙고 그분들께서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신 곡성의 전설과 구전 이야기들을 채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약 200여 편의 숨어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을 발굴하였다. 더불어 기존에 조사된 국민대 구비문화 현지답사  
보고서에서 몇 편을 발췌 함께 정리하여 금년에 “설화 보고서 우리  
고장 이야기”로 발간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구술하여 채록한 이야기들 중에는 부모님들의 눈물  
겨운 삶의 이야기와 함께 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은 보  
석 같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전설과 설화도 많았다.

이 같은 우리 고장 특유의 구전 이야기를 “설화 보고서 우리 고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2권의 책을 발간하면서 큰 보람과 의미를 찾  
았던 것도 위와 같은 연유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에서 구술사 연구조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보자인 어르신들의 구술과정과 조사자의 채

---

---

록과정에서 변형 가공되어 일부 사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  
혀둔다. 우리 고장 무형의 문화유산인 어르신들 구전 이야기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동네 달동네

- 여수반란사건 때 직접 겪었던 일 \_ 51
- 땅고개 이야기 \_ 63
- 남양리 북바위 \_ 64
- 큰애기 시절 \_ 68
- 피난살이 \_ 70
- 설모듬과 방천 \_ 72
- 갯석거리 도깨비 \_ 74
- 도깨비 \_ 76
- 떠돌이들 집 \_ 77
- 문지기 \_ 78
- 할아버지의 일생 \_ 79
- 용무동 무우막 \_ 90
- 콩장사 힘자랑 \_ 91
- 뜸방 \_ 93
- 담방소 \_ 94
- 오지리 물·바위 이야기 \_ 95
- 오지리 이야기 \_ 96
- 용소 전설 \_ 98
- 마씨와 도깨비 \_ 99
- 승어와 은어 \_ 101

- 호곡나루터 \_ 102
- 꽃감 \_ 103
- 목사동 김장바위의 유래 \_ 104
- 그슴외와 통섬 \_ 106
- 주지당 이야기 \_ 109
- 김일 \_ 113
- 석곡마을 유래 \_ 118
- 성 몰락과 미륵 \_ 121
- 수박서리 \_ 125
- 은은사 전설 \_ 127
- 이순신 장군과 능파정 \_ 129
- 태골바위와 뱃석거리 \_ 133

## 강가에 바람이

- 월산마을 \_ 143
- 효자와 호랑이 \_ 145
- 읍내 송전 이야기 \_ 147
- 읍장 이야기 \_ 148
- 죽산 당산물 \_ 149
- 법구리 법통 \_ 150



---

거지 명당 \_ 151  
부치고개 이야기 \_ 152  
용모름 미신 이야기 \_ 153  
할아버지 이야기 \_ 154  
고달다리 \_ 165  
취명당 기우제 \_ 166  
소나무와 지네 \_ 167  
코재 귀신 \_ 168  
홍진엄마 꿈 이야기 \_ 171  
지방마을 \_ 177  
물도둑 \_ 179  
설산 귀신과 호랑이 \_ 180  
청우골목 귀신 이야기 \_ 181  
봉정과 봉황 \_ 183  
길상암 \_ 184  
도깨비 이야기 \_ 187  
서당동산 전설 \_ 188  
봉황과 마을 \_ 190  
약천 \_ 192  
오곡 상여소리 \_ 193  
신이기 선생 \_ 195  
고달면 이야기 \_ 197

---

나룻배 \_ 198  
떡골 \_ 199  
취명당 이야기 \_ 200  
도깨비와 씨름한 이야기 \_ 201  
두꺼비 껍질 이야기 \_ 204  
보이면 안 되는 바위 \_ 205  
애기 접지하는 바위 \_ 206  
섬진강 모래 \_ 207  
비봉포란 \_ 209  
죽곡 \_ 222  
도깨비 \_ 229  
대사리 시집살이 이야기 \_ 231  
문지기 \_ 235  
삼인동과 형제봉 \_ 236  
석곡 미륵동 \_ 242  
뽕뽕다리 이야기 \_ 244  
항축과 용머리 \_ 245



하늘에 구름 가네	몬당 이야기
	보성강과 압록강 은어
명당	압록 사람
사우	태안사 경찰
오곡국민학교	합록과 압록
오지리 이야기	솔무랭이
평바위	괴내 이야기
당산나무 전설	신월리
봉사 시어머니	수수께끼
친구	신기리와 청계동
할머니의 삶	아들바위
목화	압록과 강감찬 장군
석곡 해방비	셋고을
노시랑골	죽동 이야기
소 잡는 가구	섬진강 정자
동산리 모래	곡성 오일장 도깨비
등등바우와 딸섬	3·1운동
개미랑 호랑이	곡성, 정감선굴, 옥과 이야기
평상 이름	단군전
삼기 도대문 이야기	도깨비 살
자치샘 이야기	동약산 신선바위
마전리 귀신	말 무덤

북호폭포	사는 이야기
여우내와 황새플	행귀다리 귀신
원효동	종고산
합허정, 군지촌정사	호운석 바위
향교, 태안사, 신승겸 장군	도구대 搗臼確 치사處士
마천목 할아버지	첩 사주를 가진 애진한 작은할머니
월님의 문안인사	5대장손 출생에 얽힌 예지력
점동네	뇌죽산 설화
웅기	뇌죽산과 등등바위 통설
	조상님의 선몽
<b>산 따라 물 따라</b>	조씨와 조탑
	하늘재 구름다리
늑대와 싸운 이야기	경복궁 해태에 대한 설화
퐁퐁거리 공동묘지 도깨비	사립문
운봉 귀신 이야기	돼지머리
모기	문턱귀신
원등 도대문	앞 냇가 도깨비
도깨비 살과 도깨비 죽	제삿밥
말골 불빛 이야기	할머니 어릴 적
박정상 이야기	
번다물 마을의 유래	
뒷산 호랑이 이야기	



- 일러두기 -

1. 이 책은 곡성지역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전설과 구전이야기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지역의 전통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문 내용은 어르신들께서 구술하시면서 표현한 말과 사투리 등을 최대한 발음하는 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단어 등이 우리말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표기가 많다.
3. 구술사 연구 조사의 특성상 어르신들의 개인 구술에 의존함에 따라 본문 중에서 일부 내용이 변형 가공되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혀 둔다.
4. 소재목은 어르신들의 구술이 아니며 엮은이가 본문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구성하였다.
5. 이 책은 2017년 창조지역사업으로 발간되었으며, 곡성군과 곡성문화원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 복제나 전제를 금한다.

설화 보고서

## 우리 고장 이야기 2



해동네 달동네



---

## 여수반란사건 때 직접 겪었던 일

여수반란사건이 개도 못 키우게 하고 닭도 못 키우게 하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인자, 울털이 빨치산이라고 불렀거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밤에 막 와서 훔어 가 묵고살라고. 그러면 인자 우리는 동생하고 나하고 팽으로 가서 맨들어 얻어 끊어 줘.

그들이 어찌계미 무서워서라도 어머니 아버지들은 별별 떨고 있고 생전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니금선 어쨌는고는 인민이 해방된다고 여수반란사건 끝난답선 그 사람들이 몽땅 와가지고는 밥을 해 달라 해서 밥을 해 주니까 묵고는 전표로 적어서 줘.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날 아침에 태극기를 싹 빼다가 거기서 돈 준 거 뿜 한 거 문서떼기 다 갖다 구석에다 처질러 버리고 그리고 있는데 와서 밥을 해 주라 한 것이여. 그래서 밥을 해 준께 전표로 적어가지고 와 집 갖고 가서 면에 가타다 묵으래.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

아이고 우리는 미리서 알고 있는데 느그는 지금 오늘날 뉘우치고



---

집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냐. 그리고 이제 그만했어.

웬걸 낮에 나락을 걷는다, 유도배기를 심었는데, 그 나락을 베러  
둘이 갔어. 인자 이복서 삼팔대가 넘어온 것이요. 인자 이 구례서 올  
라온가, 어디서 올라온가, 올라왔어. 온천을 지나서 막 온천서 짓어  
대 올라오면서 또 짓어대. 근께 그 밤채재라고 있거든. 앞밤부터라  
고 그걸 넘어간디 살이 막 그거이 시커만 것이 넘어간 거여. 걸어서  
모다.

그래가지고는 막 그 사람들이 싹 선밭대에 다 막 죽는 거예요. 인  
자 그런 걸 보고는 우리는 놀래가지고는 있는께로 인자 그 선밭대에  
본년에 사람 요런 사람들이 있으면 재수 없다고, 여자들을 보면 재  
수 없다고, 바로 싹 죽여 버린다는 소릴 들었거든. 큰애기 때여. 그  
래가지고는 어머니하고 둘이 이렇게 막 도토리나무 들어온 데로 가  
가지고는 막 옆드려서 숨어서 이렇게 본께 이빨은 히거가지고 얼굴  
은 새카만 사람들만 있는디…… 워어미 우리 있는 데를 벌써 알았  
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흔들고 막 그랬어. 그래서 막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나락 밭에 가 엎어져가지고 있으니까 인자 그 사람들  
선밭대가 올라가던마……. 금께 올라간 뒤에 여그서 본께로 파란  
불빛이 어떻게 또 날아오네. 온천서.

---

그놈 맞으면 인자 소리도 없이 막 죽어잉. 그래서 또 옆드려서 있  
으니까 이제 선밭대 애들이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는데 막 이빨을 이렇게 내논께 무섭더라고. 그때 '잡아간  
다'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인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내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뭘 간수메로 뭉을 던져 주고 가. 박스 뭉  
을 던져 주고 가. 막 저그 요만큼씩 박스 안에 든 것을. 무서워서 그  
것도 못 주웠어. 무서워서.

그리고 인자 간 뒤에 조용하길래 동네를 쳐다보니까 동네는 또 피  
난을 가느라고 난리여. 도장굴하고 산골짜기 있는데 그 골짜기로 가  
고 막 난리여.

그래도 조용한께로 올 사람들은 오지. 오는 걸 보고 인자 나락을  
또 걷어가지고 인자 조금씩 갖고 오는데 인자 어머니가 저저 하나  
주워가지고 가자 그래요.

“어머니 그거 줘다가 또 총알이 날아오면 어찌게요?”

어머니는 인자 그래도 하나만 주워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나락을  
내려놓고 대처 주워가지고 왔어. 이제 어떻게든 어둡기 전에 감춰  
놓고는 와서 보니까 오만 것이 다 들었어.

저기 간수메라고, 막 콩간수메 뭐, 돈보간수메 또 뭘 간수메 막 그

---

런 것도 있고 사과간수메도 있고 요만치 썰어진 것들이 골고로 넣어  
져가지고 다 있어. 골고루. 그래서 인자 그 간수메를 빨리빨리 까먹  
고는 온께로 동네사람들이 피난 갔다 오다가 다쳤다고 하고 무르팍  
을 깨가지고 온 사람, 뺨을 깨가지고 온 사람, 사람들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웃고는 그 간수메를 갖다 줬어. 인자 또 묵으라  
고……. 사람들이 뺨을 통 크게 갖고 왔나면서 이러이러해서 나락  
널면서 숨어 있다가 간수메를 주웠다고 그러고는 웃었어. 허허…….

그 사람들 가본 뒤에 얼마 있다가 10월 보름날이 돌아왔는데 우  
리가 그날 제사를 지내. 근데 우리 큰오빠가 삼생이라고 온천 위에  
삼생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서 인자 시제를 지내. 거기서 큰집이라  
제사를 지낸 뒤 밤에 인자…….

그해 아버지가 또 소에 받쳤어. 소에 받쳐가지고는 꼼짝도 못 한  
디 내가 심부름을 한번 해 주고 그러면 약을 사다 주고 뭘 또 심부름  
한번 해 주고 그랬제…….

그 시제를 지낸디 아버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오빠가 시제 지내  
고 남원 육방 앞으로 갔는가 좋게 갔었어. 확인하고 있나 하고 오  
니라……. 그리 갔어. 저녁판에 무서워서 뒤편쪽에 손을 막 올리  
고……. 무서워서. 산모퉁이 거가서 보니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

---

고 애기도 있고 막 근디 시켜매. 산 밑에. 저기가 솔밭인데 그냥 그  
걸 보고 어떻게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큰집 할매 집으로 갔었  
어. 가가지고는,

“할머니 할머니, 왜 여그…… 소 잡는 길 가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몽땅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저기 난리 난단다! 어찌까나! 우리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나!”

그리고 막 하면서 어서어서 저녁밥 주께 떠먹어야 한께 부타부 떠  
먹어야 벌써 사람들 한재미는 먹고 가버렸는갑써.

아 근디 내가 늦게 가니깐 인자 나를 밥을 먹으라고 준디, 어디서  
총소리가 나니까 밥을 먹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인자. 다 수저 놔 버  
리고 없어. 그래서 요리 가서 오빠, 저리 가서 오빠라고 해도 오빠  
소리도 없고 할머니! 하고 불려도 소리도 없고 아재! 하고 불려도 막  
소리도 없고, 아지매! 하고 불려도 소리가 없어.

근데 어디서 조금씩 새소리 같은 것이 땅속에서 나는 거라. 해~  
액, 그 소리가. 아 그래서 어딘가 싫어서 돌아 뒤편 길을 돌아서 이렇  
게 가니까 대밭이 이렇게 막 이런 대밭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 간



---

게 이렇게 간 계로 뺏이나, 저기 저 대밭가 있는디 그 대밭 속에서 군인들이 숨었어. 또 가만히 보니까 숨어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차에서 오다가 소 잡은 디서 반란군들이 쫓어 대니까는 막 낮은디 쫓어 대니까는 군인들이 이제 막 뛰넘어온다. 그러자 어서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지푸라기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는디 흔들어 그걸 본께 그거 굴이 있는디 뭐가 들었어. 저기가 오빠가 있어서 그래서 그 굴속에서 저녁에 자고 인자 아침에 만나서 보니까 저그 뺏이나 온천 아니 온천으로 소 잡는 길 가운데가 군인 차 몇 대가 저 반란군들이 쫓어 대서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다네.” 하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통 소릿재는 가지 마래. 그날 가면 다 죽는다고. 이쪽이고 저쪽이고 쏘아 버린다고. 어째이고 저째이고 다 쏘아 버리니까 가지 마라고.

아 저 우리 다 저인거 돌면은 우리가 원골인 계로 저쪽 바로 밤틀재 너머의 밑에 제일 큰 저 굴이거든 원골이거든. 아 그러게 가야한디……. 어그 이거 다 신도 떨어져가지고 타이어거 신었다. 그놈의 신을 신고 갈라니까 꺾꺾 벗어지니까 이제 벗어진 대로 보고 갈란디 군인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이게 발 딛을 데가 있는가.

군인들이 죽어서 모가지도 떨어져 있고……. 밤에 막 반란군들이

---

쫓가지고는. 아이고! 그걸 보니까 인제 정나미가 떨어지는데, 오빠는 두루마기를 그냥 손에다 착 걸치고는 잘 걸어가. 근께 덜렁덜렁.

“아구 오빠나는 못가.”

한께 쫓아와서 인자 손을 잡아서 막 뽀듬아서 이렇게 거시고 가서,

“나 앞에 핑 갈랑께. 아버지 기다리니까 핑 갈랑께 너는 산찬히 와 울지 말고 와.”

그래도 무서워서 내가 막 울어 댕어 인자…….

그때가 아마 열댓 살 묵었어 솔직히 열댓 살 묵었는데 그리고 따라가면서 인자 울고불고한께 오빠가,

“울지 말고 산찬이 살퍼서 와라. 오빠는 요리 그냥 요리 또랑 있는 데로 졸졸 따라 올라가서 갈란께……. 아버지한테 갈란께 너는 요리가.”

우리 오빠는 그때는 또 코재서 살았어. 근디 인자 아버지를 위해서 꼭 집으로 와서 있었어. 허리를 다쳐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자 가니까 그리고 인자 오빠는 앞에 가고 나는 뒤에 들어가고 인자 들어가자마자 내가 잠을 자 뿌렸어. 또 잠을 자 뿐께 인자 어머니랑 아버지랑 막 야단이 났는가 봐. 근테 이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인제 눈물 글썽꽂고 있더라고. 그런 정신을 추리고 나서 또 난리가 또

---

났잖아. 육이오.

그래가지고는 인자 우리 오빠가 인자 밤에 근무를 하다가 저 흡실로 넘어가 버렸어. 아, 수지로 넘어가 버렸어 밤에 팬티바람으로 자다가. 근무 보다가. 대창, 그때는 총도 없고 그러니까 대창을 들고 다녔어. 대를 꺾아가지고 피죽하게. 근데 오빠가 사흘이 되도록 안 들어와.

최남선 오빠가 찾아오네. 그러자 그 이는 애가 어찌고 땡겼는고는 동생하고 나하고 무서우니까 팔짱을 끼고 땡겼어. 근디 전부 다 반란군들이 썩가지고 물에다 눈두렁에다 어디다가 죽었네.

오빠를 찾으러 막 돌이 땡기면서 동생을 세워 놓고,

“나는 저기 가서 더 찾아보고 올게.”

그리고 인자 땡기니까! 온천 사람이 죽어 가꼬 막 거적때기로 덮어 놓고 그래. 불쌍한 사람이 일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두도 막 죽어가지고 있고 그래. 그런 걸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그러자 인자 이렇게 본계로 그 찾아다닌디 이서당 뒤라는 데를 또 오니까 세상에 찾도 못하고 오빠 찾도 못하고 온디! 눈에다 인가 밭에다 인간 대가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 죽어가지고 싶는가 본디 오반 줄 알고 가서 이렇게

---

---

뜯어가지고 뒤집어 보니까 여기서 총이 들어간디 이 앞 그래서 야물 게 봤어. 앞을 탁 놓으니까 피져 버린게 얼굴을 보것대? 못 봐. 근데 아무리 봐도 옷을 봐도 오빠가 아니여. 그래서 인자 동생보고,

“가자. 녀석아 이거 아니다. 오빠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 가가지고 인자 물 한 병 나오게 울고는…….

오빠가 인자 저기 흡실 수지 흡실 저 시설에 있다고 기별이 왔어. 어쭈고 좋던가! 기별이 와서!

그래가지고 오빠가 와서 맞네 하고 그 뒤로 인자 뭇 바깥시상을 안 봤브렸어. 인자 그러고는 그때 그 거시기가 돼 버렸어. 휴전이 되어 버렸어. 그 뒤에 대고 싸우고 그런…….

아이고! 그때 반란군이 말도 못하게 들어와가지고 시커매. 산이 여기도 한 무더기 저기도 한 무더기 막…… 불 만했어 그때. 아주 아주 우습다니고 쏘가 되어 부렸당께. 그래가지고 저 구레 저 산동, 중동, 골짜기 난 데는 아주 불을 다 내뿜고 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썩 다 서울로 남원으로 다 가 버렸잖아! 거가 바로 지리산 노고단이여. 여그 여 산이잖아. 우리는 계림산 바로 밑에 있는디. 모다…….

아 그래가지고 아주 우습당께. 놀라고 그랬다니까. 그니까 시방도

---



---

어쩔 때 꿈을 꾸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

그때 나는 잘 먹고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돈을 물고 오니까 괜찮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나랑 동생까지 다 결혼하고 아버지는 팔십이 넘도록 계셨고 어머니는 칠십에 돌아가시고 그랬어.

나는 스무 살에 시집갔지. 서방은 아버지가 찾아 준다고, 군인 가면 죽어 버리니까 군인 갔다 온 사람한테 살림살이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하나만 보고. 나 시집갔어도 편하게도 못 살아 보고 맨 힘들어. 그리고 딱 마흔한 살인가 마흔두 살인가 목어서 애기 하나 죽고 칠남매를 낳아 놓고 막둥이 세 살 먹어서 지그 아버지가 간다고 가 버렸어. 소장시하다가 그러니까 빚만 팍 저 놓고 있으니까 우습지도 않게 살았어.

영감이 군대 가서 있던 소리를 했는디, 군대 가가지고 6·25사변에 부대가 마흔 몇 만 몇 명인디 싹 죽어 불고 여섯 명 살았더라네. 후퇴해가지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 광주서 제대했어. 광주병원에서 무슨 병원인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제대장을 보니까 뭐시냐 그 장도 홍실서 살다가 저 갈벌로 이사 가면서 그 푼푼 뭉쳐서 요만한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주민등록이랑 그것이랑 싹 제대장이랑 넣어가지고 사진, 우리 가족사진까지 다 넣어가지고 푼푼 뭉쳐서 싸

---

---

가지고 저 그 저 보호첩에다 넣어가지고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꺼려 봤어 어찌다. 근데 인자 이번에 집 질라면서 꺼려 보니까 그속에가 제대증이 있었어. 그래서 찾아가지고 보니까 상이군인 제대가 나왔대. 근데 왜 안 해 놓고 죽고 그전에 했으면 내가 고생을 덜했지…….

지금은 받았어. 받았어. 그걸 갖고 가서 다 받았어.

지금은 아들 앞으로 유공자 돈이 나왔지. 내가 아들한테 주민등록이고 뭐고 싹 줬어. 이거 해가지고 빚도 조금 갚고 빚하고 그래라 엄니가 어지러 놓은 거. 근디 이번에 힘들데! 저 이런 소리는 안 해야 하는디, 아닌가?

논 너 마지기 있는 것을 팔라고 하고, 빚이 있으면서도 안 판다고 거지꼴로 엄한 소리 다 듣고 살았네. 그래가지고 별 험한 소문을 다 듣고……. 영감 마흔일곱인가 여섯인가에 죽고 나하고 월년생이여, 그래갖고는 앞이 캄캄했었구만. 경매를 붙인다고 해도 뭘로 갖고 오겠니. 녀의 것 갖고 온다고 해도 경매 못 해. 그러디……. 아이고, 나는 도둑놈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애들이 도둑놈 말 안 듣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라고 해도 …… 논 그놈 지키고 살라고! 그러고 경매도 못 붙이게 하고 십시일반으로 갚았는데…… 시방도 있더랑께 그놈 돈이. 덜 갚아가지고 빚이……. 그래 그 논 그

---

---

것은 살려 놓고 발은 팔아먹고 그랬어. 눈 두 마지기 두 마지기 세 마지긴 팔아먹고.

그것을 아물게 두어서 고거라도 받았제. 집안 보첩 만들고 하면 내가 악착스럽게 해서 내고 큰집 가서 보첩행사, 시제랑 다 찾아다니고……. 나는 다 우리 새끼들 물려줄라고 글고 살았어. 그게 아주 피가 나게 살았던 것이,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인들 피 아니 뼈라도 남지 안 남을 거냐 하고 이를 갈아붙이고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 이려고 살았어.

양재남(여, 90세) / 고달면 백곡리

---

## 땅고개 이야기

요기 묘천고개 너머를 땅고개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거가 주막 같은 것이 있었어요. 주막이 있어서 유명했는데, 고개가 높지 않고 낮게 있기 때문에 땅고개라고 불렀죠.

땅고개가 원래는 높았는데, 예전에 그 정유재란 당시에 정기가 센 통명산의 정기를 꺾기 위해서 그 중국명나라 장수 이여송이가 낮게 깎아가지고 맥을 끊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고개가 땅고개가 되부렀다고 그래요.

양재룡(남, 73세) / 곡성읍 묘천리



---

## 남양리 복바위

옛날에는 저녁으로 나다니질 못한다고 했어. 저기 저 여기 올라오다 보면 유봉 넘어 올라오잖애. 거기에 큰애기가 통 앉아 있다고 그랬어.

우리 동네에서 큰애기가 죽었다……. 그 큰애기가 동네 한 층각을 좋아했는디 그 층각이 다른 디로 장가를 가버리니께 약 먹고 죽어브렸어. 그래가지고 그 큰애기가 맨날 거가 앉아 있다는 거여.

지금인께 글제 그전에는 공동산에 도깨비불도 시퍼렇게 있었제, 햇불뎡기로 공동산 그 학생이밭, 밤나무 밭 있는 데 거기가 공동묘지. 그래가지고, 도깨비불이 시퍼렇게 쓰여가지고 도깨비들이 멍긴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저 압록 강가에서 손주를 업고 오는디, 귀신이 나타나더라. 귀신이 나타났는데 그 손주를 안 뺏기려고 저녁 내내 귀신한테 끌려다녔다더라. 흘러가지고, 근디, 날이 샌게

---

도깨비가 없어지더라. 아니 귀신이.

손주를 데려가려고 한게 그렇게 흘러가지고서도 손주를 안 주려고 들쳐업고 멍갸다더라. 그러다가 닭 울고 날이 썰 만한게 그 귀신이 없어지더라. 그런 것도 옛날이야기지야?

나는 저 캄캄한 밤에 남양리에서 재철이를 업고 와도 하나님을 믿은 게 내가 든든했당께. 귀신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그랬싸도 우리 재철이 손잡고 걸어오면…….

그날 비가 많이 왔어. 공께 더 캄캄해. 오다가 물웅덩이에 재철이가 발이 푹 빠지면 “엄마 나 발이 풍덩 빠졌다.” 그른 “엄마도 풍덩 빠져봣다.” 그랬당께. 머시 안 보인께.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문둥이들이 있었어. 그래서 책보를 끼고 앞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가면은 그 사람 안 놓치고 따라가려고 막 들고 쫓아가고 그랬어. 동네에 문둥이들이 돌아다니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머시 기억이 생생하냐면, 사학년 올라가면 늦게 보내주잖아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통근하는 면장님이 나를 싣고 다녀.

학교 끝나서 내가 막 들고 와. 그 퇴근시간을 맞출라고. 그러면 면장님이 나를 싣고 와 자전거 뒤에다가. 그래가지고 남양리 앞에서

---

내려줘. 글면 삼촌들이 마중을 나와갖고 있어.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녔어. 참 옛날이야기여.

남양리 그 우리 동네 뒷산이 봉우리가 다섯 봉 산이거든? 그 옛날  
에 할머니가 그 말을 하더라. 다섯 봉 산이라 산 이름이 오봉산이라  
고. 엄마 왜 오봉산이라 한당가? 물어보니까 엄마도 이렇게 높은 봉  
우리가 다섯 개라 오봉산이라고 하더라. 그 오봉산 줄기를 타고 사  
니까 남양리 사람들이 잘산대. 오봉산 그 산줄기 밑에서 사니까는.

남양리 앞에 바위가 큰 것이 있었거든? 큰 바위가 있었어. 그것이  
남양리 앞에 북바위라네.

그랬는데 그것을 남양리 어떤 사람이 포클레인으로 파다가 자기  
네 논두렁에다가 갖다 놔버렸어. 혼자만 복을 받을라고 했능가 어  
쩐가.

그랬는데 어떤지 아냐? 그 집 큰아들부터 죽어버렸어. 큰아들이  
차사고로.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라. 아니 점쟁이가 아니라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다  
고 그러더라. 그 후로 젊은 사람이 또 한 명 죽어버렸어.

그 죽은 아들 친구, 그 친구가 또 죽어버렸어. 술만 한잔 묵고 오면  
밤새 자꾸 그 친구가 가자고 한다고 그렇게 벨소리를 해썬데만 죽어

---

버렸당께.

그래가지고는 그 바위를 도로 그 자리에 갖다놔당께. 갖다 놓고  
제를 지냈어. 그 뒤로부터 글안해. 그리 안 하면 젊은 남자들 다 데  
려가뿐다고 그러더라. 아, 거시기 동계덕 아들도 죽어버렸어. 아, 삼  
송에서 시집간 사람 아들. 아파서 죽기는 죽었지만……. 암튼간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 많이 죽었지.

우리 어릴 때 모여서 놀 때 그 바위 뒤에 딱 숨어들면 아무도 안 보  
여. 그렇게 큰 바위였어. 그것은 절대 안 손대야 한데. 근데 지금 가  
서 보면 꼭 내려앉아버렸더라. 그전엔 이렇게 꼭 도드라져 있었어.  
근데 도로 갖다 놔어도 내려앉았더라고. 제대로 내려놔었나?

근디, 그 큰 바위를 어떻게 뺐는가 몰라? 그렇게 큰 걸 어찌케 뺐  
았었는가 모르겠어.

양정례(여. 72세) / 죽곡면 동계리



---

## 큰애기 시절

우리 큰애기 때는 찌그 석곡으로, 죽곡으로 사진 촬영하러 댕기고 놀러 다니고, 또 북소 친구 집까지 놀러 댕기고 그랬지.

명절날 되면 동네에서 널뛰고, 자치기 그런 것도 했어. 서로 편 짜 갖고 매구놀이도 하고 그랬지. 매구놀이가 뭐냐면, 소고놀이! 소고치고 어른들은 술 자시고, 춤도 추고 그랬제.

그리고 또— 인자 호박이 열고 있잖아 담장에. 그믐 그걸 목포 친구가 꼬챙이를 거기다 박아 놓는다니까. 그렇게 장난이 심했어 그 목포 친구가.

또 화투 치고, 화투를 얼마나 많이 쳤나 몰라 큰애기 때. 그리고 인자 저녁마다 모여서 수놓고, 수놓다가 지루하면 절구통에다 떡살 빵 아다 뉘다가 떡 해먹고 엄마들도 갖다 드리고. 또 남의 밭에서 옥수수 따다가 삶아 먹고 감 따다 먹고 그런 거 큰애기 때 많이 했네. 서리어, 서리.

---

그 둘째오빠네 밭에 내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서 옥수수 끊어다가 삶아 먹었어. 공께 그 올케가 “고모! 고모가 친구들하고 옥수수 끊어 갔지? 누가 끊어갈 사람 있가니?” 그러더마. 올케가 사람이 좋은께 내가 친구들을 데꼬 갔제.

둘째오빠가 한동네에서 살림나서 살았거든? 어머니가 논 서 마지기인가 두 마지기인가 내주고, 집 새로 좋게 지어 주고 살림을 내줘서 살았지. 살림날 때 쌀 다 내줬지, 독아지 사 가지고 김장 딱 해서 줬지, 다 해줬어. 지금 남양리에 그 회관집이 우리 둘째오빠네 집이 있어. 거그 살다가 인자 부산으로 이사 갔지.

우리 친구 하나가 시집을 갔는데, 그때 동네에 그 친구를 좋아한 총각이 있었어. 서로 못 사귀고 친구는 다른 디로 시집을 가버렸거든. 근디 옛날에는 봉창이 있었는데 인자 첫날밤에 그 친구를 좋아했던 동네 총각 놈이 거기 봉창을 들여다보고 불을 꺼버렸단다.

불을 꺼붓당께 그 호롱불을. 그 첫날밤에 둘이 만나고 있는데. 호롱불인께 봉창에다 대고 흑 불어버리니까 딱 꺼져불더란다.

양정래(여. 72세) / 죽곡면 동계리

---

## 피난살이

옛날 육이오 때 피난 갔을 때, 그때 그 집 오빠들 둘이 내가 이쁘다고 날 항상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 거기 쌍둥이 오빠들이 있었거든?

한번은 그 오빠들을 따라갔는데 무슨 자루에서 쌀을 줄줄줄 꺼내. 아, 그래서 뭔가 했더니—.

옛날에 피난 땡길 때는 정부에서 배급이 나왔거든. 그걸 인제 면에, 면 창고에다가 쟁여 놓잖아. 근데 거기를 그 오빠들이 어떻게 들어가갖고는 쌀을 꺼내갖고 밥해 먹을라고……. 거기도 내가 멋모르고 따라가 봤네.

정부 쌀을 훔친 거제. 나라 것인디—. 근디, 그 둘이 다 죽어뿔다. 아파갖고 앓다가 죽어뿔대. 둘이 다 죽어뿔어. 영 잘생겼었는데.

근디 그 우리 어매가 남자 이상 간 양반이여. 옛날에 반란군들이 양식을 빼앗가쁘니까 집에 식량이 없잖아. 자식들 밥은 뵙여야 되고 그런디 압록을 가야 식량을 팔아 온다. 근디 시상에 아버지는 무섭

---

다고 못 가는 거그를 엄마가 갔다 왔지.

한밤중에 사람 인적 없을 때 재를 넘어가갖고 압록서 식량을 팔아 갖고 그놈을 이고 재를 다시 넘어왔단다. 자식들 밥해 먹일라고.

울 어매가 아주 대단한 양반이여.

양정례(여. 72세) / 죽곡면 동계리



---

## 설모듬과 방천

설모듬?

아! 동네 냇가, 개암나무 있는 곳을 말하구만.

옛날에 거그 방천 없을 때 물 지면은, 옛날에는 해년마다 물이 지 다시피 했잖아. 근께 그 물을 솔나무의 그 거시기를 보면 어느 정도 물이 올라오면 냇가 개암나무를 그냥 넘었다고 그러대. 그니까 그때는 뭉가 없을 때니까 그렇게 물 높이를 잰 거지.

개암나무 냇가 물이 넘어 신작로의 논에 네 밭만 남겼다고……. 움싸으로 그렇게 물에 썰려 갔어. 물이 냇가 개암나무 자리, 개암나무 자리에 딱 오니까 그걸 보고 알았어. 시방은 방천을 해 논께 좋은 거여. 지금도 방천 없으면 물 그냥 넘어올 텐께.

근께 그 개암나무 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여기서 옛날에는 철독도가깝고 그랬는디 여그 철독이 새 철독뿐이 안 남은 게로……. 저그 서부터 물이 다 보이잖아. 그른 어디서 나오든 물이 그 방천에 물 어

---

디만큼 찻나? 그리고 큰물 들어온다고 막 사이렌 울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염은레(여. 68세) / 곡성군 오곡면



---

## 갯석거리 도깨비

저 오지리서 고달 가는 데에 갯석거리가 있는데, 날 저물고 비가 오고 하는 날에는 주로 거기서 도깨비가 놀고 사람을 잡고 흘린께 사람들이 거기를 겁네.

사람이 고달 거기를 건네가다가 도깨비한테 흘려갔고는 저녁내 돌아댕겨. 저 압록다리로 큰 물가로 돌아댕기다가 날새면 정신이 돌아오제.

막 귀신에 흘려갔고 저녁 내 돌아댕기다가 날 새면 집으로 오면서 정신이 돌아온당께.

그전에는 도깨비가 많았었어. 왜냐면 먹고살기가 곤란하면 근디야. 헛것이 많이 보이지.

못 먹은께 배가 고프면 그리 헛것이 보여. 배가 고파도 묵덜 못헌께 배가 고파서 헛것이 많이 보이지.

그 왜— 그 왜 빗자루 몽뎡이가 불이 붙어갓고 있는 것을 도깨비

---

가 데리고 댕긴다고.

그런 헛것을 보고 귀신이 나왔네! 뵈 했네! 그전에는 그런 소리덜 하고 그랬는데. 헛것 봤단 소리를 하는 일이 많았어. 근디 지금은 잘 먹고 그런께 어디가 도깨비가 있어.

오경섭(남, 94세) / 오곡면 오지리

---

## 도깨비

여기 오지리에 도깨비 썰었어.  
근디 시방은 도깨비들이 짝 가블고 없제.  
나도 봤는디, 저쪽 뒷거리에 도깨비들이 불을 지르고 다녀. 참말로 불이여. 저기 마을 너머 철도에서 이놈들이 재미있게 소리 지르고 노는디 우리도 인제 함께 놀아야겠다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 도깨비들이 그렇게 놀았단께. 옛날에는 도깨비들 썰브렸어.  
지금 사람들은 도깨비가 뵈인지도 몰라.

오경섭(남, 94세) / 오곡면 오지리

---

## 떠돌이들 집

6·25 뒤에 뭐냐, 오곡면에서 인자 집을 지었어. 떠돌이들 살라고. 전쟁이 끝나고 저기 저 본래 기존에 오지리 동네사람들 아니고, 전쟁 통해 난리가 나고 했응게 얻어먹고 땀고 떠돌아댕긴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집도 절도 없이 이게 사는 게 아니니까 오곡면에서 인제 그때 당시에 거기에다 집을, 임시거처를 지어갖고 거기서 살라고 했어. 한 집에 두 호씩 나누어 쪼갯고 거기서 살게 했어. 그래갖고, 기한댁, 기한댁이라 불렀제. 시방 해방 막 되어갯고 3구 사람들, 거석 거 앞거리, 거 밑에 2구 밑에 여천리 거기 가서 집 남으면 거기 가서 살고, 강 건너. 그래갯고 댕들었는데, 인자 그래갯고 동네가 된 거여. 근디, 그가 기존 답이나 전이 아니여. 옛날에 머냐, 내가 알기론 하천으로 알고 있어. 물이 있었잖고!

오경섭(남, 94세) / 오곡면 오지리



---

## 문지기

사대문 문지기 알지?

그전에는 요 오지리가 하도 묵을 것이 멧히고 근게 동문, 서문, 남문, 여문이 네 개가 있었거든. 그래갖고 그때는 에이 양반 상놈이 아주 썰 때여. 그때는 상놈은 강 너머에서 살고 양반 밑에 저 소주양 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런 일들이 있고 했는디.

그전에는 동문 문지기가 있고, 서문 문지기가 있고…… 문지기들이 우리 동네 땅을 해 먹고 머슴 살고……. 동네일을 하고 초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초상 다 치르고 이려. 문지기는 놀러도 못하고 허드렛일만 했어. 그 사람들은 가서 매일 심부름 다하고 초상 다 치르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했었어.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동문에 있고 서문에 있고 그랬어. 지금도 터는 있잖애.

오경섭(남 94세) / 오곡면 오지리

---

## 할아버지의 일생

내 살아온 얘길 하라고 잉—

어릴 적 그때, 십칠 세인디, 집에서 인자 나무 같은 것도 해 오고. 그때는 산에 가서 나무하다 불 땡기고, 봄이 돌아오면 풀 베서 거름장만 허고, 그리고 인자 못자리한단 말이여. 못자리해서 그놈을, 옛날에는 트랙타가 없어. 전부 쟁기로 손으로 갈아갖고 쓸어갖고 풀 있으면 발로 밟고 씨리질해서 모다와 옛날에는, 트랙타가 없응게. 그러고 살고 있었지.

근디 일본 놈들, 아니 그 한국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 어디 숨어 갖고 있는 것도 다 갈쳐주고, 한국 놈의 새끼들이 더 나쁜 놈들이여.

이제 다 잡아다가 인자 저 읍에 그 안 있나? 북경원 짜장집이. 방에다가 모다 짜장 같은 거 사 주고, 영주 못 가게 감시를 하고. 그러고 인자 있으니까 차가 와. 트럭. 사람이 탄 것이 아니고 짐승 칸에다가 전부 다 실어.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가. 부산 간게 배가 와서

---

딱 있더라. 어 저기 배가와 있어. 배에 싹 타라 그래. 그래서 배에 탔지. 인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것이여.

인자 일본으로 갔어. 그때는 여기 사람들은 짚신 같은 거 신고, 다른 신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거가 일본 높은 데가 추워. 눈이 오고, 나가사끼 유다가와라고 하는데, 거기로 갔지 차 타고. 차가 꼬불꼬불 열로 간디, 숙소라고 지어 놔더라.

숙소에서 인자 인원점검하고 밥 줘서 밥 먹고. 거기서 인자 그렇게 생활을 했지. 낮에는 일하고, 거기 인자 삼 년간을 계약을 하고 갔어. 토공도 있고, 물자 같은 거 실어 날르는 거시기 수송도 있는디. 그러고 있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인자 삼 년 계약을 했는데 삼 년이 다 되었던 말이여.

근데 안 보내줘 그냥. 휴가를 한 번 보내줬어. 인자, 휴가 보냈디 헌병이 따라와 인자. 데리고 와서 경찰서에다가 인계하고 가. 달아나분께. 경찰서에다 인계를 하면 인자 지키지 뭐. 꼼짝 못하고 사흘인가 나흘인가 인자 쉬었다 도로 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있는데, 가가지고는 인자, 어으 오노란 디가 있었어. 한국 사람들은 인원이 많아. 일본 사람 한 방이면 한 십이 명 십삼 명, 우리는 한 이십 명 넘어브러.

---

---

근디 우리 중에 밥탱이가 하나 있었어. 우리가 인자 밥해 먹으라고 주방 가갖고는 사고를 쳤어. 주방에서 사고를 친게 일본 놈들이 막 긴다란 작대기 같은 놈을 깔아놓고 그런 놈으로 막 썰리고 인자 막 난리 치고 그랬는데, 인자 우리가 가만있어서는 안 된다, 헌병대로 가야 한다 그랬어. 헌병대는 시내에 상당히 떨어졌는데, 비가 오는데 헌병대를 찾아갔지. 근게 헌병차에 중간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헌병들이 왔어 인자. 뒤로 돌라고, 싹 뒤로 돌려서 숙소로 왔어 도로.

거기서 인자 누가 이런 짓을 하자고 했냐고, 두목 사람 누구냐고, 막 개 패듯이 패브러 이놈들이. 사정을 안 봐, 막. 일본 놈들이. 헌병들이. 그놈들이 이런 짓을 누가 하자고 했냐? 어떤 놈이나? 막 개 패듯이 패브러. 나는 인자 머리 여기를 맞아브렸어. 여기 혹이 막 있어 갖고 있는게 의무실로 가브렸어. 그래서 치료한 데서 맞지는 않았어. 그 두목자도 아니고, 하여튼 대학생 애기들이 그런 거인디, 애기 하나를 둘러싸브렸어. 그 밥탱이가 두목자가 아닌디, 어 사람이 순하니께 그 사람이 했다고 해브러. 잘난 놈들이. 그런 게 날마다 인자 뭐 씨갓고 헌병대 왔다 갔다 하고 글드만 날마다. 결국은 맞아서 골병들어 죽었지. 오지리 사람이여. 그 밥탱이가 오지리 사람이여. 아

---

---

이고~ 그런 세월을 살았네.

그래갖고 인자 한국 사람들을 함께 있지 못하게 짝 갈라브렸어. 일본사람 반으로. 함께 있으면 또 큰 사고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 사람 방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짝 옮겨 논께 사고 낼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만 따라갔지.

그렇게 있다가 인자 해군 선령대로 갔어. 일본 사람들이 간게 안 갈 수가 없고 따라갔어. 저 먼 디로 가고 싶은데 가들 못해. 미국 군인들이 나오께. 인자 이번에 가면 죽은 거인게, 살든 못할 거인게 구경이나 히고 가자고 이제 대만 가서 구경 며칠 하고 전시에 간게 인자 살 생각은 못 허지.

대만 구경 사흘간 하고 인자 필리핀 민다노섬으로 갔지. 한쪽 산 밑에다가 배 놔두고 물자를 실어 날랐지. 저 산 밑에 비행기가 안 보이게 숨가놓고. 안 들길라고.

근데 인자 차들이 있는데 몰라볼 것이여? 배는 안 보이지만 날마다 물자 실어 날르는데. 나는 수송병으로 떨어져서 맨날 실어 날르기만 했제. 거기서는 팬이 있었어. 자동차 조수들—.

근디 미군이 자꾸 온다 근게 올라와. 전쟁이 날라고. 하루는 미군이 곧 올라온다고 식량서편 모든 물품을 가차 없이 짊어져. 산으로

---

올라가네 인자. 미군이 올라온다고.

안 들길라고 산으로 올라와. 거기는 필리핀 그 산이 높아갖고 날마다 비가 온 게 시원해. 여그는 막 뜨거운디. 산에서 요쪽으로 멩기고, 저쪽으로 멩기고. 배에서 막 포를 쏘게 막 멩졌지. 갖고간 거 목을 거 다 떨어져블고 신발도 다 떨어져지고. 인자 비가 오고 근게 찢어져서 맨발로. 어이구~ 식량이 떨어져블고 한게로 평야인 디로 가서 고구마, 배추도 심고 자급을 해. 캐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네. 근데 인자 자기가 캔 놉 자기가 못 먹고 위에 쥐브러. 목고 떨어지면 다시 캐 오고. 그 지랄을 하고 있다가 일본서 해방됐다는디, 통신이 안된 게 해방된 것도 몰라.

헌병대가 와서 인자 일본 졌은게 내려오라고 허. 몇 번 그런 말 듣고는 내려왔어. 총 같은 거 짝 내블고 살다가 중대장만 칼 차고 내려왔는데, 중간만큼 내려왔는데 학교가 있더마. 차에다가 뭔가 많이 실어갖고 있어. 짝 시동을 걸고 있어. 실어다 논 것이 목을 것이여. 식량. 미국사람들 레시오 그런 거여. 앞에다 갖다 놓고 많이 목으라고, 막 많이 목으라고 해 배 고픈게. 거기서는 비늘 하나라도 다 뺏어가. 손톱깎이도. 인자 많이 목고 나니 차를 타라고 해.

그 차가 저 바다로 가면 배가 되고, 육지로 가면 차가 되고 그래.



---

나도 처음 봤어. 배땡키로 생겼어. 근데 인자 밑에 바퀴가 달려가 있더라. 타라 그래서 탄계, 인자 해변가로 가. 거기에 텐트를 집나 길게 쳐놔. 수백 개 된가. 거기서 인자 인원 배정해갖고 텐트 하나에 몇 명씩 해서 쉬라고. 거기서 인자 날마다 묵고 놀지. 밥 묵고 맨날 놀아. 왜 안 보내주고 여기다 두냐고 한께, 배가 안 온께 못 간다고.

한국으로 가는 배가, 배가 안 온께 한국을 못 가. 배 오면 간다고.

인자 바다 가운데가 배가 큰 놈이 하나가 왔어. 그니까 아까 그차가 되고 배가 되는 거기에 다 타라 그래. 거그다가 싹 실어. 끌고 배에다가 큰 그물을 걸쳐놓고는 잡고 올라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전부 기어 올라가서 배를 탔제.

배 타고 이틀이나 걸렸나. 거기서 일본꺼정 갔어. 일본 해군본부로. 요꼬스까라는 디. 도쿄 옆에. 한국말로는 횡빈, 요꼬스까여. 일본 해군본부 요꼬스까라고 하면 다들 알제.

거기 온게로 그래도 해군본부에서 사흘간 쉬게 해줘. 그리고 거기서 히연 담요 모포 한장 줬어. 진짜 털로 만든 거. 해군이나 쓰는 모포 그거 한 장씩 줘. 인자 거그서 한국 나가도 재미가 없다고 두 조각으로 갈라져갖고, 한국 가고자 현 사람은 가고, 아니면 안 가도 된다고 해.

---

---

한국 외본게 내가 제일 나중에나 왔어. 집에 와서 본게. 다 나와블고 일본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블고,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나왔어.

인자 집에 와서 결혼식을 했지. 결혼식하고 살고 있는디 육이오가 터졌다고 그라네? 전쟁을 헌단 말이여. 김일성이란 놈이 밀고 내려와.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인민군들이 잡아가고.

그래서 여수 15연대에 지원해. 밤낮 훈련만 시켜. 순천역 가서 훈련을 받는다, 그때 인민군들이 저 남원 왔다고 혀. 남원까지 와서 여수로 갔지. 여수로 가서 배에다가 창고에 있는 쌀 식량 반찬 같은 거 싹 싹 싹고 배에 못다 실은 것은 창고문을 열어갖고 민간들 다 갖다 먹으라고 해. 그날 저녁에 인자 싹 배에 싹고 완료해 놓고 담 날 아침에 출발할라고 헌디, 어찌 안개가 많이 끼어브렀던지 옆에 사람도 안 보여.

근데 산물랑이 와서 배에다 포를 싹. 인민군들이. 어찌 그렇게 내려와브렀는가 몰라. 근데 배는 요리조리 틀고 해서 마산으로 갔지. 포를 안 맞았어.

마산 가셔도 전투를 해 산을 두고, 저 부산진초등학교로 갔어. 거기서 또 훈련만 받아. 한쪽에선 늘 싸운디 통 훈련만 받아. 글다가

---

---

인자 곧 간대 전쟁하러.

근데 유엔군이 우털을 훈련시켰는가 봐. 유엔군이 한국 땅 밟을 때 같이 했다. 미군하고 같이 싸우고 생사고락을 같이했지. 내가 유엔군 소속이여. 같이 묵고 자고, 낙동강 지키라면 같이 했제.

거기가 사삼 제 이 교육대, 거그서 훈련을 받았는디 하루는 그냥 차가 대여섯 대 되려나? 짐을 막 싣고 들어와. 싹 나와서 전열하라고 해. 내가 연병장으로 전열을 하는디 각자 총, 피복, 실탄 같은 거 다 들고 완전무장하고는 군번도 그 사람들이 걸어주고. 케이 군번. 이름도 지가 맨들어서 불러본당께? 내 이름 비오라고 불러, 미국 애들이.

그래갖고 낙동강 함안지구에 부산 들어올라고 집회를 해갖고 있는 인민군 부대를 아주 박살을 냈어. 유엔군하고 우리하고 함께. 막 적사포로 때리고 비행기가 때리고 데이다시피 했어. 우리 아군도 많이 죽고 부상도 당하고.

인자 전차 앞에 간디 아따 인민군들이 숨어 있다 공격한디 그놈에 많이 당했단께. 부상도 당하고. 그때는 인자 자갈 갈아갖고 패이고, 그리 살았는디 해산시키고 막 싸우고 도로 인자 돌아와. 남은 병들을 찾아서. 부상자들을. 전차를 타라고 한디 꼭 잡고 있어야 돼. 그

---

냥 픽 가브러. 글면 다 떨어져브러. 꼭 잡고 꼭 엮져 있어야 해. 그래가지고 인민군들 요쪽 건너온 놈들 죽여블고 남은 놈들은 전부 거시기로 건너.

대구 쪽에 고리 인민군이 거가 있었어. 고놈들이 부산 들어올라고 낙동강을 건너서 함안지구에서 집결을 하고 있었어. 그걸 봐가지고는 막 유엔군 발 딛자마자 고놈들을 없애버렸단네. 근데 낮에 보면 개미새끼 한마리 없고, 밤이 돌아오면 이놈들이, 인민군들이…….

근디 가털이 붙을 디가 없어. 포에 쪽 실탄을 옆에다 해놔어. 막 던지고, 들어오들 못해. 수류탄을 막 던져놔. 그리고 인자 가는 철사 같은 거 있어. 건들면 불씨져븐 거. 한번은 소가 나와서 건드려서 불이 켜져 갖고는 인민군인 줄 알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 소래. 검은 대가리가 건들면 불이 켜져 환하게.

그렇게 낙동강전투 끝나고 저 진주로 돌아왔어. 진주 시내는 인민군 집결지라 이틀인가 쉬고 올라간 거지. 산청에 이놈들이 인민군들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총을 쏘, 계속 우리는 저 함양으로 해서, 남원으로 해서 올라가. 신이 나서 며칠 주둔했었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자 저 영동, 충청북도지 거가. 영동중학교 있고 디, 사범학교 있고 한 거기서 또 주둔하고. 인민군들이 늘 풀썩

---

뛰어가고 폴짝 뛰어가고 그러. 그럼 냅뒤브러 총 한 번 쏘고 가라고.

냅뒤브러. 그리고 영동서 며칠 주둔하고 있다가 요래 옥천. 영동 밑에 옥천 냇가에서 인제 우리는 한국군으로 편입시켜 주고, 육사단으로 편입시켜 주고 미군 고문들은 일본으로 들어갔는가 모르제.

이제 계속 올라가네, 북쪽으로. 김일성이 보러. 계속 올라가 그냥. 평양에서 하루를 잤는가? 차를 타고 계속 올라가, 저 압록강으로. 선발대는 가고, 우리는 후발대고. 후발대는 압록강 거기는 못 갔지.

근디 아이고~ 막 중공군이 이제 터져나와. 중공군이 터져나와서 모두 포위를 해브러. 그때 인자 미국서 후퇴 명령을 하제. 미군들도 저쪽 서해 쪽 바닷가에서 전차 뭐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 전부 기름 찌꺼려서 태워블고 사람만 인자 헬리콥터로 바다로 실어 날랐어. 무기 같은 건 다 태워블고.

우린 중공군들이 확 나와본께 갈 수가 없어. 거기가 평지인지 양 쪽에가 산이고. 막 하산해, 그러니까 못 나와. 한국군도 포위당해서 아이구메, 죽으나 사나 한쪽을 뚫어야 해. 여그서 심오 연대는 한쪽을 뚫고 탈출했어. 아이고, 피난민인지 군인인지 막 섞여져갖고는 임진강 거그서는 후퇴하란다, 시수한다, 임진강에서 시수한다고 막 그래. 순찰을 가보면 불도 못 피우고 얼어가지고 묵을 것도 없고, 그

---

---

래갖고 어떻게 싸운대.

우리가 육사단 있을 적에, 칠사단이 터진께 짝 다 임진강도 터져 브러. 그래서 서울까지 와버렸나. 중공군이랑. 서울까지 들어와브렀 당게.

나는 육사단이 경기도 광주에 주둔해 있을 때 수색 나가서 부상을 당했는디, 그 뒤로는 몰라. 그게 끝이여.

오경섭(남, 94세) / 오곡면 오지리



---

## 용무동 무우막

옛날에는 용무동 솔밭 있는 디 그리가 맨 무우만 승귀. 그때는 기차밭인데, 서울 사람들이 막 와서 사갔고 가. 용무동이라고 현 디. 서울 사람들이 와서 차로 막 사 가. 무우를. 돈 주고 이제 사 가니까 여기 사람들은 팔아.

옛날에는 여가 무우로 유명했지. 오지리 전부가. 무우 많이 승꿔지. 그래갖고 무우막이 있었어.

무수막을 두 개 지어놓고 무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 무우를 지키게 무우막이라 그래.

아 일본놈들이 공출해서 싹 가져가블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무우를 갖고 식량을 했어. 아이 막 새벽 되면 무우 씨는 소리가 요란했어 아주 그냥. 무우밭을 허니께.

오경섭(남, 94세) / 오곡면 오지리

---

## 콩장사 힘자랑

압록에서 오지리 못 와서 고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무슨 큰 콩장이 생겨블고 했드만은, 그전에는 그 고개를 넘어서 저 오지리로 왔지.

그전에 콩장사가 하나 있었는데, 콩장사가 거 압록을 가느라고 거기를 간게, 거 앞에 중이 절에 있는 보자기를 가방같이 메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방을 메고는 압록으로 걸어가더래.

거의 최필년이라고 하는 그 콩장사가 중이 걸어가는 걸 본게 어찌 잘 걸어간지 뒤를 따라감성 저기 천천히 갈 수 없냐고 한게 내가 간 것이 제일 천천히 걸어간 것이 요거이라고 하더래.

아, 가다가 거 뭐, 뭐 깨움기를 해서 따라가야 하고, 따라가야 하곤 한디, 강 짐시를 가다가 거 지금 인자 도로가 나면서 없었졌지만 짐바우라고 있었어.

저기서 콩장사가 큰 돌을 주워서 중한테 딱 하고 힘자랑을 하니

---

께 중이 집바우를 올라간디, 훌쩍 뛰어서 집바우를 올라감성 소나무를 뽑아서 그앞에 간 그 콩장사한테 요놈을 요리 그 바우 건너서 신작로에서 줌서 힘자랑하고 다시 딱 바우 위에다 소나무를 놔서 힘자랑을 하더라. 그리고 손으로 까딱하면서 힘자랑은 하지 마라 하면서 쫓아블더라네.

그래서 콩장사가 오지리까지 도망왔는디 옷이 훌쩍 다 젖어갖고 어찌 놀란지 생똥을 싸부렀다는 그런 유래가 있어.

근께 힘자랑도 말고, 뭐가 됐든 그 힘이라는 것은 애껴야지 함부로 써서는 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오경섭(남, 94세) / 오곡면 오지리

---

## 똥방

동네 풀마니라는 거이 뭐냐믄, 저그 마을일 하는 사람들 알제?

마을회관 아래채 사는 것을 똥이라고 하는데, 그 방을 똥방이라고 혀. 하고 똥방서 살면서 마을일 도와주고 돈 받고 사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똥만니하고 불렀제. 그 말이 인자 풀마니가 된 거제.

그걸 몰라 다들.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안 부르제.

오성태(남, 66세) / 오곡면 오지리

---

## 담방소

서문교 가기 전에 담방수라는 지명이 있는데, 담방소라고 불리는 그 지명유래는…….

지금 섬진강 강가 방천이 없을 때 섬진강 물이 지금 담방소라고 불리는 거그로 물이 흘러들어서 인제 둑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둑병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둑병이 인자 여러 곳에 담방담방 요렇게 있다고 해서, 여러 개의 둑병이 모인 곳이라 해서 담방수라는 지명이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오영섭(남, 51세) / 오곡면 오지리

---

## 오지리 물·바위 이야기

오지리마을 안에는 물도 있고 바위고 있고 그라제.

여기 여 조씨 집에 있는 바위 말이여, 그것이 저 위로부터 떠내려 온 거여. 바위가 최악 내려온거여.

그 물이 지금 이 동네로 다 들어왔었제. 시방은 그 물하고 물길을 없애브렸지. 갈구친게……. 큰 서당 거기 앞에도 물 다 있었어.

지금도 물길이 두 개로 오잖아요. 요, 요거하고 서당에서 저리로 물길이 서당 저리로 돌아가서 뒤로 가. 인자 사람이 다 들어오면 살라고 만들어분다고.

다 있었지 내려오는 물길이. 그리구 옛날에는 마을 집들 사이마다 포랑이 다 있었어. 그때는 물레방아도 돌아갔었구만.

오영섭(남, 51세) / 오곡면 오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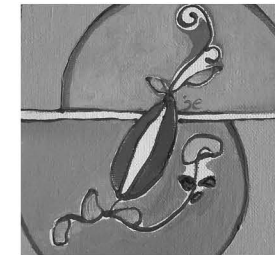
## 오지리 이야기

내가 태어난 디는 오크면 오지리 2구역.  
옛날에는 오지리에 남동, 동동, 우동, 삼동, 전동…… 마을이 아주 많았지. 문도 많고. 저쪽에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문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었어. 언제 생긴가는 몰라. 옛날이겠지.  
근데 여 오지리에서 반란군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 빨치산들이 내려와갖고 소도 몰아가고…….  
나 국민학교 졸업하던 나인데, 그때 산에서 빨치산들이 내려와서는 동넬 쓸어버렸어 짝.  
아이가, 개네들이 끌고 가버렸어. 그때 가서 죽어본 사람도 많아. 이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전부 저 산속에 요새 같은 데로 들어가갖고 그 산속에서 당했지.  
6·25가 났을 때는 산골짜기로 도망가서 안 들키고 살았어. 목을 거는 집에서 갖다 묵었지. 아버지, 성, 엄마, 다 섞어서. 몇 개월 돼~

---

그때는 다 산골짜기로 많이 갔어.  
지금은 오크이 많이 발전됐지.

오점수(남, 82세) / 오크면 오지리



---

## 용소 전설

오지리에 용. 용. 용-용이 있다고. 용쏘가 있어.  
저, 옛날에 서문 옆에 저쪽애가 용쏘가 있었제  
사람이 많이 죽었지 거기서. 많이 거기서 자꾸 죽었다고.  
깊기로 이름이 났어. 이름이. 용쏘라고. 서문각 밑에.  
가보지는 않고, 봤지.  
무서워. 무서워. 물이 막 깊고 세고 그래. 물이 뱅뱅 돌아  
지금도 있냐고? 지금 있겠쎬. 없제. 새닥 뉘뉘었어?  
세월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용쏘 있을 때가. 무서워도…….

오점수(남, 82세) / 오탁면 오지리

---

## 마씨와 도깨비

저그 저기, 쇠정어. 쇠 나온 데. 거기서 마씨가 살고 있었어.  
말 마馬자, 마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씨가 아주 효성이 아주 지  
극해. 효성이 지극한디, 저그 어머니가 아파갖고 형네 누워 있었어.  
그런디 도저히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잉?

그래서 저그 어머니가 고기를 자시고 싶어 하니께 잡숫게 해야겠  
다 이것이며. 아들이 생각할 적에, 효자기 때문에. 효자 아들이 우  
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찌게 고기라도 해서 드려야 될 것  
아니냐 생각했제.

그래서 마씨가 저그 저기, 섬진강 있지? 섬진강으로 갔어. 내려가  
서 고기를 잡을라고 보니께 섬진강이 궤악, 막아져갖고 있어 잉. 큰  
강물이 하, 가로로 딱 막아져 갖고 있어. 그러니께, 물이 막아져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인자 물이 안 들어올 거 아녀? 물이 안 들어오고  
고기가 팔딱팔딱 뛰어 잉?

---

그것을 누가 막았냐 하든, 아 그러니까 도깨비가— 그 마씨가 저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 효성이 지극하니께 도깨비도 감동을 해갔  
고,

“저그 어머니한테 어찌게 해서라도 고기를 잡아드리려고 한테, 우  
리가 하루씩 부역을 해갔고, 동원을 해가지고 섬진강을 막자.”

도깨비들이 그래갔고, 섬진강을 막아가지고 마씨가 그 밑에서 고  
기를 잡아서 어머니를 공양했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도깨비가  
막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물이 쳐도, 큰물이 쳐도 그 도깨비살은 안  
떠나가.

지금도 있어. 찌그, 송정 내려가면 있어.

똑— 똑이 안 무너져. 도깨비들이 어떻게 야물딱게 저났는가.

오준상(남. 81세) / 오곡면 오지리

---

## 송어와 은어

옛날에는 바닷가에 송어도 많이 올라왔제. 호곡나루 여까정 송어  
가 올라오고 그랬응게. 은어는 구례 쪽에서 큰 보를 해가지고 거까  
정만 은어가 올라오고.

어찌다 한 마리씩 큰 놈이 올라오긴 했는디, 지금 이쪽에는 얼마  
은어가 없어. 못 잡아. 압록에서는 잡히는가 보드마.

저그 그 삼원기업 밑에 있는 보가 옛날에는 조금 높았는데 지금은  
낮았어. 그때는 무슨 발전한다고 해갔꼬 했던 건디.

우종엽(여. 88세) / 오곡면 침곡리



---

## 호곡나루터

젊었을 때 내가 여기 호곡나루터에서 뱃사공이었제. 근 20년을 했지라. 아주 오래전 얘기네 하마.

옛날에는 태안가 들어갈 때 저기도 나룻배가 건너줬어. 우리들 어렸을 때는 그거 타고 다녔어.

전에는 고달다리 저기도 나룻배가 있었제. 줄나룻배가. 그냥 이렇게 줄서서 가는. 그냥 이저저저 주면 건네주고 다른 얼마씩 받았제. 여기 가정리에도 나룻배가 있었고잉. 인자 뽕뽕다리가 생긴 거제.

글고 저기— 고치리 들어가는 그 자리도 옛날에는 배로 땡겼고.

요기, 심진강 있는 마을들 앞에는, 요쪽서 강 저쪽으로 간 디는 전부 다— 그 당시 마을이 있는 디는 앞애가 다들 배가 있었어.

우중엽(여, 86세) / 오곡면 침곡리

---

## 곶감

애기가 너무 울더래. 꿩이 온다도 울고, 소 온다도 울고, 개 온다 글도 울고, 온 짐승을 다 말해도 울어. 근데 호랑이가 쥘 무섭제이?

근디, 호랑이 온다도 울더래. 호랑이가 가만히 듣다가 저그 내노면, 애기 밤에 내노면 애기를 잡아먹어불라고 했는디, 호랑이가 온 데도 이놈이 울어. 궁계 속으로 화가 났어. 호랑이가 그랬는게로 그 할머니가, “벽장에 곶감 주까?” 한게 애기가 울음을 덜컥 그치더래. 덜컥 그친 게 호랑이가 겁이 났어.

“나보다 이 세상에 더 무서운 놈이 있는갑다.”

그라고 후둑 뛰어서 산으로 가버렸대. 그래서 애기가 커가지고 잘 살았대. 밖에 내놔으면 호랑이가 잡아먹었을 텐디.

유숙영(여, 89세) / 오곡면 오지리

---

## 목사동 김장바위의 유래

목사동 김장바위가 어디가 있냐면 평리길 위애가 있어. 우리 집 위애가. 근데 그 김장바위라고 생긴 바위가 꼭 여자 엉덩이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 근께 폭 파였겠지.

우리는 어렸을 때 거기서 수영도 하고 놀고 그랬어. 우리가 어릴 땐 진잔바위라고 했어. 진잔. 옛날에는 우리 누나들이나 엄마들이 거기 가가지고 목욕하고 그런 자리여. 우리는 낮에 목욕하고 놀고 밤에는 여자들이 했지.

우리는 진잔바위인 줄 알고 살아왔어. 근데 칠십, 팔십 묵은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데려다 놓고 여기는 진잔바위가 아니고 김장바위다, 라는 말을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좀 새삼스럽고 그랬는데, 김장 담글 때 배추 같은 걸 잘 심어 썼었대. 마을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김장할 때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와서 했다고 그래.

---

평리로 말하면 이쪽에 여시바위가 있고, 이쪽에는 늑대바위가 있어. 여기 유방 사이에 지금……. 여 밑에 인자 자궁이 그것이 진잔바위여. 김장바위.

근데 이 여시바위하고 늑대바위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늑대바위가 보이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대. 옛날에는 나무를 비다가 땀감으로 쓰고 그랬잖아. 나무를 비서 늑대바위가 보이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간벌을 해야 된디 간벌을 절대 못하게 해.

근데 인자 우리 목사동 저 다리서부터 시전까지의 지형이 배 모양이라마. 배 모양인데 구멍을 파본다는가 집 앞애다 아주 큰 돌 같은 거 놔둔다든가 그러믄 그 집안이 안 좋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층집을 지으면 그 집이 별로 안 좋았어. 다 안 좋아. 우리 집부터가.

우리 집도 팔십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이층을 지으면서 그 뼈따구만 짓다가 돌아가셨거든. 다른 이층집들도 보면 다 안 좋아.

근데 그 김장바위 그 터가 지금은 싹 밀어져 버렸어. 하천 정비하나라고, 물은 인자 다른 데로 흘러볼제.

이국섭(남, 55세) / 목사동면 평리

---

## 그슴외와 풍섬

저기 대평리 금예마을, 지금 우리는 금예라고 그러잖아 한문으로. 근데 그게 한문으로 금예, 물론 우리 한글을 갖다가 한자로 차용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예라고 했다던데요.

이 얘기는 옛날 안태봉 씨가 해준 얘긴데, 금예가 아니고 한국 순수 우리나라 말로 그슴외래 그슴외.

그슴외가 뭐냐면 산을 끄집은다. 그니까 끄집은다 해가지고 그슴외, 그슴외 했는데, 그거를 인자 일제시대 들어서 한자로 표현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 행정구역 바뀌면서 금예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근데 그게 원래는 그슴외여가지고 금예라고 쓰면 안 된다고 글터라고. 근데 요즘사람들은 다 그렇게 써버린다고 좀 안타까워하시더라고. 근께 옛날 우리 고유지명 찾기를 한다면은 거기는 백 프로 그슴외로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왜 생겼냐면—

---

옛날에 근께 대평리 사는 아줌마지. 어떤 아줌마가 새벽에 아침밥 지으려고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엄청나게 큰 거인이, 엄청나게 큰 거인이 딱 보이더라. 저 높이 얼굴이 보이고. 근데 동아줄을 어깨에 메고 있어서 동아줄 끄트머리 저 뒤에 뭐가 있는가 보자 했더니만은 요 학교산이 딱 묶어져 있더라. 허허허.

거인이 학교산을 끄집고 저 장선리, 아니 동산리 쪽으로 막 끄집고 가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딱 봐버린 거야. 그니까 그 큰 거인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게 있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깜짝 놀라면서 끈을 탁 놔버렸다네. 그래가지고, 학교산이 그만큼 끌려오고 그 끈 놔버린 자리가 대평길이야. 그래서 그슴외래.

대체나 학교산 생김새가 주욱 끄집어 땡겨졌어. 그런 산이 없거든. 드물어! 저 명산저수지 그 끄트머리서부터 쪽 끄집어 땡겨졌어. 한 가닥으로.

근께 말쟁이가 만들어낸 말 같은디 그럴싸해.

글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아는 형님이 얘기해 준 건디. 삼원기업앞에 그 옛날에 풍섬이라고 있었다며?

풍섬. 모래, 모래터. 근디, 옛날에 무슨 비결서에가, 무슨 비결인



---

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무슨 책에 나왔더라. 그 통섬이 없어지는 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린, 그런 말이. 그런 비결이 있었다.

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릴 건덕지도 없고 그럴 사건도 없고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볼고 잊어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삼원기업이 생기더니만 모래를 자꾸 파먹더라. 그 통섬을.

그래서 저것이 이상하다 저것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근데 통섬이 마지막 모래가 딱 파지고 물이 딱 차면서 안 보이는 그날, 그날이 88올림픽 개막식 날이더라. 그날 전 세계 선수들이 와서 태극기 밑에 모여가지고 태극기에 대해 경례하고 그랬잖아. 나는 그날이 진짜 통섬이 없어진 날인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삼원기업이 모래를 많이 파다 팔았는데, 열심히 파서 통섬이 딱 없어지는 날, 그날이 우리나라가 무슨 날이었던가 톨레톨레 생각해본 게 88올림픽 개막식 날이더라.

이규재(남, 63세) / 곡성읍 읍내리

---

## 주지당 이야기

주지당이, 그니까 이름이 주지당이야. 운봉 거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오막살이땡키로 굴도 지댄헌 게 하나 있었어. 운봉 거기 가 보면 오막살이땡키로 막굴도 하나 있었고.

그 절 세울 처음 부분에 절에 부주금 많이 내고 하는 희열이네 그 사람들이 많이 잘살았거든. 그 사람들이 그 절을 성세하게 했다가, 그 사람들이 절을 짓고 부자가 되었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망해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절이 시나브로 망했어.

저기가 음, 멀어 거가. 아주 산속에 주지당이라고 저 높은 산이 참 멋지게 있어. 주지당 그 절 밑에가 좋았는데, 고쳐 진 뒤 부자들이 절에 쌀을 짝으로 가져와 잘해 줬는데도 이제 저 부자들이 망했거든. 그러니까 절 고쳐 진 게 식었나 봐. 나 있을 때는 많이 식었으나 봐. 시간이 됐었어.

---

아, 그 저기 이 절 밑에 굴이 있어. 바우 안이 지덴하게 굴이 하나 있었어. 그 안에가 부처님이 몇 분 있었고. 근께 그 절이 아주 참 절 이라고는 디게 좋았어. 이 초원에서 보면 막 겁나게 높은 게 좋게 잘 해가지고 있고. 그럼, 인제 뒤 운봉 사람이 부자들이 선별해서 자리를 했는디 시나브로 그만 절이 식어져가지고 지방은 어쩐가 몰라!

아도 기도해서 다른 데보다 좀 빨랐어. 거가 소식 좋아. 산이 좋아서 기도밭도 좋아. 빨리 애 들어서고 싶은 사람 기도밭도 빠르고.

올 때 갈 때면 정류장에서 차 타고 싹 가. 애들이랑 놀 데가 좋아. 근데 가 보면 좋아. 막 두 장의 바우가 착착 올려서 빼~쪽해가지고……. 근디 제단 그 밑에는 한 부처님이 계시고 그 바우놈을 쌓아 올려가 저 위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여기도 제단을 만들기도 참 그러니까 이름난 주지당이야.

이제 부자 회열이네 그 사람들이 주지당을 싹 점령을 했어. 저 집 첫째가 잘되었거든. 이제 그 사람들이 쌀도 짝으로 짊어지고 오고 그런당께.

지금은 없어졌단 말이 맞을 거여. 누가 그러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운봉 부자들이 점령한 그런 데를 쌀 한 뒷박씩 가져가면 빛이 기도가 잘되겠을까 그래. 촌사람은 쌀 한 뒷박씩하고 돈 몇 푼 가져

---

---

가서 기도해 본단디 그러.

주지당 기도자리를 보면 그만치 좋은 데가 없어. 산이 아주 높아가지고 주지당이라고. 높게 올라가가지고 산이. 절 이름도 주지당 절이야. 어릴 적에는 주지당 거 가서 놀았제. 운봉 연재서 올라가. 여 운봉리. 전에 운봉리 회열이네 사람들이 부자였었거든. 거기서 는 그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살았어. 그니까 절이 잘되었어. 그런데 인자 그 사람들 가고 나니까 절 식었다고 봐야지. 절터는 절터라! 좋아! 그 주지당에서 물이 내려와서 받아서 묵고 절에서는 잠자고.

산 이름이 주지당인디 주지당 절에서 작정을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 이 산에서는 한국 산이 다 보일 만치 좋아. 그러니까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높은 산속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인제 가던 길이 나뉘지면 여가 또 부처님 하나 모셔 들였어. 이제 그 산 그 뽕족한 산 밑에다! 이렇게 저렇게 칸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들었고 여기서 올려서 막 겁나게 올라가고 주지당 보면 뽕족한 산이 좋아.

그래도 기도밭은 좋고 운봉에 부자들이 주지당 근처를 감상하니까, 운봉 읍내 부자들이 그 지역을 섭렵해서 멋지게 잘되었어. 혹은

---

---

이제 그 사람들이 없고 주지당도 식어졌지.

아, 옛날에 운봉에는 그 옷칠이 유명한데 인제 칠 받이 있어.

거리에다가 칠을 내고 거 칠을 내서 사람이 먹기도 하고 약도 하고 또 상에 칠하고 운봉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거기 많이 있는 데가 주지당이었어. 옛날 그땐 주지당이 최고 썼어. 지금도 있는지, 후대에 누가 어떻게 절이 묵혔는지 그진 몰라.

거기에 절을 이제 그만 세우라고 하든가 해야제. 이제 그거는 절은 마감해야제 안 그래?

근데 절은 그 상당한 절이야. 절은 그것이 절이지. 이런 디 절은 절이 아니여! 절은 아주 적당한 절이다. 이제 절이 어쩐가 그거는 잘 몰라.

이남일(여 91세) / 곡성읍 학정리

---

## 김일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어디 도장이더러? 유명한 도장에서 가라데 4단을 탄 사람인데, 인자 해방이 되면서 귀국했어.

김두만, 김 두자 만자 쓰는 어르신인데 지금 살아계시면 한 백십 살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근데 그분 딸이 일본에서 그때 고등학교를 다녔어,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인자 나와가지고, 그 능파정 밑에 주점이 하나 있었어. 거기가 나루터지. 목사동 쪽으로 가는 나루터. 중간에 배로 질러서 가는 나루터 주막이라.

그때 김일이가 우리 석곡에서 씨름했어. 보름 때, 백중 때 그리고 지금 말하면 의용소방대장이 잘살았는데, 그 능파정 바로 아래 물레방아를 운영하는 사장이라. 주인. 거기서 돈이 많으니까 씨름대회를 열면서 황소를 내. 의용소방대장하면서, 그러면 황소를 따러 씨름하러 오는 거지 김일이가. 글면 잘 데가 없어. 그때는 숙박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야까 그 김두만 어르신 집에서 잠을 자고 그랬어. 우리 형

---

님이 나보다 열 살 더 많으니, 그 김두만 어르신한테나 김일이한테  
씨름을 배웠다니까.

그때 나는 뭐 열 살 미만, 뭐 일고여덟 아홉 살인게 우리 형님은 열  
일고여덟 아홉 살이제. 형님이 나보다 열 살이 많으니께. 근께 아마  
우리 형님이 씨름 배울 때가 열다섯에서 열일곱 그 정도에 김일이한  
테 씨름도 배우고 김두만 어르신한테 유도도 배우고 이런저런 과정  
이 있었제.

그때 당시에 우리 형님도 당수를 하고 형님 친구도 그때 유명한  
당수 고수였는데 그 어르신하고 자기네하고 붙자 한 거여. 유도가  
4단인가 한다. 그래갖고 우리 형님이 친구하고 같이 2대 1로, 인제  
지금 말하면 태권도, 당수 그걸 배워 와가지고 대련하자 이 말이여.  
근데 2대 1로 해도 그 어르신을 못 이겨. 둘이가 달라들어도 그 어  
르신을 못 이긴다니까.

그러다가 김일이가 한 번 씨름하고 갈 적에 그 어르신이 이놈은  
쓸 만하겠다 해서 일본 가서 유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 자기가 배웠  
던 도장으로 소개서를 써준 거여. 그래서 김일이가 그 도장으로 갔  
어. 그냥 간 게 아니고 밀항을 했어. 그 어르신 말씀이다니까. 그 어  
르신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여 내가.

---

---

김일이가 밀항을 해가지고 일본 가서 처음에는 레슬링을 한 게 아  
니고 그 유도도장 가서 심부름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좀 쓸 만하니까  
유도를 안 하고 레슬링을, 2년 후엔가 레슬링을 배웠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해서 이제 유능한 프로레슬러가 됐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고 다니면서 그 집 아까 있던 딸, 딸하고 눈  
이 맞았제. 글고 그 김두만 씨 딸이 우리 어릴 때 히루라고 그래. 높  
은 구두를 신고 다닌 사람이 없어. 근데 그 딸은 그때 당시에도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녔다니까.

아마 내가 일곱 살 때나 될 거여. 그 집 앞에 팽나무가 하나 있는  
디, 그 나무가 한 1미터 정도 올라가서 가지가 있어. 내가 그 위에 올  
라가서 이빨 닦다가, 비가 오니까 팽나무가 미끄러워갖고 고 밑으로  
쭉 타다가 팔이 빠져부렀다니까. 우에서 이빨 닦고 내려오다가 미끄  
러져버렸다니까. 그래갖고 팔이 빠져버렸잖아. 들도 못히고 엉엉 울  
고 있는데 그 양반이 와갖고 한 번에 그냥 툭탁! 해블터만.

그래서 내가 왼손잡이가 된 거여. 그래갖고 이제 나스니까 아버지  
가 왼손으로 젓꾸락질하면 뭐 호로자식이라고 뭐. 근께 여히튼 글씨  
쓰고 밥 먹고 요런 것만 오른손으로 하고 나머지는 왼손으로 하게  
되븐거여.

---



---

어릴 때는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어. 천자문 책을 하루에 한 자씩 한문을 쓰라 한디, 백 자 정도야 금방 쓰제. 근데 나중에 획이 많아 지고 보면은 이게 뭐 되나. 허허. 그거 안 쓰면 그 추운 겨울에 팬티만 입고 무릎 팍 꿇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네. 아주.

옛날에는 창호지를 베어갖고, 그때 같으면 뭐 이렇게 노트가 많을 때도 아니잖아. 그래갖고 칸을 그려줘 아버지가. 안에다가 한자 써라 그래. 아버지가 앉아서 써 봐라 글면 백 자까지는 금방 쓰제. 근데 인자 나중에 가면은 획이 막 많고 자꾸 가문 갈수록 획이 많아지고 어려워지잖아. 그럼 가다 못 쓴다 이 말이야. 그러믄 인자 그날은 죽는 날이여 인자. 죽는 날 흐흐흐흐.....

그 겨울날 팬티만 입고. 우리는 팬티도 그땐 뭐를 입었냐면은 저 밀가루, 밀가루 푸대 있잖아. 그걸로 만든 팬티 입었어.

고건 그래도 괜찮아. 어머니가 재봉틀을 잘하시잖아. 우리는 그때 손재봉틀 그게 있었거든? 어머니가 그걸로 다 만들어줘서 입었는데 거 삼베, 고겨는 어릴 때 입으면 왜 그렇게 풀이 되갓고 여기가 다 훌렁 까져.

고놈을 입다가 이제 밀가루 푸대가 나와갓고 고놈을 팬티로 입었는데, 왜 이렇게 좋냐 이 말이야. 이게 삼베로 풀해서 주면은 아니

---

---

여가 다 닳아져버린다니까. 인자 어른들은 그런 것이 다 단련됐는디 어린애들은 아직 단련이 안 되니까.

이만수(남, 64세) / 석곡면 석곡리



---

## 석곡마을 유래

돌실마을 유래가 마을 쪽에 있는 데가 돌의 무덤같이 생겼다 그래서 돌실이라는 데가 있고, 돌이 많아서 돌실이라는 데가 있고, 하나는 이제 남원 파씨인지 광양 파씨인지 하동 파씨인지 중간에서 뺨뺨 돈다고 해서 돌실이라는 이름이 있고 세 가지인데, 근접한 것은 최근에서야.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한 것이 석곡에는 돌이 많아서 돌실이라고 한다드마.

덕흥에 느티나무 있는 쪽이 돌의 무덤같이 생겼다 그래서 돌실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한디, 그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거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애. 석곡 장골 연동, 연동리 거기, 농공단지 못 가서 우측에 있는 동네. 거가 장골 돌실이야.

장골은 골짜기가 길다는 말이 아니고, 그계 장이 있던 골짜기다. 시장이 있는 골짜기다 그래서 장골이야.

그니까 장골에 시장이 있었는데 석곡면 소재지가 생기면서 장을

---

거기로 옮겼다 이 말이여. 그래서 연동을 옛날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연반3구 장돌, 연반4구 전기, 그담에 연반2구 농반, 연반1구 요우남 등등 해서 그계 자연부락 이름이고.

요우남을 지금은 요운 그러는데 그것을 행정구역상으로는 연반1구, 그담에 연반2구, 아까 장골은 연반3구, 전기가 연반4사구.

광송도 4구까지 있는데 광송1구를 용주, 2구를 방주, 3구를 하송, 4구를 상송 이렇게 불러. 근데 상송도 과거에는 온수동이란 이름을 붙인 건데 온수동에 온천이 났다드마. 온수동까지 물이 흘렀대. 근데 겨울날 어떤 미친 여자가 온천 나오는 데다가 입을 대고 물을 먹고부팀은 안 나와버린다야.

옛날에는 물이 흘러서 온수동으로 뜨신 물이 흘렀대. 저기 압록에서부터, 처마골에서부터. 그니까 온수동은 말 그대로여. 더울 온수를 물 수레자를 썼으니까. 마을 동문자 쓰고, 온천 그거 개발해갖고 그때 300미터 팠을 때 18도인가 나왔다 했어. 근데 그때 팠던 사람들이 그 장소를 안 아껴줘버려. 막 취취취 팠어. 18도까지 나왔어.

그때, 한 20년 전에 면에서 판게 아니고 개인이 온천 개발하려고 팠는디, 그 팠던 자리를 몰라. 지금같이 시추기 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때는 경운기 대가리로 발동기 돌려갖고 시추했어. 한 300미

---

터까지 시추하니까 온천이 나왔어. 그니까 딱 밀봉해갖고 숨겨브렸제. 근데 그 사람이 죽어브렸어. 그래서 몰라.

근데 그 근방 파면 돼. 대충 어딘지는 아니까. 예전에 금호고속에서 협약을 하자고 해갖고 두 달 해갖고 그랬는데, 그때 금호가 뭐를 했냐면은……. 내가 전남기전에 살았을 때 금호 회장 박…… 그 누구더라, 큰아들 말고 둘째아들. 박정구 밑에가 박상관이라고 박정구가 회장하고 간부가 면장의 선배들하고 동창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끌어들었어. 그래가지고 협약을 맺을라는데 그때 금호기업 합리화하면서 금호건설하고 고속하고 통합을 해브렸제. 그래서 여력이 생기니까 안 해브렸어.

이만수(남, 64세) / 석곡면 석곡리

---

## 성 몰락과 미륵

나도 저기 우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긴데, 과거에 신승겸 장군이 전쟁터에 다닐 때 명마를 타고 다녔는데, 그 명마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석곡 능파리에 보면 태끌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후백제 본터였지 아마도.

후백제인데 거기에 성터가 있어. 성터가 있는데 이제 신승겸 장군이 태끌바위 우에 서서 성터 우에를, 성터 제일 높은 산을 보면서 말더러

“내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만약에 화살보다 니가 늦게 도착하면 모가지를 베겠다.”

그리고는 활을 쏘고 동시에 그쪽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갔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화살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말의 목을 탁 치고 나니까 화살이 나무에 와서 딱 꽂히더라. 그래서 그 명마에게도 굉장한 후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서 췌던 그 말 발자국하고 신승겸

---

장군이 내렸던 발자국이 태끌바위 위애가 새겨져 있대.

설화인데,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말 발자국하고 하여튼 태끌바위 그 우애가 선명하게 있어. 지금도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쪽을 향해서 하는 말이 성 몰락, 성 끝터리라고 했어. 지금도 성터가 그대로 무너진 상태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유래가 있어. 그리고 계마석 밑에 하마석도 있고.

성 몰락은 그 석곡고등학교 뒷산. 이제 거기는 석곡하고 당동, 죽곡면 당동리 사이에 있어.

지금 성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 돌이 무너져가지고, 그걸 보고 성 몰락이라 그러지. 그 위에 제일 높은 단을 천안봉인가 뽕 봉이라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를 보고 이제 태끌바위 위에서 화살을 쏘았지.

또 내가 아는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는 석곡면 유평리 이야기네. 거가 벼들 유<sup>ㅁ</sup>자, 무슨 평이더라? 그래 평탄할 평<sup>ㅁ</sup> 유평리가 있고 바로 위에 행정리가 있어. 행정. 그래서 이 동네를 합쳐서 유평이라 그래.

근데 그 유평리에 아주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잣집에 시아버지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 스님이 시주를 가니까 시주 주머니에 모래를

---

담아준 거라.

그러면서 다시 오지 마라고 보내니까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죄송하게 됐다고 미안하다면서 거기다가 쌀을 담아주니까 스님이,

“며칠 후에 비가 많이 올 테니까 너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만 한동산으로 올라가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디 며칠 뒤에 참말로 비가 계속 많이 오니까 며느리가 그 스님 생각이 나서 한동산으로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봐 버렸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자기 집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제. 그때 뒤를 돌아봐서, 그래서 그 며느리가 미륵이 났다야.

김윤섭 씨 말로는 그 시아버지가 왜 나를 두고 너만 가냐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봐서 미륵이 났다더라.

암튼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미륵이 원래 하나가 아니고 한 쌍이 었대. 똑같은 연대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라더라.

지금 저그 석곡 죽산리에 미륵암이 있잖아. 그 땅을 새로 산 주인이 암자 안에다가 미륵을 하나 너냈다고 해. 그래서 지금 죽산리 미



---

특암 암자 안애가 미륵이 하나 있고, 한동산에 하나 있고.

구경할라든 얼마든지 해.

그 미륵하고 이 미륵하고 뭘 관계가 있다는데 내가 그걸 지금 듣고도 잊어버렸어. 근데 물어보면 알아. 죽산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 웬만한 사람은 알아 그거.

이만수(남, 64세) / 석곡면 석곡리

---

## 수박서리

대황강 소재지 살아도 우리 친구들이 수영을 못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강에서 수영을 안 하고……. 그때 밤에 한 열 명이 수박서리를 하자 해갖고 갔어. 그때는 어른들이 수박하고 참외하고 거의 다 같이 심었거든.

인자 중학교 거 앞에서 건너편 목사동 쪽으로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근께 수영 못하는 놈은 오지 마라 그랬는데 한 놈이 따라온 거라. 그래갖고 나하고 세 명이 갔어. 나머지는 인자 기다리고 있고.

수영을 해서 강을 딱 건너갔지. 거기 수박밭이 제일 많거든. 강이 깊어. 우리 키 넘어블제.

그래가지고 이제 고놈 수박을 망태에 따라 한~나 담아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 수영 못하는 놈이 물속에서 보글보글 “아이 귀! 죽겠네!” 한기라. 아니 이놈이 오지 마라 수영하잖나? 했는디,

---

한다 큰소리쳐서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수영을 못 해본 거라.

아, 그래가지고는 어찌꺼여. 망태기 놔둬놓고 고놈부터 살려야 제. 그래가지고 가만있어봐, 너 허부적거리지 마! 하고 가만히 있는 놈 잡아서 어깨 껴갖고 이제 수영을 천천히 해갖고 건네주고 본께 수박은 저기 떼내려가고 있어. 아깝잖아. 그래갖고 밑으로 가갖고 다시 올라오면서 수박을 좇어 온거라.

고등학교 앞에도 복숭아밭, 아니 수박밭이 있었어. 거기 이제 슬슬 가갖고 서리를 해서 묵고 놓고 그랬어.

그때 그 시절이 그림다!

암튼 우리 석곡마을이 옛날부터 참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동네여.

이만수(남, 64세) / 석곡면 석곡리

---

## 은은사 전설

은은사알어?

석곡 상송 우에 있던 은은사.

지금은 불타갖고 없어지고 절터만 남아 있어. 그래갖고 지금은 사유지가 돼 있는데 거기 땅 좀만 파면 그때 있던 기와들이 많이 나와.

근데 은은사가 그때 그 시절에 유명한 대사님이 도력을 써서 만들었다고 해.

그 대사님이 인조새를 만들어서 날렸는데 그새가 날아서 앉은 데가 은은사 자리래. 그래서 거기서 은은사 절을 중수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승주 송광사를 중수했다 그런 전설이 있어.

근데 그 얘길 들어볼라믄 그쪽에 나이 잡순 분한테 물어보믄 자세 한 얘기를 해줄 거야. 난 그 정도밖에 몰라.

그니까 농장에서 농장 쪽으로 가지 말고 바로 한 4, 5미터만 올라가믄 은은사 절터야. 골짜기로 거기서는 우회전 쪽으로 가고.

---

이 근방에서는 은은사가 제일 오래된 절이다 보니까 이대로 내려  
이저든. 저기를 거시기해갖고 잡은 게 송광사 절터라니까 은은사가  
송광사보다도 역사가 더 깊다는 거여.

이만수(남, 64세) / 석곡면 석곡리

---

## 이순신 장군과 능파정

능파정 알지?

한 20년 전에 내가 그때 석곡초등학교 협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  
는데 해양대학교 교수란 분이, 처음에는 교수라는 말을 안 하고 능  
파정에 대해서 혹시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 알고 있다고 그랬더  
만 내용을 좀 알려주라고 해서, 좀 자세히 알려줬더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 그래.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서 안다고 그랬더  
니 아 그러냐면서 현장을 알려 달라고 해서 갔었어.

내가 알게 된 동기는 능파정 옆에가 바로 불과 한 30미터 거리, 원  
래 우리가 거기서 살았거든.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능파정 이야  
기를 알고.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다 이제 복원할 장소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복원을 한디야. 위치가 변경돼 이제.

그 해양대학교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순신 장군 백의  
종군할 때 해양인가 해군도감인가 그런 역사책을 썼다고 얘기하더

---

만. 그러면서 그 내용을 나한테 설명해 주면서 신씨 형제하고 날을 새면서 얘기했어.

지금 현재 있는 능파정은 원래 있던 데서 한 1, 2미터 옮겨서 지어진 거야. 원래 있던 자리는 지금 도로가 났으니깐. 그것을 해양대학교 교수가 알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정리해 놨지. 그래가지고 지금 해양사에다 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교 등에 저기로 그렇게 등재를 시켰다드마. 지금 위치는 원 위치가 아니라고.

원 위치는 들어설 수가 없어. 도로가 나붙고 거가 강가라 복원할래도 면적이 안 나와. 복원이 안 되니까 위치만 옮겨서—. 고개 인자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어. 내가 말한 내용이 나올걸?

그래서 이순신 장군 수군 재건로사업이 확정이 됐제. 전부 다 위치를 몰랐는데 우연찮게.

내 나이로서는 알기가 힘든데, 아버님한테 전해들은 얘기로는 어릴 때 우리 집이랑 가까웠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집으로 이사 왔거든.

그 옛날에 살았던 집 바로 가까운 거리라. 거가 능암이여, 능암. 이게 가다가 강가 옆에가 돈단이라고 그때 정자가 있었고 좀 넓은 데가 있었어. 집 짓고 정자가 있었던 디는 관리를 안 하고 하천부지고

---

그러다 보니까 유실돼 버리고.

돈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재래, 동네에 내려온 말인데, 내가 해석하기로는 강가에 좀 높은 디를 돈단이라 그러는데, 어릴 때는 그냥 부모들이 돈단, 돈단 하나까 돈단인가 보다 했지, 뭐 정확한 뜻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 가다가 불쑥 올라오면서 평평한 데가 있는 데를 돈단이라 그런다—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 교수가 내가 일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차를 세워 놓고 물어보는 거라. 능파정을. 내가 알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 이제 나이 40대 초반이나 됐는데 뭐 설마 알까 싶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었대.

나한테 묻기 전에 뭐 여섯 사람인가 일곱 사람한테 물어봤나 보드마.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다 모르는 거라. 능파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다들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 올라가면서 혹시나 해서 나한테 그냥 물어본 거야. 내가 그때 사람들을 한 7, 8명 데리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싶어서 혹시 하는 마음에 이제 물어보게 된 거지.

그중에서도 내가 이제 우리 부모한테 들은 말도 있고 또 그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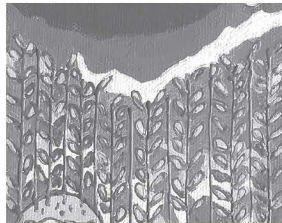
---



---

에 살아져서 정확하니 알았제. 그래서 그런 것이 해군사에 인제 정확하게 정리가 되븐 거야.

이만수(남 64세) / 석곡면 석곡리



---

## 태끌바위와 뱃석거리

어릴 적에, 꼬마 적에는 부모가 그리 엄해도 사건을 많이 치잖아. 내 기억에 아마 학교 다니기 전이니까 여섯 살 됐을 거야. 일곱 살은 아닌 것 같고 여섯 살 때, 우리 집이 이제 강가니까 나루터, 그 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디였어.

근데 이제 배가 상당해. 길이가 한 10미터, 10미터는 못 되고 7m 나 될까. 그리고 넓이는 한 2미터 정도 되제. 근데 이제 배가 떠 있는 거기를 수영으로 잠수해서 가는 거는 식은 죽 먹기인데, 앞대가리에서 뒷대가리로 가는 거는 어려워. 앞에서 뒤로 수영해서, 그 어릴 때 잠수해가지고 다 갔다고 딱 올라서자니께 배를 받아븐거라. 머리로. 그래가지고 물을 묵었는데 죽을 뻔했제.

그래가지고 다시 꾸역꾸역 나왔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탔는디 아주 난리가 났어 난리가. 직사 게 뚜드려 맞았제.

---

그리고 아까 저 뭐야 태플바우. 클 태플자 태플바우라 그래. 그 밑에 보면은 바위가 이제 밑에 태플바우보다 절반 정도 되는데, 딸기 나기 좋은 자리가 있어. 그 주암, 아까 그 원래 저 능파정 있던 디.

원래 죽곡 사람들, 그 당동 이쪽 사람들이 그 길로 다녔어. 시장 다니고 뭐, 할라면 다 그 길로 걸어 다녔어. 거기 사람 많이 다니는 텐디고 태플바우 밑에 보면 바위가 태플바우 절반 정도 되는 바위가 지금도 있는데 커. 근데 거기서 딸기가 많이 열려. 근데 한가운데가 바위가 빼죽하게 있는기라. 근데 그걸 피해야 된디 모르고 저 한가운데다 박아 버려서 기절해갔고 올라왔어. 아 잠깐 기절했었다니까. 애들이 건져갔고 나왔다니까 흐흐…….

저 높이가 한 5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서 뛰면은 이제 속도가 있으니까 가속도가 붙어버려. 대부분 뛰면은 위에서 번쩍 다리를 보고 뛰는데 나는 꺼풀로 뛰어버렸다니까. 한 바퀴 돌아갔고. 아이고~ 그래서 대가리를 박아버렸다니까 물속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도깨비불을 봤어, 도깨비불.

이제 중학교 댕김서 과학을 배우니까 도깨비불은 없다 그랬는데, 한 날 우리 집에서 보니까 저그 중학교 앞에 도깨비불이 보이는 거여. 어떨 땐 불이 하나가 됐다, 어떨 땐 불이 열 개가 됐다, 꺼지면 두

---

개가 됐다, 세 개가 됐다. 여가 있다가 막 저쪽으로 갔다가 이래.

인자 우리가 중학교를 댕기니까 간헐기가 커진 거라. 고거를 보고 우리 친구들 열댓 명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도깨비불을 확인해 보러 갔어.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한 열댓 명이 몽텅이 하나씩 치켜들고 갔지.

그때 중학교까지 거리가 한 1키로 됐는데, 도깨비불이 중학교 앞에 가 있으니까 학교 앞까지 갔지. 가니까 도깨비불이 또 그만큼의 거리를 가는 거라. 도깨비불이 계속해서.

그 중학교 위에서 계곡을 건너가면 이제 또 뱃석거리가 있어. 거기도 나룻배가 있었던 자리여. 거기까지 갔는데 또 거만큼 가는 거야. 도깨비불이.

근디 거기서 이제 더는 못 가. 이제 밤도 무섭고 물도 깊으니까 못 가지. 그래서 가자 무섭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왔지. 그니까 그때 한참 그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도깨비불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자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증명을 못해부렀지.

우리 친구들이 그 도깨비불을 다 봤냐고? 아, 다 봤지~ 나 혼자 본 게 아니고. 그래 쫓아간 거라 그거를. 쫓아간 거리만 해도 한 2, 3키로는 됐제. 저 쫓아가든 꼭 그 거리라. 근데 인자 더 쫓아갈라든 물

---

을 건너야 한다, 물도 깊으니 누가 건너하려고 하겠어 밤에. 그래갖고 더 못 가고 이제 아유 무섭다 해가고 와브렀다니까.

도깨비불은 확인을 못했는지, 우리 집 밑에 이제 뱃사공 집이 있었어. 그 집 어르신이 개눈박이라 그래. 한 눈이 실명되고 한 눈만 있어. 그 양반이 키는 크고 그래서 기운이 되게 좋아. 그리고 나룻배는 인자 물이 많이 불었을 때 사람들을 건네주고, 배는 인자 지금은 옷벗석거리에서 질러. 그리고 인자 떠내려가가지고 태끌바우 밑에 획 돈 디 가서 물 약한 디 가서 내려. 그담에 인제 다시 올라와갖고, 지금 잠실이라 그래, 그 일제시대 때 에 누에 키운 잠실. 거게 아마 대나무밭이 있고 좀 으스스해. 느티나무 큰 거야—쑥 아주 무서운 텐디 그 우에가 우리 밭이라 바로. 인자 거기서 배를 질러와야 아까 태끌바우 있는 데 떨어져. 물살이 세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를 질러가지고 먹고살아. 그렇게 배를 질러주는 그 양반이 우리 친구 아버지여. 우리 밑에 집.

그렇게 하면 인제 석곡시장에 갔던 사람들이, 늦게 간 사람들 있잖아 술 먹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술을 사 갖고 가다가 애쓴다고 술을 한 잔씩 준 거라. 그러면 한 잔씩만 받아먹어도 한 두서너 분 왔다 가든 인제 그때는 뭐 잘 먹고 사는 시절이 아니니까 술이 좀 취하

---

는디, 건너다 주고 인제 배를 다시 끌고 올라간 거라. 거기까지. 근디, 올라갔는디 도깨비가 나타나갖고는 응? 나하고 씨름을 하자고 본께 뽕 달린 도깨비 대장인가 하더라.

대장이 탁 나타나서 니가 씨름해갖고 나를 이기면 너를 보내주고 그러 안하든 너는 오늘 못 간다. 그래서 그러든 좋다, 씨름하자 해갖고 씨름을 했는디, 이겼다드마. 그래갖고 다시 배를 건너고 온 거라.

그래갖고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지. 나 어제 도깨비하고 씨름했는디 내가 이겼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 도깨비하고 씨름해갖고 니가 이겨야?” 하고 현장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인자 그다음 날 날이 새갖고 현장을 가보니까—가보니까 죽순이 하나 뿌러져 있더라, 죽순이 호호호호……. 그렇게, 이게 도깨비냐? 하하하!

아, 거그는 대밭이 왕대밭이여. 이제 큰 죽순, 죽순이 뭐 작은 게 아니라 키가 커갖고 인자 그 죽순은 껍질 벗겨갖고 열만 안 된 거제. 이제 술김에 고놈을 잡고서, 죽순이 꼭 뽕같이 생겼으께 그걸 이제 도깨비로 본 거제. 술에 의해서 환상이 보였다는 그런 얘기제. 술이 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배를 꼬집고 올라갈 정도면 힘이 상당히 센거제. 그렇게 꼬꼬만 해도 물살이 상당히 세거든. 가에는 그렇게 안 세지만 그래도 그 배를 꼬집고 올라가서 타야 되니까.

---

이제 반대편으로 올라온 직선으로 못 오잖아. 로프가 있어 줄. 와이어로. 근디 그와이어를 잡을라든 와이어가 저 넘어브러. 못 질러.

그러니까 이제 갈 사람들을 한꺼번에 몇 사람 모아. 뭐 마지막 버스가 몇 시까지만 해 준다. 그러면 인자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

그러니까 아까 능파정 바로 밑에를 뺏석거리라 그래. 거기 옷뺏석거리. 아까 태글바우 있는 데가 아랫뺏석거리. 시옷 자를 써. 뺏석거리. 그래서 물이 적을 때는 위에 뺏석거리에서 배를 질러 항상. 물이 많으면 밑에로 가. 근디 물이 너무 많이 붙어붙면 밑에도 잠겨브러. 그와이어가. 와이어를 삼각형으로 해갖고 세워. 우에다 걸쳐갖고 저쪽 모래광장에다 세워. 근데 우에도 잠겨붙고 밑에도 잠겨브러. 그러든 인자 배를 아까 그 뭐야, 대나무로 질러. 이런 대나무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운반해 주고 그러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땐디 나보다 다섯 살 더 많은 선배들이 이제 시골서 배를 한 번 타러 온 거라.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배를 건널 때 두 손으로 건너는 게 아니고 한 손으로 건너 한 손으로. 요령이 있으니까. 우리 쪼끄만한 애들도 아주 그런 걸 잘하제.

근데 이제 우리 삼촌 친구들은 그 어디냐 죽곡 골짜기에서 왔는데

---

---

여름방학. 그날이 여름방학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배 한번 타보자 그래갖고는 여섯 명이 배를 질르고 가는 거라. 근데 인제 물이 양쪽으로는 잔잔한데 한가운데가 물살이 세. 강이 크니까.

저그 갈 때는 몸을 완전히 45도로 눕혀. 그래갖고 뺏어. 그럼 발은 여가 있고 배 쪽은 여가 있어. 이래갖고 질러야 되거든. 이 촌놈들, 촌사람들, 6학년이지만은 뭘 모르니까 여 잡고 있으니까 물살이 세니까 떠내려갈 거 아니냐고. 글면 이렇게 뺏어갖고 지르든 되는데.

나는 혼자서도 가는데 아니 여섯 명이 붙어갖고도 그걸 못 한 거라.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제일 물살 센 디, 그가가 이제 배는 떠내려가블제. 근께 줄을 잡고 있어브 거여. 줄을 잡고 있는데 배는 이미 떠내려가브렸어요. 저그에 탄 사람은. 세 사람은 잡고 있는데.

배는 로프로 연결돼 있제. 근디, 여기 배는 요런 데 배같이 밑에 뭘 달아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없어. 그저 배끈만 있어. 그래서 안 되면 배 끈을 해갖고 오면 되거든. 근데 그런 요령이 없으니까 세 명이 떠내려가브졌어. 여섯이 잡고 있다가 안 되니까 세 명이 뇌브 거라.

근께 요로코 뺏줄 잡고 버티고 있어야제. 그래야 안 떠내려가제. 근디 이제 뇌브게 세 명은 배를 타고 떠내려가고 세 명은 잡고 있었어.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이 있었으든 괜찮은디, 방학이고 오후 때라

---



---

한 사람은 나중에 구했는데, 나머지 둘이는…….

끈 놔버렸제 수영도 못 한께 풍 빠져 죽어버렸제. 그래갖고 둘이 죽어뿔잖아. 우리는 고런 데 열 번도 왔다 갔다 해브러, 열 번도 근디, 골짜 사는 시골사람이 물살 세고 그러니까 수영도 못하고 그래갖고 죽어버렸잖아. 우리 석곡에서는 일 년에 한 명씩 강에 빠져 죽어. 항상 그랬어. 항상 한 명 이상은 사고가 나. 누가 죽든지.

주로 외지사람들이 와서 죽지. 우리 어렸을 때 보든 꼭 여름철에 한 명씩 죽어.

이만수(남, 64세) / 석곡면 석곡리

## 강가에 바람이



---

## 월산마을

옛날에는 덕실이 아니라 월산마을이제 여기가.

월산. 그니까 우리 마을이 저쪽에 거시기할 때는 저쪽에 있었어요. 근디 그 마을이 요리 이사를 왔어.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월산이라고 했다고 하더라. 우리 마을을. 옮기고 나서 승범, 덕실 그렇게 부르제.

여그에 가마가 하나냐? 하나하고 짜간한 거 하나 더 있었을까? 아니, 가마 하나 있고, 용기 굽는 가마 큰 놈이 하나 있었제. 나 보기에.

그 마지막으로 용기 굽던 할때, 그 양반은 인자 정신이 없어 될 몰라. 잘 답변을 못해.

용기가 내 나이 한 열댓 살 먹을 때까지 있었는가 몰라. 여기서 흙도 파고 그랬어. 여그 냇가에서 진흙도 파 가고 그랬어. 청지라고, 까만 진흙을 파갔어.

그전에 우리 쪼그만할 때는 도랑에서 껌벗고 목욕을 많이 했거든.

---

---

그러면서 파면 진흙이 나와. 여그 월산마을에서.

저그 점동네에서도 옛날에 용기를 구웠어. 용기 굽는 흙은 저그 장선리 있제? 거기서 퍼다가 지게로 저 나르고. 묘천2구 거기다카도 퍼다 놓고 거기서 버무려갖고 구웠제.

가마는 인자 큰 용기 굽는 가마가 하나 있고, 인자 그전에 화로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금께 그 조그만한 거까지 있었던 기억이 나는 거 같애. 큰 거가 하나 있고, 조그만한 게 있고.

그 가마가 어디 있었나믄, 거 여기서 저 천주교, 비 있잖애 비. 그 위에가 있었어.

이봉길(남, 77세) / 오곡면 승법리

---

## 효자와 호랑이

호랑이 얘기 하나 해줄까?

간단하게 옛날에 어느 마을에 영감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 줄께잉. 효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야.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를 산에다가 따악 안장시켜 놓고 삼년간을 그 묘 옆에서 살아야 돼. 굴같이 파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지내야 한다 그러거든.

그 인제 어떤 효자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산에다 묘를 딱 써놓고는 그 옆에다 인자 움막을 하나 쳐놓고 삼 년간을 거기서 계속 묵고 자고 살아. 효도한다고 밥은 인자 집에서 갖다 주고잉. 그렇게 했는데 한겨울에, 작년엔가 폭설 많이 왔잖어? 그와 같이 눈이 인자 많이 왔어. 많이 왔는데 그 오막살이 쳐놓은 것이 쓰러져부렀다 이 말이여. 근께 이 효자는 눈에 덮여서 그렇게 자고 있었던 말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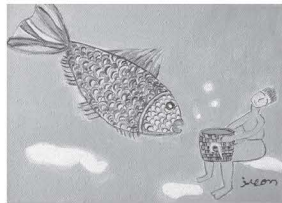
그런디 한참 자다가 떠땃해서 눈을 떠본께 큰 호랑이가 와서 호랑

---

이 털로 따뜻하니 이렇게 해주더란께.

효자가 되면 그렇게 산신령도, 호랑이는 산신령이라 그러거든?  
산신령도 도운다. 그런께 효도를 해라 그런 전설이 있어.

이승렬(남. 73세) / 죽곡면 동계리



---

## 읍내 송전 이야기

여그 읍내리3구 예전 이름이 송전인디, 옛날에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송전이었어.

여 읍내3구는 읍장 면장이 다섯 사람이나 나왔어. 여 읍내3구가 근게 아조 뭐라 할까? 높은 사람이 많이 나온 디가 우리 읍내 3구여. 그러니께 살기 좋은 디여.

이영식(남. 77세) / 곡성읍 읍내리



---

## 읍장 이야기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어. 어- 그 래가지고, 젊어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신문배달이고 뭐고 거 다 했어.

다하다가 인제 공직사회에 들어가지. 들어가서 인제 열심히 하니 까 넘한테 안 빠지고 그래서 마누라 덕을 보고 행복하게 살잖아.

내가 읍장할 때는 그 라이벌이 많았어. 많았는데, 그래도 내가 저 목사동 면장, 삼기면장 하고, 내 고향이 그 곡성이니까 탄 사람들은 막 군청으로 가갖고 좋은 데 들어가라고 한다, 그건 내가 이렇게 마 음이 없고.

내 고향이 곡성이야. 그러믄 곡성읍장하면 영원한 읍장이야. 그래 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곡성읍장을 했어.

이영식(남. 77세) / 곡성읍 읍내리

---

## 죽산 당산몰

마음씨가 나쁜 놈들이 동네 물건 돌려갖고, 그니까 도둑질해갖고 가다가 당산 신에게 잡혀갖고 도망가도 못하고 여기서만 돌다가 동 네사람들한테 잡혔다— 이것이야.

여그 우리 마을, 죽산에 내려오는 저그에 당산이 있잖여. 그 당산 까지는 도망갔는데, 거기서부터는 더 못 가고 돌기만 했다네.

이철석(남. 83세) / 옥곡면 죽산리

---

## 법구리 법통

도로가 뚫리지 않았을 때는 여름에 곡성읍서 오면 여그가 끝 동네여. 지금인께 전라북도로 저 도로가 뚫리고 그랬지. 그래서 저 우든 재가 법통이라서 법구리여—.

인자 그기로 도로가 뚫리고 전라북도 수지면으로 가는 도로제.

그리고 그전에 요 목동이 인자 우리도 모르는 옛날에 여 고달면이 전라북도로도 팔리고, 이 한쪽으로도 저기 저 아래동네가 팔리고 그랬다는구만. 남원 그리고 곡성군으로 여리 또 왔다 갔다 또 두세 차례 했어. 그런께 여그도 고달면 가정리에서 아침 먹고 오일장 가면 아침나절에 3개 면 땅을 밟아. 지금은 소매장으로 안 짊어지고 가는디, 오일장 가려고 저리 가면 구례읍 탑선리에서 강을 건너면 곡성 오곡면, 압록. 그래서 여 인자 3개 면을 밟는다고 그랬어.

임채옥(남, 67세) / 고달면 목동리

---

## 거지 명당

우리 11대 할아버지가 나주에서 살다가 여기로 왔어. 근데 그 사람이 뉘냐면은, 하도 복잡하게 산께로 짚신장사를 했던만. 그래가지고 움막을 짓고 짚신장사를 했던갑서. 어떤 거지가 왔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본 거야. 먹고살기 힘드니까 명당이라도 잡아줬으면 해서.

근데 거지가 자꾸 모르겠다고 나가더리는 거야. 할아버지가 쫓아가면서 명당 잡아달리는 거지. 근데 거지 신발이 벗겨지는 거여. 신발 있는 데가 명당이라는 거여. 자손을 보냐 밥을 보냐 그랬는갑서. 자손을 거 좀 봐달라고 했던갑서. 신 벗어진 데가 명당이라고 거지가 도망감서 말한 명당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썼대. 그래서 자손들이 잘돼. 거지가 명당자리를 잡아준 거지. 마음썸썸이를 올바로 쓰니까 거지가 찾아온 거여. 사람은 마음이 정직해야 혀.

임채지(남, 80세) / 고달면 백곡리

---

## 부치고개 이야기

부치고개라고 요기 백곡서 목동으로 가는 디 고개가 있어.  
거기 고개에 옛날에 부처가 있었어. 절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 키  
보다 큰 돌부처만 하나 달랑 있었어. 밭에서 한 백 미터 떨어져서 있  
는디, 거기서 공을 많이 들였지 사람들이. 거기다 공을 들이면 아들  
도 낳고 뭐 집안이 잘된다고. 옷을 지어다 입히기도 하드만.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정 봤는데, 그담엔 안 보이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없애부렸다 글드만.  
부처가 있다고 부치고개인데 인자 사투리로 부치고개인 거지.

임채지(남, 80세) / 고달면 백곡리

---

## 용모름 미신 이야기

초가지붕에 초가를 엮을라고 하면은 그것을 잘히는 마을 사람이  
마당을 엮고 용을 엮는디— 용모름이라 그랬어.  
제일 꼭대기. 질게 틀어야 돼. 질게 되면 여자들은 못 넘어가게 해.  
여자들이 못 넘어가게 막 사정없이 뭐라 그래.  
그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은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  
거든. 그 피 떨어질까 싶어서 못 넘게 해.  
피가 떨어지면 그것을 나중에 초가집에 여 놓고 보면은 비가 올라  
하면 거기서 막 도깨비들이 발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인자 둔  
갑을 해서 싸우고 막 난리를 친대. 그런께 재수가 없다 그러지. 근  
께 여자는 용 모름을 못 넘게 해. 남자들은 별론디, 여자들은 못 넘게  
해. 예전에는 신앙이란 것이 심했어. 무속신앙.

임채지(남, 80세) / 고달면 백곡리

---

## 할아버지 이야기

나는 여기 고달! 고달 배실에서 살아. 옛말로는 배실이고, 지금은 백곡이라 그래. 배같이 생겼다 그래서 배실이라 했더라고. 윗배실, 아랫배실이 있는데 윗배실은 상백이라고도 그래. 나 있는 데는 하백이고, 내가 짚풀공예를 하게 된 동기?

허허……. 옛날에 우리가 좀 복잡하게 살았어. 좀 복잡하게 살아서 뭐 부업을 하나 가지자 해갖고 부업을 가진 게 저 할아버지가 짚신장사를 했어. 우리 집에서.

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짚신 만드는 걸 봤어. 그전에 짚신장사가 좀 드물긴 드물었는데 그래도 많이 팔린 게 짚신장사를 했는디, 거기서 인자 내가 먹고살기가 복잡헌께 그거라도 한번 해봐야 겠다— 해가지고.

어깨너머로 봤어. 어깨너머로 봤는디, 나도 삼으면 삼게 생겼어. 그래갖고 밤은 길고 이게 밤으로 여가 보내기 좋더라고. 낮에는 일

---

하고 밤으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아йт, 반응이 좋더라고.

그전에 서울 청계천 7가가 있었어. 저 골동품 판 디, 거기서 막 가지고 오라 그래쫓더라고.

또 뭐 어디 상엿집 이런 데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그랬어. 그런 게 인자 여가 새로 만들어갖고 팔았어. 근께 큰돈은 못 벌어도 괜찮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인자, 아유~ 내가 짚일하는 데로 어떻게 뻗쳐봐야 겠다 그래갖고 용인 민속촌을 갔어. 거기 짚일 전통 있고 짚신 만드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를 가서 일을 했는디, 짚신 만드는 것은 안 시키고 자꾸 만 일을 시켜! 풀 베 오라 하고 뭐 땅을 고르라 하고 자꾸 글더라고. 거기 한 보름간 있었어. 에이 안 되겠다. 해갖고 순천 낙안 민속마을로 왔어. 낙안 민속마을로 온게로 짚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때 한참 가을이래갖고 지붕을 막 이어쫓더라고. 근께 나보고 좀 이어보라 하더라고, 좀 엮어보라 하더라고, 용마루하고 날개하고 엮어보라고 그런디, 또 엮은게로 잘한다— 해쫓더라고.

아, 그래갖고 내가 벌어야겠다 하고 거기서 방을 하나 얻었어. 낙안 민속마을에서 방을 한 달에 10만 원 주고 얻었어. 한 오륙 개월



---

사는디 낙안 민속마을 사무실에서 그러지 말고 집을 한 채 줄 텐게, 오막살이 하나 줄 텐게 거가 있으라 글더라고. 허허허, 거가 있었어.

거가 있었더니 인자 용마루 틀고 거기서 막 요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께 인기가 조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인자 거 유지에 송상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 전통을 지킨다고 나를 인자 예쁘게 보고, 나를 행사하는 데 자주 댕기게 했어. 내가 잉—상장 표창장 겁나 있잖아. 그니까 돈 안 받고 거기를 따라댕겼어. 아이 돈 안 받아도 그래도 인기가 좋다고 해싼게. 그 저기라도 하나씩 타면은 돈보다도 더 좋더라고. 참 좋아. 아주 상 하나씩 받으면. 애썼다고, 감사하다고 그 상을 내가 많이 받았어. 인자 또 차비도 조금씩 주고 그랬어. 근데 행사를 많이 따라댕겼어. 겁나 행사를 많이 따라댕겼어.

봄가을로 그렇게 댕기고 그랬는디 거기서 내가 좀 인기를 얻었어. 인자 거기서부터 내가 조금 더 인기를 얻었는데, 수염도 기르고 상투도 틀기 시작했어. 아 근게 더 인기가 좋더라고. 상투를 보고 수염도 보고, 근게로 또 상인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막 해쌍고, 사진사들이 촬영대회 한다고. 내가 오막살이가 있었는데, 오막살이하고 나하고 딱 어울려. 진짜 아주 어울려. 거기서 짚일을 헌께.

---

---

짚신도 삼고 망태 깔깔이 같은 거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 아이 참 인기가 좋았어. 근데 인자, 그리고 막 너도나도 일도 오라고 하고 좋았는데 아이가 반대했어. 집에서는 또 거가 뭐 좋냐? 그래쌍고, 거지같이 누가 상투 허고 댕기고 누가 수염 돌르고 댕기냐 막. 허—집에 오기만 하면 구박을 주네. 딴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절에 가서 공을 들이고, 자식을 위해서 뭘 일도 허고, 돈도 버는디 뭐더냐? 이런 건 뭐더냐? 그거여. 돈도 못 벌고, 거지같이 허고 댕기고. 그래서 이 주일마다 오면은 가정 불안이여 가정 불안. 가지 말라 하는 식이여. 그냥 집에서 자신을 좀 거들어 주라 그런 식이여.

아니, 나는 또 그러기가 싫어. 가만히 보면 아이구나 농사를 지으면 자식들 빚 해줄라고 반찬 같은 거 만들고 뭐 부치고 그런 것을 할라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안 맞아. 아이 그래서 인자 내가 가장인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야겠다. 왜—오면 가정 불안이여. 왜 또 갈라 하냐고, 14년간을 그러고 댕겼어.

근게 나도 내 길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자식은 자식이고, 나도 좀 그랬어. 안식구 보고 자네는 자네고, 나는 나고, 자네는 자식을 위해서 살던지 어찌던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건게. 그렇게 알고 저 낙안에 가 있었는데. 그래도 불안이여 불안이여. 아이 왜 거지같이 허고

---

---

맹기면서 누가, 누가 하고 맹기냐? 그거여.

이제 저 낙안에서 인기는 좋아. 근데 짚신 같은 거 팔고 그런계 텃세를 해 텃세. 장사하러 들어왔냐고 저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짚신 팔고 뭘 좀 팔고 그런계로 아이, 거기서도 서러움 받고 이 집에 와도 서러움 받고 서러움 많이 받았어 실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그래갖고, 한 칠 년 정도는 내가 돈 안 받고 저가 있었어. 이제 칠 년이 넘은게 좀 불쌍해서 근가 월급을 주더라고. 그때 80만 원씩 주더라고. 80만 원씩 받고 또 저가 있는데 또 이태리인가 어딘가 일본서 오라 하고, 일본 갔더니 아 그렇게 인기가 좋네. 또 일본 간 게 두루마기 입고 상투하고 근계로 일본에서 또 알아줘. 기모노 옷 있잖아 기모노. 그 일본옷 입은 높하고 둘이 맹기면 아주 이찌마이, 이찌마이 그랬어. 일본 사람들이 나보고. 두루마기를 입고 맹기께.

아따 인자 진짜 내가 전통을 살려봐야겠다, 내가 저 문화재는 안 될망정 내가 전통을 한번 살려야겠다. 그래갖고 내가 일본 북해도를 세 번, 네 번 다녔어.

근디, 거길 자주 맹기께, 이제 낙안민속 사무실에서 또 지랄염병을 하네. 일본 다니라고 데려다 놓은 줄 아냐고 하면서. 그럴려면 나

---

가라 그거여. 어쩔 수가 없더마.

일본 신문에서 저 한국에 간 노인이 막 짚을 어찌디 하고 기사를 내부렸는갑서. 그래서 일본서 오라고 공문이 오고 막 그래. 근디 안 가부렸어. 낙안민속마을에서 일본엘 못 가게 하니께! 거기도 또 내가 없으면 안 되께 그러지. 그 뒤로 일본에 안 가버려 인자. 그니까 일본에서 탁 끊어붙드만.

글고 인자 낙안에서 맹겼는디, 인자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은 낙안 읍성에 내 제자가 있었어. 서울 시흥에 사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여자가 날 따라맹겼어. 배운다고. 그 여자가 자주 와. 자주 오면 그 여자가 자고 가고 그래. 그걸 인자 주민이 알아갖고 아 그 여자만 오면 뭘 잤냐 어찌냐 씨잘떼기 없는 소리를 해 썩더라고.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진짜 요거 텃세를 한갑다, 하고 인자 마음을 돌리고 할망구한테 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맘이더라고. 한 14년을 살다가 여기로 왔어.

또 막상 짐을 가지고 곡성 온계 갈 데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갈 데가 없어. 농사를 안 지을라고 내가 게으름 피웠는디, 그때 저 기차마을에 영화 세트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라도 얻어야겠다

---

이래가지고 그때 사정사정 해가지고 얻었어.

거기서부터 내가 또 인기가 좋아. 내가 또 골동품이 많고 그런게 참 인기가 좋더라. 여론을 많이 타고 아줌마들 영화에 많이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가고 아주 유명세를 타브렸어.

그런게 인자 그 뭐냐? 짚풀 보존. 짚풀 보존. 서울 거가 박물관이 있어. 거기 여자가 임명선이라고 한디 임명선이가 거기서 알고 나를 뭐하나 만들어 줄 텐게 하라고 하더라고. 기능전승자 시켜 줄 텐게 어디 제자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자를 내가 만들었어. 제자를 만들어갖고, 그 여자가 애썼구만. 서울 그 제자가 이 서류 저 서류가 해줘서 기능전승자가 됐어. 장관이 줬어. 장관이— 그 기능전승자.

이 문화재는 전라남도에서 줬지만, 거기서는 장관이 줬어. 근디, 인자 3년간 월급을 타고는 월급을 못 받아부렸어. 거기서부터 인기를 얻었어. 내가 상투를 하니까.

거기서도 막 진작에 들어오지 인자 들어왔나? 막 우스갯소리를 해싸. 그런게 내가 더 흥이 나지. 내가 여지껏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되겠다, 이래갖고 열심히 했어. 뭐 전시에 꼭 나가고 또 어디 행사에 나가고 또 전시도 하고 그랬어. 그래갖고 여기서 인자 한 칠 년. 여

---

기서 새끼 잡은 지가 칠 년 됐어.

내가 여기로 연결이 되께로 글않아도 내가 문화재를 신청할라 했어. 문화재를 신청할라 했는디, 계보가 없어. 그전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없어가지고 못했어. 그래갖고 마침 집에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명석이 몇 다리가 있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몇 다리가 있고 그랬어.

내가 그런 걸 좋아해서 안 없었어. 일단 딱 전시를 해놔더니 문화재 거기서 심사위원이 한 분 나왔어. 그래갖고 뭐 어찌고어찌고 해갖고 한번은 그러더라고. 내가 초가집 두 채가 있었는데, 거기다 골동품을 겁나게 쟁여놔어. 근데,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부렸는디, 문화재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아 임 선생 골동품 있는 데 불이 났다면서요? 그래 “예 불이 나버렸어요.”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해. 몇 점이나 되냐? 그래. 한 삼백 점 된다 그랬더니 알았소 해. 그래서 인자, 한참 있으니까 뭘 서류를 하라 그래. 서류를 하라 그런 거 같애. 그때 사위가 있었거든.

그래갖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사위한테 뭐 몇 가지만 해라 그랬는갑서. 아, 전시도 해놓고 집을 얻었거든. 요 짚 전시공간이 없어. 내가 그때 나와 갖고 전시공간이 없어가지고 여 전시할 자리도 있고,

---

딱 그 서류를 올렸어. 그래갖고 한 한 달 정도 된게 인자 아 문화재가 됐다 그러더라고.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 서류 몇 장 올려가지고 되기는 되었는데, 그 대신 여가 일이 많아. 서류가 표창 받고, 상 받고, 그러니까 많아. 그런 게 많아갖고 이레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지금 애들한테 봉사해요. 엽전 하나씩.

지금은 짚으로 만든 생활용품이나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짚의 활용도가 겁나게 많았지.

옛날에는 며느리가 애기를 배면 대강 낳는 달을 알거든. 짚을 인제 미리 준비를 해서 개러가지고 옷목에다 나뉘. 깔아 놓는 건 해산간이라고 해서 애기를 거기다 받아. 애기를 받아 놔. 거기서 애기가 명이 길어진다는, 또 피가 맑아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 짚을 깔아 놓고 해산간도 하고 그랬어.

또 애기 낳으면 부정을 막기 위해서 금줄도 치지. 인자 더러운 사람, 더러운 사람이란 뉘를 더러운 사람이라 하나 하면 상갓집 같은 데 갔다 온 거, 또 그날 내외간에 잔 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그것도 부정이야. 그런 사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금줄을 달고 그랬어. 문 앞에다 대 하나 딱 짚아 놓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놓

---

고, 또 처녀가 죽어블면 결혼을 시켜줘야 하거든. 짚으로 남자 인형을 만들어 갖고 결혼을 시켜주고 그랬어. 영혼 결혼.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농사를 지어서 짚이 흔했는데, 인자 힘이 들어 농사를 못 지. 농사진 사람보고 좀 달라 하면 쥐. 그럼 그놈으로 해.

내가 문화재 되고 말이 참 많았네. 참말로 내가 요 문화재 그냥 상투만 해서 이거 된지 안디. 지금 사네 마네, 나도 요것 한디 왜 안 해주냐? 그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요 곡성군에도 몇 사람 되야. 자기는 왜 안 해주냐? 그 사람보다 더 잘 만든디 함서. 하— 그동안 내가 봉사활동한 게 얼마나 많아. 내가 행사를 많이 댕겼단게.

지금 내 나이가 팔십, 꼭 팔십이야. 고달면 백곡리에 살고. 이름은 임채지.

남들은 흔히 임 선생은 인자 달도 따고 별도 따고 그랬은게 뉘 걱정이냐? 그래. 근데 나도 걱정은 또 걱정대로 있어. 왜냐면 제자를 길러야 되는데, 딸이 한다 근디 딸이 할까 싶잖아. 딸이 한다 해도 그 힘 한도가 있어. 어느 정도 힘 쓸 데는 힘을 써야 하는데 여자들이라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근디 지가 한다 근디 또 어쩔 수 없지. 지가 또 뻘치고 어찌고 해야만 되지 먹고살기가 복잡한게 인자 또



---

저대로 벌어먹고 산갑서. 지금 서울 가 있는데. 즈그 엄매하고만 통화한 게 나는 몰라. 근게 나는 그래.

옛날 사람들은 다 짚신 삼고 짚일을 했지. 근디 나는 특별나게 취미가 있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 아, 잘 만들었다 그래요. 요 김성대감 만들어 놓 것도 보면 손님들 아아 막 놀래 지빠져. 그럼 또 보람도 있고. 하 또 이려고 있으면 불쌍해서 근가 어쩐가 돈도 한 돈 만 원씩이나 주고 가. 맛있는 것이라도 사자시라고.

문화재가 되고 나서는 마누라한테 구박 안 받겠다고? 아이고, 문화재 가 된 뒤로 꼭 쥐여 사네 마누라한테. 조금 감만 질려도 품위를 지키래 품위. 문화재가 돼가지고 감 지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댐 벼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더 기가 세져도 막 큰소리를 더 못 치구만 참말로. 근디, 속으로는 좋아라 하면서도 내가 아들을 안 거둔다고 그러제.

임채지(남, 80세) / 고달면 백곡리

---

## 고달다리

마을 앞에 섬진강 다리 있잖애. 옛날에는 없었는데. 어디 보자, 첫 다리가 68년인가 그때 논 건디 시방은 새로 또 논 거여.

근디 저녁에 읍내서 술을 묵 놓고하다보면 통금이 있어서 —.

그때 계엄이어서, 계엄 통금 때문에 밤에 읍내에서 묵동으로 못 들어오고 걸어서 고등학교 친구 권정택이 하고 저 승법 있는 디로해서 호곡있잖아. 밤에 그리 해서 인자 와갖고 저 다리를 건넜잖아.

임치택(남, 67세) / 고달면 목동리

---

## 쥐명당 기우제

마을에 인자 가물어서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막 쥐명당을 파. 남의 산소를 훼손했다고 그래가지고 산소 주인하고 엄청 싸우기도 하고.

쥐명당 산소를 파면 비가 와. 참 희한하네이, 거기를 파면은 3일 후에 비가 온게.

근디 거길 파면 죽어버려 집안 사람이, 집안 망하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인제 그것이 딱 우연히 맞아떨어졌는지 생각하기를 그런 뭐가 있었다 그 말이지.

임치택(남. 67세) / 고달면 목동리

---

## 소나무와 지네

여그 근촌리에 소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를 옛날에 거시기들이 벨라고 강계 지네가 그나저나 요만한 놈이— 지네가 막 스프르 나와서 요로코 소나무를 감더래.

아 그서 이 나무 베면 못 쓰졌다. 저 거시기가 나오고.

공계, 이제 그 나무를 베면 안 되니께 못 뻗어.

전순례(여. 84세) / 삼기면 근촌리

---

## 코재 귀신

여기서 옛날에 머리 감고 원불교 갈라면, 인자 나물 깐디 거 코재 못 가서 고구마 승군 디! 장선리 건너편 여쪽에 그 시방 집 지어져 갖고 있잖아. 집 지어놔잖아. 방죽 말고 여쪽 째간 꼴짝. 여쪽에 째간. 우리 봐서 솔나무 있는 데로 가갖고 들어가고 또 여쪽으로. 여쪽에 꼴짝으로 가도 그 발이 끌터리가 나와. 인자 코재 쪽으로!

근디 저기를 가면 거가 빛이 많아. 거 위로 쪽 올라가면 태망이 긴 산밭도 있고. 거가 옛날 공동묘지여. 근게 거가 한낮에도 싫은 기가 있어. 우리들도 저기를 가면 그려. 사람이 없고 글면.

절름이 유신 며느리. 옛날에 그……. 있어. 끝에…….

근데 그사람이 뭘 했냐 하면, 남자가 뭘 했냐 하면 쓰레기차 몰았어. 옛날에. 근디, 그 사람 각시도 거기 위에 발이 있는데, 한낮에도 비가 오면 거 감 무서워서 못 있대. 거 위애가 막 엄마! 엄마! 하고 부르고 사람 목소리가 막 나고 막 부르고 막 우그장우그장우그장우그

---

장 그런 소리가 난대. 아무도 없는데!

홍진이 지그 어미도 들었대. 그 소리를. 한낮에 아~무도 없는데.

막 불르고, 땅금 들고, 비 오고, 우죄죄죄하고 글면 거기서 막 부르고 어이어이! 막 그런 소리가 나. 그 골짜기가 무서운 디요. 거짓말 아니여. 그런 디가 많아요. 곡성애가.

매형이랑 누님이랑 삼인동 물 뜬 디, 약수터를 갔는데, 밤에 갔어. 빛허러 그때 갔던가 몰라. 갔는데, 그 물 뜬 디서 요리코 쪽 오자면 인자 그 군인들 있는 디, 요리 커브 틀기 전에 내려온 디가 있어.

아 근디, 뭘 여자가 막 요리고 소쿠리에다가 빛을 담아갖고 요리고 이고 가. 이고 내려가. 분명히 내려가. 나만 봤어. 아이 그래서 뭘 여자가 이 시간에—오래 뻘어 시간이.

그때 빛허러 갔었는데 하여튼 한 10시 가까이 뻘을까? 근디 누님이랑 매형이랑은 못 봤는가봐. 근디 나는 요리고 온디 본게 요리코 분명히 여자여. 아 그러더만 가다본 게 요리고 없어져버려 그 여자가.

물 뜨러 온 사람일 거라고?

아이고~ 뭘 여자가 소쿠리를 이고 밤에 빛 허러 물을 뜨러 와? 그 시간에! 아이고, 그래갖고 내가 아주 머리끝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

---

하늘로 올라가.

헛것을 본 게 아녀. 헛것 좋아하고 있네. 헛것은 무슨 놈의 헛것이여! 여쭙 또랑으로 내려가는 길 있제! 학정리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디 있어 지금 다리가 놔져서 글지. 거기께 온 게 없어져브러. 다리 안 놔지고 또랑으로 요르고 건너가는 길 있어. 무서 거가. 근디 뭇 여자다냐 요려고 본 게 없어져브러. 헛것을 봤든지 뭇를 봤든지 글고 내려간단께.

헛것이 맥없이 보인다냐?

정성호(남 65세)/곡성읍 읍내리

---

## 홍진엄마 꿈 이야기

우리 큰아들헌티 딸이 셋인디, 우리 며느리가 인자 아들만 낳라고—우리 큰며느리 친정도 아들이 없고 작은며느리도 친정이 아들이 없고 그래. 근디, 인자 하튼 아들만 나면 떡이라고 판다고.

그래갖고 내가 처음에 점쟁이한테 물어봤어. 저기, 우리 며느리가 꼭 아들을 저렇게 갖고 싶은디, 언제나 나겠냐? 근께 올해 9월 안에 까지 들어서면 아들을 난대. 그래서 바로 서울에다 전화를 했어. 아이, 아름아— 저기 9월이 넘어가면 딸이고 9월 안에 가지면 아들이 단다. 근께 가져라. 허허 가졌어 잉. 근디 진짜 애가 남자 같은디 딸이여! 안 맞아. 딸이여.

그래갖고 인자 딸을 낳았는데, 내가 저 묘예를 가서, 내가 인자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홍진이 즈그 아버지 묘에 맨날 가서 술 따라 놓고 절하면서 그랬어. 아이고, 딸손주가 지금 현재 다섯인디 아들 손주가 하나도 없은께 아들손주 하나 아주 똑똑하고, 야물고, 훌렁하

---

게, 착하게 생긴 놈 하나 데려다주라고.

맨날 그서 술 따라 줘서 시어매한테 가서도 하고, 홍진이 즈그 아버지한테 가서도 하고. 맨날 가서 이런 소리 하고 술 따라 주고 그랬더니, 아 인자 어느 날 딱 꿈을 꾸네 우리 홍진이 즈그 아버지가 양복을 착 입고 저가 딱 애들을 보듬고 섰어! 꿈에! 인자 그때는 꿈이 었제.

애들을 딱 보듬고 섰는데, 아들이여! 아들이대. 그래서 작은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 인자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 아들이, 잊저녁에 이만저만 엄마가 꿈을 꿨는데, 느그 아빠가 양복을 착 입고 애기를 탁 안고 와서 그 전화 있는 디가 섰어야. 근게 애기 가질라면 가져봐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애기를 가졌는데, 저렇게 아들을 데려다줬당게. 그래서 내가 맨날 가면 고맙다 그레 묘에다가.

근디 그처럼 한 것이 참 나는 맞추더라고. 옛날에 홍진이 즈그 아버지가 뇌를 다쳐서 안 죽었는가? 그랬는데, 타악 뵈기 싫은 게 묘에도 안 가다가 한 이 년 만엔가 갔어.

묘에를 가가지고 딱 거시기를 하고 둘러본게 딱 그 불개미! 딱 여머리 이렇게 안 누웠소? 파묻혀 누웠는데, 딱 머리에가 불개미집이 딱 요만하나 해갖고 딱 드글드글드글드글하네. 그래서 내가 딱 그,

---

요렇게 누워 있으면 머리 위에 서서 내가 그랬어. 홍진이 아빠! 아, 죽을 때도 머리를 다쳐갖고 그렇게 아프게 죽었는데, 왜 죽어서까지 이렇게 불개미를 청하고 사요? 얼마나 가렵고 아프요? 제발 불개미를 썩 뒤 강에다 띄워블고 좀 개운하게 살아봐. 왜 이렇게 불개미를 청하고 살아, 내가 그랬어. 글고 인자 몇 번 그런 말을 했어. 제발 불개미 좀 어이 판 데로 가게 해주라고. 절을 하면서도 그러고 술도 갖다 따라놓고 그랬어. 그레갖고 다음에 한번 가봤더니 불개미가 한 개도 없어. 지금도 없어.

근데 참 그것이 묘해. 그것이 근게, 내 동상 미경이가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버지가 꿈에가 보인데, 꿈에가 보인다고 언니 아버지가 꿈에 저렇게 보인디, 어찌까? 아주 미치졌어. 잠도 못 자고 그레.

그래서 내가, 그면 아버지 좋아하는 것 좀 사고 막걸리 두 병 받고 담배랑 갖고 아버지 묘에 가자 잉? 그러고 상덕까지 갔어. 견명 가에 묘에를 가갖고 인자 술을 따라 놓고, 딱 인자 이런 짓을 했어. 나는 인자 맨날 묘에 가면 이런 말을 혀. 추석이고 언제고 가면. 우리 미경이가 언니 말 좀 해! 그래서 또 했지. 허허허. 이제 그게 길이 들어브렸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꿈을 꿨어. 돌아가실 때도 빛자리를



---

딱 나한테 저기를 해준당께.

인자 아버지가 아팠으니께 장사하고 저녁에 갔어. 택시 타고 가서 본 게, 당숙들이 “아직 안 돌아가시겠다. 가서 장사나 해라.” 그래. 그래서 인자 저녁에 한 12시에 택시를 타고 왔어.

와갔고 잔디 꿈에 선몽을 해. 우리 아버지 뺏자리를 내가 인자 꿈을 꾸 거야. 아버지가 아픈 길 보고 와서 여기서 잠을 잔께 내 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탁 꿈을 꾸디, 내가 인자—

옛날에는 박하산에 뽕나무가 있잖아. 뽕나무가 짝 있는데 막 이런 대숙을 나도 하나 들고 우리 엄마도 하나 들고 딱 그 뽕잎삭을 따러 갔어. 인자 꿈에 갔는데, 그 뽕나무 쪽 승귀진 밭이 이렇게 기다랗게 있는데 하늘에서 용이 파아아악 내려와. 용이! 글터니 거가 파아아악 굴이 파져 요렇게. 진짜여. 아직 잊어블도 안 해. 이렇게 용이 내려온게 거가 굴이 파지대. 글고 용이 거리 쏘옥 들어가.

근디 새벽에 전화가 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음 내 꿈이 맞기는 맞구나 글고 인자 저기를 갔어. 인자 전화를 받고 가갔고 이러고저러고 하고 있었는데, 당숙들이 뺏자리를 저기한다고 가서. 그래서 갔다오시길래 당숙, 아버지 뺏자리가 어디요? 어따 잡았소? 근께 어디어디다 그래. 근디 딱 내 꿈에 그 용이 들어간 디

---

저기여. 우리아버지가 용띠거든. 근데 따아악 그 자리여 뺏자리가. 저기를 가갔고 본께 아주 틀림없이 그 자리여.

글고 인자 초상을 치고 와갔고 또 인자 한두어 달 있다 우리 아버지 꿈을 또 꿬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타아악 가마를 타고 도림사 그으 안에 길이 있제? 있어? 난 몰라 도림사를 쪽 들어가면 저어 안에 어디까지 길이 있나.

근께 인자 우리 아버지가 타아아악 요렇게 가마를 타고 가요. 사람들이 꺾매고 꿈에 막 간디 따아악 요렇게, 산속 거그에 기와집이 요렇게 좋게, 쉽게 말해서 새막같이 요렇게 이층으로 따악 지어졌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가마를 타고 거기로 쏘옥 들어가네. 글고는 지금까지 꿈 한 번도 안 꿬어. 근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천당 간지 알아. 우리 아버지 좋은 일을 엄청 했어, 아주 말도 못하게.

술을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은 일을 아주 엄청 했어. 우리 아버지가 꺾매이 치고. 상제거든. 상제가 아주 잉, 아주 견명을 우리 아버지가 올리고 살아브렸어. 글고 요 노인당도 맹글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정해남인데, 정해남이라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브러.

---

---

우리 아버지가 이장을 36년을 했어. 늙을 때까지 했어. 근게 눈을, 그 좋은 눈 다 팔아브렸당게. 이장을 하면서 사람들 술을 사다줘블고. 뭐 담배도 좋은 거 있으면 싹 줘브러. 옷도 좋은 놈 수건도 있으면 다 줘브러.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맨날 그 송장 거 얹하러 광주고 서울이고 어디고 막 다니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근게 우리 당숙모들이 우리 시숙이 좋은게 우리 아들딸들이 잘된다고 맨날 지금도 가면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천당 갔어. 도림사 그 산에가 딱 기와집 있어 우리 아버지 거로 들어갔어. 그후에는 한 번도 꿈에 보이도 안 해 지금까지.

그 뫼자리도, 뫼자리도! 아이구메, 내가 진짜 근께로! 그래갖고 우리 미경이가 인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묘를 파갖고 우리 선산에 다 이장을 했네. 그래갖고 인자 막 망주도 싹우고 사리도 뺑글고 막 거창하게 했어 인자.

거그를 파브린 거여. 그래갖고는 잉 집안이 망해브렸어. 거그를 안 파야 되는데.

정해남(여, 81세) / 곡성읍 읍내리

---

## 지방마을

우리 부락 이름을 지방! 또 머시라고 그랬었어. 옛날에는 지방이고, 중간에 아들이 이장질할 때 서로…… 서이 아니고, 머시였는가, 그려 설산동네라고 또 지었어.

옛날에는 지방도라고 이방들 있을 때라고. 이름들이 지방, 목동, 또 두 가지 더 있어. 남악골, 설두리. 근디, 이제 또 부엉이가 와서 죄 짓고는 부엉산이라고 했제. 부엉 가오가 있다고 부엉산. 여기가 또 설산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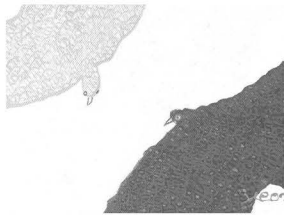
귀신 얘기도 있제. 전에는 저 저 근복이가 집 진 디. 그가 죽내 산 디. 거그 소나무가 겁나 짹 찻어. 거 놉이 차고 인자 사월 첫째 날. 이제 저 무진내서 오산서 막 얘기들 소풍도 오고, 놀러도 오고, 여자도 놀러 오고.

한번은 놀러 왔는데, 애가 막 없어져브렸어. 없어져서 찾는데, 저서 소나무 있는 디서 확 없어져 있는 걸 찾아브렸스. 귀신한테 흘러

---

갖고. 죽진 않고 흘러갖고.  
그래서 무섭다고 했는디…….

정항림(여. 92세) / 옥과면 설옥리



---

## 물도둑

여그 우리 동네 위, 저그 절 새로 진 디는 절골이라고 부르제. 위에  
거그는 장터샘이라고 헌디 집하고 옆에 있어. 바로 장터샘이 있어  
물 펴오고 있어.

물은 또 저그 설산에서 떠갖고 오기도 하고.

근디 거기 물도 또 도둑질해쌓고 글더라. 옛날에도 물이 없어서  
도둑질했는디…….

정항임(여. 93세) / 옥과면 설옥리

---

## 설산 귀신과 호랑이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이 설산골짜기 여그서 살았는데, 그때는 남의 집에서 살면 설날 그믐날에는 떡까정 쳐가지고 온다네.

그때는 떡 쳐주면 옷 한 벌 솜 넣어서 만들어준대. 떡 한 짝 치고 떡 준 거 다 먹고 저고리 사고, 그레갓고 인자 짙어지고 술 먹고 그러고 온 게, 아구 인자 거기 앞에 다리 놓디 허~ 있어. 근디 고리 갔다가 귀신한테 밤새 흘래갓고 무릎이 까져 갓고 지그 집에 왔더란다.

옛날에 거그는 귀신들이 썩어. 그러더니 시방 지금은 잡귀들이 어데로 다 가블고 없어. 그 골짜기에 호랭이도 많아갓고 가서 버티질 못했다고 한디, 시방은 집 짓고 살터만.

어릴 적에 내가 고사리 캐러 한번 가봤다. 방에가 있는데, 호랭이가 왔어. 어흥 어흥 하면서. 그냥 놀래갓고 왔는데 내 혼을 빼놔브렀단게.

정향임(여, 93세) / 옥과면 설옥리

---

## 청우골목 귀신 이야기

전에는 저거 집 진 디, 중산에가 큰 나무가 막 찻어. 저 담양서 무진에서 오산서 막 애기들이 소풍도 오고 놀러오고, 여자들이 놀러도 오고. 한번은 놀러 왔는데, 애기 하나가 없어졌어. 찾는데 그 민간나 무 있는 디 무서워~ 거기 밑에서 귀신한테 흘려갓단다.

죽던 양고 흘려갓어. 거기가 무섭다고 해갓고 했는데, 시방은 인자 짝 비어브렀어. 전에는 잡귀들이 썩었어야. 귀신들이 많았어.

귀신이 있어서 흙 쪽에 뛰다가 다치면 애기들이 아파. 아프면 또 제비를 해 또 망치 갓고 제비를 하면 또 낫어. 전에는 그랬어. 전에는 그랬는데, 시방은 잡귀들을 다 쫓아블고. 시방에는 박종길이라고 농고를 멩겼는데, 지그 엄매가 와서 불러 인자. 글면 잡귀들이 어~ 어~ 하고 대답하고 그랬대.

청우골목 앞에 거기가 무섭대. 잡귀들이 있고.

해도 안 졌어. 다섯 시나 되었는데, 지그 아들이 술 먹고 거기를 온

---

게로 아덜이 저만치나 떨어져서 따라온댄다. 돌아보면 따라오고, 그러니까 무섭더란다. 인자 우리 선산 밑에 다 와갖고 토막길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막 불러서 돌아본 게 아덜이 없어져블더란다.

한번은 또 진희아빠가 막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아버지가 업고 목동정혜 집으로 가갖고 야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싼디 어쩔까 하니까, 병원으로 옥과 병원으로 가라고 했어. 그땐 차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업고 갔어. 근디 목동서 종희아버지랑 요리 올라는디 캄캄하고 무서워서 못 오겼더래. 저그만치 무시말 있는 디 저그 바우가 있는 데만 치 온께 독이 앞에 떨어지는디, 아버지가 무서워서 종희아버지 갔어? 하는디 그때 안 가고 섰더라만. 예~ 나 여깃소 해. 나 인자 거기 왔은게 가시오~ 그래갖고 집을 왔대.

또 한 번은 서산서 와갖고 방을 얻어갖고 여그서 살아. 근디 귀신이 와갖고 밤에 선산에 또 꼬집고 올라간대. 선산으로 자꾸 올라가서 본께 귀신이라.

시방 둘째성이 오든 거가 무서운게로 저그 돌아서 장장 밑으로 고리 해서 가고 여기로 못 왔어. 잡귀가 하도 썩은게. 이제 잡귀도 다 없어져 브렸어.

정향임(여, 93세) / 옥과면 설옥리

---

## 봉정과 봉황

우리 마을이 봉정린데, 여기가 지금 봉황이 딱 날개 펴고 있는 그런 모양이여. 인자 지리상 여기가 새머리고 요것이 지금 알이라고 하는 것인디, 이거 요 바위가 이게 인자 봉황이라고.

또 죽곡 요 밑에로 하죽 또 오곡 전부 다, 이 근방 이름이 전부 다 그렇게 됐는데. 봉황은 대 열매하고 오동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 이 거지. 금께 여기 전부 다, 인자 이 근방 지역을 전부 다 봉황이 품고 있었다. 금까 이 봉정에 봉황이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마을이름이 봉정이다 그 말이여. 그래가꼬, 지금도 대밭이 많지만, 대 꽃 핀 거 봤는가는 몰라도 대 꽃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퍼가지고 열매가 열어. 그땐 그것하고 오동나무 열매하고 따 묵고. 그래서 오곡, 죽곡, 상주, 하죽…… 맨 지명이 그렇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봉정이라고.

조공례(남, 68세) / 죽곡면 봉정리



---

## 길상암

길상암에서 입면으로 넘어가는 길 알지? 일단 길상암 그 자리가 도림사에 비해서 훨씬 창조롭고 기가 흐르는 자리기 때문에 과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수행할라고 와 있었어. 옛터에. 근데 그 입면 약천에서 배넘어재를 넘어가가지고 거기 형골을 지나 큰골을 지나서 길상암을 있는데 그 배넘어재 넘어 큰골 가기 전에 형골 여기가 약초가 참 많이 나오지.

형골 여기가 기가 굉장히 센 곳인데, 예전에 반란군들이 여기서 많이 총살도 당하고 해서 반란군들의 묘지가 많아. 아주 작은 묘가. 형골이란 데가 그래가지고 낮에도 한 번씩 지나가면 괜히 으스스하더라. 근데 여기가 약초도 많고 근대더라.

그 형골을 지나서 큰골을 가서 길상암 쪽으로 가면 길상암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산신각 같은 경우야. 암자지만은. 근데 지금도 여기는 그 구들장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길상암을 복원을 해도 절 차원

---

에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지.

길상암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육이오 때 불도 나고, 또 반란군들이 그 입면 쪽에서 넘어오면서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없애버린 거야. 지금은 터만 이렇게 남아 있지. 그리고 여기 길상암 같은 데서 보면 고시공부하거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과거 한 20년 전까지 있었어. 스님들이 여기서 3개월씩 수련을 했었지. 2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곡성 그 도림사에서 길상암 가는 길보다도 입면 쪽에서 길상암 가는 그쪽 배넘어재랑…… 배넘어재라고 지금도 그 이름이 다 통용되는갑더라고. 배넘어재에서 형골 그쪽이 굉장히 기가 세다더만. 동약산 자체도 기가 센데 이 부분이 더 기가 세서 과거에는 무당들이 전남에서는 굉장히 기가 센 곳이라 신내림을 위해서 여기를 온다 이거야. 신내림하러 여기로 오는데, 예전에 형골 거기도 무당들이 촛불 켜놓고 그랬어. 그마만큼 이 동약산이 기가 센 데래. 글기 땀에, 곡성에서는 기가 세기 때문에 그 육이오 때 반란군이 여기 있었다 근대.

어쨌든 그 배넘어재 넘어 큰골로 가기 전에 형골이라는 데가, 여기가 일종의 반란군 아지트여가지고 뼈가 많았지. 육십년대, 칠십년대만 해도 말야. 약이 귀했을 때는 사람들이 인자 뼈를, 유골들이

---

많이 있었나봐. 그때는 사람들이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뼈를 막 긁어모아서 불에 태워가지고 골무 때 쓰거나 뭐 약재로도 썼대. 산약재로. 이 내용은 입면 약천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거래. 입면 약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여.

근데 그 길상암이 쪼그만 산신각같이 돼 있는 암자인데 지금도 부도가 살려져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육이오 때 불만 안 났으면 여기가 오히려 도림사보다 더 나을 절터라고. 암자로 쓰여도 참 괜찮을 텐데. 그 이야기밖에 내가 구한 게 없어.

근게 크게 보면 그 길상암은 곡성군 차원에서 복원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 길상암이 그 도림사 땅인가, 군 땅인가 내가 모르겠어.

김용환(남, 59세) / 곡성읍 신월리

---

## 도깨비 이야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태평리 마을이라고 있어.

태평리 마을 저쪽에서 요 돌아오면, 압록 쪽에서 돌아오면 요 올라오면 처음에 저 모퉁이에서 불이 반짝 하나 생겨. 뒤에서 즐즐즐 따라와. 가운데 골목 우리 마을 여까장 들어와. 거 와가지고 딱 없어져.

도깨비불이 맞아. 날이 새서 가서 보면, 쭈시비, 대빛자루 그런 것이 자빠져갖고 있어 그 자리에. 말이 그거이 피가 묻으면 도깨비가 된다 그러.

조광희(남, 80세) / 죽곡면

---

## 서당동산 전설

여그 마을에 가쁜 진사분이 문혀 있는 묘가 있어요. 여기 우리 마을의 한가운데에 묘가 있는데 명당자리여.

누가 봐도. 마을 뒤에 병풍처럼 산이 둘러 있는데 거기서 그 등으로 마을 가운데로 짝 뺏어 내려와 가지고 딱 멈췄거든. 그 거시기가. 그래갓고 용의 혈이라. 용이 머리를 딱 치켜들고 있는 형이여. 멀리서 보면. 그래가지고 인자 한참 뒤에 후손들이 높은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 안 와 후손들이.

그래서 한문으로 된 석물을 우리말로 비석을 다시 세우고 했는데도 잘 안 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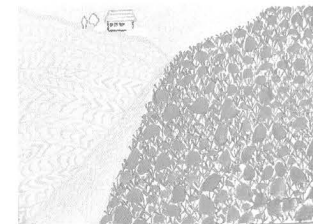
용의 머리에 석물같이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니까 치켜들지 못해서 후손이 잘된 사람이 안 나온다는겨.

그래서 그 집안사람들이 용의 머리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석물을 전부 뽑아가지고 묘 아래 동산 있는 데다가 전부 뇌두었다는 이

---

야기가 전해 오는데, 그 후에 후손들이 잘 되었는지 어쩐지는 나도 몰라!

조광희(남, 80세) / 죽곡면



---

## 봉황과 마을

여가 산을 났께 산이 신유봉이 있고 여 봉두산이 있어. 이 봉두산이 유명한 산이라 지리산 정기 받아갖고 나오다가 섬진강에 찰려서 그렇지 그 정기가 틀림없거든. 그래서 지리산 정기 받은 봉두산이 새 봉뿔자 머리 두뿔자 봉두산이라. 그래서 거기서 인제 신유봉이란 건 신선, 말하자면 옛날에 신선이 내려와서 바둑 두고 수양을 하고 올라가고 그랬다.

신이 있다. 신이 머물러서 논 자리다. 그래서 신유봉이라.

봉두산은 이 산 자체가 지리산 이 봉과 같은 봉 머리와 같이 생겼다 해서 봉두산이야. 그래서 이 동계라는 이름이 오동 동뿔자 시내 계궤자를 써. 왜냐면 봉이란 건 오동을 좋아한다, 봉두산 정기받자 그래서 동계리라 옛날에 쓴 거라.

요 밑에 마을은 머물 유궤자 새 봉뿔자 유봉, 새가 머물렀다, 봉이 머물렀다 그 말이어. 그런데 요 밑에 가면 비봉이러는 데가 있어. 봉

---

이 날아간다 해서 날 비궤자 새 봉뿔자 비봉. 여가 말하자면 유봉, 이 봉두산 정기가 동계로 쏟아졌다 그래서 봉이란 건 오동을 좋아하니 동계라 하자. 그래서 동계야.

조두현(남, 75세) / 죽곡면 동계리

---

## 약천

우리부락 약천이 약면. 약물이 나온다고

동네가 물이 맑아 좋아. 물이 맑아.

아, 산골짜기서 막 받아. 그니까 거기다 물이 풀짜기 이름이 무시  
치인데..

근데 막 산에서 거 막 물이 푼푼푼푼 나와. 그래서 나온 물을 약물  
이다 해 약물. 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약천이라고 했지. 그것이 우  
리는 약내라고 했는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노인들은 약내라고 하는  
디, 약천이라 했어.

조세호(남, 76세) / 입면 약천리

---

## 오곡 상여소리

한 생 머시기라고 그 양반이 우리 오지리에서는 제일 상머슴이야.  
아주 머슴 중에서 제일 아주 일도 잘하고 오대였었는데 그 양반이  
눈먼서리 태인서리 다니면서 상여소리를 그렇게 잘했었어. 그래갖  
고 텔레비에도 나하고 그 양반하고 가서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을 데포 와서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제. 텔레비에  
도 했잖애. 근디 술을 너무 많이 묵은게. 그 아들하고 짝가게 한다.

오지리 상여소리 유래를 알 만한 사람들이 지금 80이 넘는 사람  
들이 한 양 뭐더라…… 있구만. 안병언이도 유근재도 거기도 우리  
갑이여.

그 사람들 위애가 있는 사람들 한 서넛이나 지금 있어. 그 위애는  
없지. 그리고 이 오지리 상여소리 유래를 알고 넘어간 사람들이 별  
로 없지, 별로.

오지리가 유래가 깊고 그러기 때문이 얘기가 다양하디. 어 이 애



---

기가 많은디도 귀담아서 들을 사람들이 없지. 그냥 들으면 마는 겨.  
상여소리 해볼게.

아른 전이 놀다고 하더니 여기 앞산이 풍만히이이오오오돏나  
이아아 그러면 비소를 해야 돼 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이이이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 이날꾸나아아아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날꾸나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나를 버리고 북망은 삼천리 오디 갈쏘나아아아아

이렇게 하는 것이여 이겨. 아 한 시간짜리 하지.

그 인자 말하자면 상주들이 있고 길에도 하거든. 소리 일을 말하  
자쁜 상주 분위기를 맞춰서 하고, 소리는 저 전통의 우리 오지리  
쪽 그대로 요로케 내려와서 지금 내가 아는디, 내 주위의 사람은 없  
는 걸로 알지. 지금 하나라도 땀들라고 해도 누가 따라하는 사람도  
없고 괜히 읊어져버리는 거지. 그런 것이여—.

조형래님. 77세 / 오곡면 오지리

---

## 신이기 선생

저그, 저그 구레 넘어가서 버들나무가 있어 버드란 동네가 있는  
디, 버드마에에 윤씨라고, 윤씨라고 한 사람이 사는디 말이여.

신이기 선생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어찌 잘나블고 속도 잘나블고  
헌지 제자리에서 저 걸어간 개를 보고, 너 이놈의 새끼 어딜 가나?  
그러믄 개가 가도 못허고 똥을 발각 싸고 가도 못해. 사람이 기가 어  
찌 세다보믄 기가 펼팔해갖고는 뭐를 못해.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신이기, 신이기 선생이 요 곡성을 지내갔었어. 그때 누가 있었냐면  
저저 안귀선 씨라고 저저 안지상의 아버지 안귀선 씨가 오곡면장도  
하고 했었지만, 안귀선 씨라고 하믄 곡성서 알아주는 인물이었었어.

근디 안귀선 씨가 신이기 선생이 온다고 해서 신이기 선생을 요쪽  
으로 마중을 갔는디, 버드마에 윤가가 보니까 안귀선 씨가 마중을  
가서 신이기 선생을 똑 쳐다보고는 신이기 선생한테 땅에서 엽드려  
불더래. 그 본인이 한 소리여. 나도 들었어. 근계 안귀선 씨도 장대

---

한디, 아 그모습이 참내 멋있었대. 근디 그 양반이 신이기를 본대로 신이기 앞에서 고개를 탁 왜 그랬냐? 신이기 선생이 그렇게 인물이 잘나고, 기가 펄펄하니 웬만한 사람은 무릎 꿇어야지. 그러 안 하고는 못산다고 그랬지.

사람 독이 이 산짐생 중에서 제일 무신 독이여. 왜 그러냐— 뱀이란 것이 구렁이가 큰놈이 구렁을 뚫고 담무락을 들어온게 잡아댕기든 끊어져브리면 끊어져브렸지 나오들 안 해. 왜 그러냐? 이 뱀이 거꾸로 둘러 씩위뭉개로 잘라져브리. 그러나 사람은 고놈을 꼬랭이를 잡아댕기고 그러서 사람의 독이 이 짐생 중에서는 제일 독이여.

아오~ 그전에는 구렁이가 막 무서웠는디, 막 돌아댕김서 지금은 볼래도 볼 수가 없어.

조형래(남. 77세) / 오곡면 오지리

---

## 고달면 이야기

고달이 옛날에는 고달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남원에 딸렸었어, 옛날에는. 그러다 곡성으로 팔려버렸지.

그게 언제였는가는 기억을 못하지. 고달면도 전체가 그 남원에 딸린 것이 아니고 남원과 곡성으로 갈라졌겠지. 남원으로 팔렸다가 곡성으로 팔렸다가 구례로 팔렸다가, 그랬다가 인자 곡성으로 편입된 거지.

구례는 곡성 땅인데, 우리 고달면이 구례, 아니 구례는 저쪽으로 팔렸다가 남원 이쪽으로 왔다가 곡성 저쪽 그래.

그러니까 고달이 남원으로 팔렸다가 구례로 팔렸다가 다시 떨어져서 곡성으로 팔려진 거지.

진천신(남. 73세) / 고달면 목동리

---

## 나룻배

옛날엔 고달다리 없을 때 그니까 지금의 그 섬진강 다리 옆에 배를 딱 놔두고, 이제 사람이 오면 그 배로 건너다 주고 또 싣고 오고. 그 대신 인제 그 뺏삿을 받지. 거기에 옛날엔 다리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선착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무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나룻배 말이여, 나룻배!

사공이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공! 사공! 부르고 그러면 집에서 나와 가지고 배로 거 가서 싣고 와. 그런데 여기서서는 이제 여기서서는 가면 사공들이 찾아와서 빨리 태워다 주라하면 태워다주고.

우리 어렸을 때는 뭐이나 모래가 기가 막히게 좋았어.

진천신(남. 73세) / 고달 목동리

---

## 먹골

옛날에는 관에서 구역 짓는다, 고달을 남원 방면으로 굻다가 목동 방면으로 굻다가……. 근게 결과적으로 강으로 동네가 꽉 뻗었다 해서 먹물로 불렀제.

그 먹물동네 그 집 안치가 아주 크다 그래서 먹골이 된 거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동리라고 해서 인제 행정에서 새로 이렇게 지어 버린 거고. 그 뒤에 고달면 목동리로 인제 행정에서 이렇게 다 해 버린 거고.

근게 인제 먹골 그러면 옛날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느 동네가 먹골인지. 근디 지금 현재는 먹골 그러면 모르지.

진천신(남. 73세) / 고달면 목동리

---

## 쥐명당 이야기

전에 묘 앞에 명당이 있었는데, 쥐명당이라고 해. 아니, 지명당이 아니고 쥐! 쥐명당이라고.

인자 가물어서 비가 안 오고 글면 사람들이 막 그 쥐명당을 파. 쥐명당을 파면 비가 와.

남원서 곡성서 다 왔어. 막 팔라고. 구례에서도 오고 남원에서도 오고 곡성서 오고, 비만 안 오면 농민들이 싹 다 와.

묘 앞 명당이 어째서 유명하냐면, 풍수 거시기한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이익을 채울라고 말을 만든 거제. 거기가 쓰면 부적 같아.

그럼 또 비가 안 오면 꽃게 들고 가가지고 또 거글 파는 거여.

지금은 없어 인자. 일본군이 밀었지.

아주 예전에는 폭포수가 있어갖고 옛날 거기서 물도 맞고 했어.

진천산(남. 73세)/고달면 목동리

---

## 도깨비와 씨름한 이야기

도깨비랑 씨름해 봤는가?

나보고 얘기해 보라고? 안 넘어가네, 이것이. 하하하…….

영식이 아버지가 주로 씨름을 허는데, 어느 발을 들 거냐고 묻는 대 도깨비가.

“당신 이번에 어떤 발 들 거여?”

그래 오른발을 든다 하면 도깨비가 자기 오른발을 없애버린디야. 오른발을 든다고 해놓고 왼발을 들어야 이기는 거여.

그래갖고 도깨비가 날마다 그 양반 다리를 건디, 영식이 아버지가 도깨비를 메다꽃은 거여. 그라고 말뚝에 갖다 묶어 놓고 동네사람들 전부 다 달려들어서 다리몽렝이를—.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냐고? 볼 낫지. 하하하……. 수놈은 앞에 간하고, 암놈은 뒤에 간하고 그래. 도깨비 면상은 우리는 못 봐 볼만 보지.

---

우리가 방에서— 내가 금방 얘기한 거 영식이라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 물레방아 저기 한 채가 있었어. 우리가 거그 가 있으면 인자, 평장 저가 우리 어려서는 싹 모래밭이여. 지금은 전부 파버려서 모래가 없어져버렸지만. 도깨비가 그 모래밭에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러면은 끼딱하면 짹 퍼져.

글면 고것들이 불을 키고 와. 곤작을 먹고 온다고. 그거를 인자 우리는 방에서 요래 궁둥짝만 짹어놓고 요로고 인자 내다보고 있지. 그러면은 이제 영식이네 마루가— 대통 마루여. 그러니까 연기 올라오면 달그닥~ 달그닥, 달그닥, 달그닥. 불판 뽕뽕 돌 때 청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리고 낮도깨비는 우리가 인자 국민학교 갔다 오는데 나한테 인자 나타난 거여. 카! 우리가 요놈을 푹푹 푹푹 주먹질하면 도깨비가 푹 퍼졌다가 또 양 옆으로 뻗다가 푹 퍼졌다가—

나도 많이 봤어 국민학교 때. 근데 형태는 못 봤어. 도깨비라는 형태는 안 보여. 빛만 봤어. 실질적으로 인자 도깨비하고 씨름을 한 사람들은 잡고 씨름을 한디야. 근디 나는 인자 씨름을 안 해 봤으니까 그건 모르디, 씨름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걸 도깨비라 한디야.

씨름할 때 도깨비가 물은대. 당신은 나를 오른다리 들랴요, 왼다

---

---

리 들랴요? 물어본디야. 그리고 인자 자기가 오른다리 들겠다고 하면은 도깨비 오른다리가 없어져본다. 궁께 오른다리 든다고 했다가 왼다리를 들어야 도깨비를 이긴대. 글면 인자 팔짱을 딱 묶어 놔. 그때는 말뚝이 있으니까 말뚝에다 묶어놓제.

아침에 인자 도깨비 잡아놨다고 해서 가보면은 시방 백이면 백 빗자루 몽뎡이여. 여자들보고 빗자루 깔고 앉지 말라는 거는 옛날에 그 소리여. 여자들이 거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서 그걸 떼면은, 옛날에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빗자루에 묻으면은 도깨비가 되는 거여.

진희중(남, 72세) / 옥과면 죽산리



---

## 두꺼비 꺾질 이야기

물 뜨는 바가치가 있거든? 그 바가치에다 두꺼비 꺾딱을 골라갖고 쌀을 퍼다 묵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랬었거든. 전에 얘기가, 얘기가 그랬어.

도꺾, 도꺾비 도꺾비. 개구리 친구 두꺼비.

전에는 두꺼비가 썩부렸는데 시방은 통 없어.

최복수(여, 89세) / 오곡면 오지리

---

## 보이면 안 되는 바위

우리 동네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동네에 점지를 해 시방. 그런데 그 바위가 비치른 여기 우리 동네가 안 좋아. 불이 나썩고. 뭐 시기, 뭐.

동네에서 사람들 눈에 바위가 보이른 병이 생겨썩고 그래서 그 바위를 안 보일라고 나무를 키워서 덮어. 그래도 그때는 나무를 베서 떼개로 나무로 했다가 못 덮었는데, 시방은 인자 나무로 불을 아니 떼개 그 바위를 찾을래도 못 찾아.

왜냐면 인자는 나무가 이렇게 썩부러서 그래서 그 바위가 안 비치른 동네에 아픈 사람도 없고, 불도 안 나고 조용해. 그렇게 나무로 덮어놔어, 시방.

최복수(여, 89세) / 오곡면 오지리

---

## 애기 짐지하는 바위

평밭골 저 우에 앞산에 바위가 있어.

저 우에 산에 집채만 한 바위가 있다니까? 영한 바위가 있어. 이렇게 노픈 밑에서 애기를 빌어, 애기 못난 사람이 그러면 낳아.

낳은 사람 어찌케 낳나? 하면, 요기 아래 정씨들 집안에서 애기를 못 나서 부부 간에 저 우에 저게 집채떼기만 한 바우에 가서 빌어.

그러면 여 밑에서 물이 나. 시냇물이 나. 물이 나쁜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이놈을 다 치우고 깨끗이 치워버려 애기를 달라고. 그러면 꾸정물이 나지 않아. 요게 치운게. 그러믄 가만히 바쳐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물이 딱 가라앉어. 말개지면 뭐지! 잎새기나 뭐 가래기나 나뭇잎사귀나 이런 게 떨어지믄 애기가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애기가 안 생겨. 그렇게 표적이 나면, 그러믄 애기가 생기고, 그러지 않으면 애기가 없고 그래.

최복수(여. 89세) / 오곡면 오지리

---

## 섬진강 모래

옛날에 여기 보이는 습지에서 섬진강 모래들을 채취해가지고 건설을 했어요. 보면은 여기 전부 다 모래채취장이었어요.

덤프차들이 여기 와가지고 모래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퍼서 나갔죠.

계단 저기 다리서부터 여까지의 모래를 전부 다. 강바닥까지 다 훑어 나갔나 봐요. 그래갖고 일본으로, 곡성 모래가 좋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때가 한 30년 전이네요. 아니, 30년이 넘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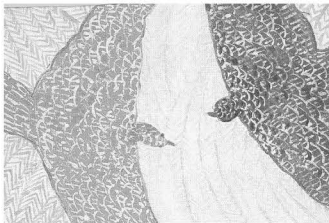
예전에는 다리 거기서 일 마치고 점심 먹으러 들어가다가도 모래 짐질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강바닥 모래까지 다 없어지니까 습지가 생겨버렸죠.

모래를 안 파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그니까 위쪽 전라북도에서 모래를 전부 다 파버려가지고 지금은 모래가 여쪽으로 안 내

---

려와버려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모래를 전부 다 파 버리니까 내려올 모래가 없는 거죠.

택시기사 / 옥과면



---

## 비봉포란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겨서 즐겁기 이룰데 없습니다.

저는 죽곡면 태평리 소재지 마을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죽곡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 소재지 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비교적 빈약한 그런 생활 상태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빈곤한 생활을 했어요. 거기가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소재지, 예 그 관청이 있는 부분은 흥청거리고 그랬지만 마을은 비교적 빈촌이랄까,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봉정이라든지 하죽보다 더 어렵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6학년 51년 때에 그때 삼일절 날, 면에서 삼일절 기념행사를 면 주관으로 개최를 하게 됐어요. 그때 4, 5, 6학년이 동원돼 가지고 태평리 마을 앞 그 면소재지 건너편에 지금 시

---

장자리, 그때가 모래터였거든요. 모래터였는데, 거기에 면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행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때는 반란군이 각 마을마다 출몰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죽곡면 지서를 인제, 말하자면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불을 냈거든요. 지금 농업 있는 거기가 그때 지서였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당시 거기 죽곡에서 이렇게 태평리에서 남양 쪽으로 가자면은 하천을 건너가가지고 하천리 거기에 조그마한 언덕 산이 있어요. 그 언덕 산에다가 땅굴을 파고 페치카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페치카라고 그러면은 인제 토굴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지하로 군사들을 통행하게 한 그런 군치가 있는데, 거기서 지서 역할을 했어요.

거기 페치카에서 지서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서 전날 저녁에 봉정리에 반란군이 출몰했다고 해서 경찰대들이 나아가서 봉정리에서 전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란군을 인제 퇴치를 했죠. 퇴치를 한 다음에 인제 경찰들이 다시 귀대를 하는데, 한 경찰이 불발수류탄을 하나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수류탄을 주워가지고 온 귀대원들이 우리하고 같이 기념식장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불발수류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폭발한다고 그런 거예요. 성능이 안 좋아서.

---

그때 막 시계소리를 내면서 폭발하려고 하는 것을 경찰이 소리를 치면서 던졌거든요? 던졌는데 하필이면 학생들이 서 있는 대형 후미에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31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때는 나도 키가 컸기 때문에 대열의 후미에 있다가 다쳤지요. 그때는 어렵게 사니까 누비옷을 입었는데, 솜 누비옷을 입었기 때문에 중요부위는 상처를 입지 않고 얼굴 손 발 이런 부분, 말하자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분만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석곡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인제 그때는 6학년 학기가 전년 8월에서 다음 해 8월까지 9월 학기제라서, 그러니까 삼일절이 중간학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처를 입은 학생들 31명이 석곡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인자 나름대로 경상인 학생은 빨리 치료를 받고 오고, 저는 거기서 상당히 오래 치료를 받았죠. 지금 연화리에 살고 있는 이이석이라는 친구는 그때 호흡기 계통에 파편이 있어가지고 건강에 안 좋대요.

근데 인제 그 당시에 치료를 하고 왔는데, 하중리에 사는 최 모라고 하는 친구가 독자였어요. 그런데 그 독자들이들만 죽었죠.

그래서 이번에 면에 가서 이렇게 문의도 해보고 친구들을 통해서

---

요로케 알아보니까, 당시 기록이 경찰의 착오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적군이 요로케 침투를 했다는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삭제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것을 다시 복원해 달라, 이것은 6·25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은 하나의 피해상황이다, 하나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이것은 그 기록을 복원해 달라고 심지어 면에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개인의 치욕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숨겨왔었는데, 이번에 제주도 가서 보니까 과거에 치욕적인 그런 역사들을 전부 밝혀가지고 희생자들을 전부 추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하면서 이제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면에다가 문의를 하니깐, 면에서는 확실한 대답은 없지만 친구들 말을 이해하자 면은 기록이 없어져버렸다고, 소멸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은 죽곡면 면 주관 행사였고, 거기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한 사람 죽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록을 살려서 우리 죽곡면민의 어떤 상처 아픈 기록으로 되살렸으면 좋겠다— 하고, 인제 심층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문화원하고 뭘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인제 면 주관 행사에서 우리 면민이 입은 슬픈 피해상황인

---

---

데 그 기록이 없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면에다가 징증을 했어요. 그것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문화원하고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기록을 좀 살려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예요.

그리고 인제 태평리에서 일제시대 때 징용이 돼가지고 태평양전쟁에 참여했다가 해방이 된 뒤로 생사를 몰랐었는데, 맨 나중에 귀국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태평양 거기에서 전투를 하고 왔다죠. 그러니까 광복 그때 당시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시기가 늦었다— 그 말이죠. 저기 저 멀리 남태평양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어머니 밑에 동생하고 셋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부상을 입은 뒤에, 아직 채 낫기도 전에 순천으로 가가지고, 순천에서 저 순천역 앞에 중앙초등, 지금은 중앙초등학교이고 그때는 승평국민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죽곡을 떠나서 살게 됐죠. 어머니하고 동생은 태평리에 있고.

그래서 인자, 떠나서 살면서— 지금 순천에 갈대밭 있지 않습니까? 갈대밭 옆에가 장성릉이라는 마을이 저 아래쪽에 있어요. 그 마을에서 부모님이 한번 사셨었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학교까지는 상

---



---

당히 먼 거린데 걸어서 다녔죠. 그때는 버스 다니는 길도 없고, 뚝 위로 길이니까.

거기서 인자 졸업을 했어요. 치료도 하고 근데 6학년 2학기 후반기에 전학을 해가지고, 몰라 한 3개월인가 다녔을까? 그레가지고 8월달에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촌놈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죠. 그레가지고 인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순천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우리가 국가고사 시행 첫 대상자들이더군요.

중학교 입시 첫 시행 대상자로 시험을 봤는데, 제가 314점인가 310점 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314점을 받았다 하면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점수가 되었어요. 그레가지고 인제 순천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도 순천고등학교를 다녔죠. 6회 졸업생이에요.

그때부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쪽 살고 그랬지만은, 고향에서 다 쳐볼고 또 거기서 사는 것이 어려워서 온 것이고 그래서 한때는 고향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직장생활을 한 뒤부터 이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컸었죠.

근데 그런 생각이 큰 뒤로 이렇게 보니까 죽곡면이 완전 산골짜기잖아요. 그런데 죽곡이 대 죽자 골 곡자이잖아요. 이제 오가면서 보

---

면은 마을마다 다 대밭이 있어요. 아, 마을마다 있는 대가 잘 살기 때문에 죽곡이라 그랬는갑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김명길 씨 이 양반이 회장이 된 뒤로 이분하고 인제 재작년에 같이 봉정리 통명산 거기에 향우들과 등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통명산을 쪽 구경을 하고 오는데, 거기 천덕산—천덕산에 올라가면 거기 시냇물이 있고, 요렇게 흘러 내려오는 시냇물을 막아서 거기다가 방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폐치카 시대 때, 동명리에서 나무를 베다가 자동차에 실고 가서 그 나무를 외지에다 팔아요. 그러면 압록 기차를 통해서 나무를 수출하는 그런 것이 번창했는데, 그때 그 나무를 베는 자리에다가 편백나무를 심었답니다.

그 편백나무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인제 한 3, 40년 만에 간 거지요. 편백나무가 3, 40년 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증심사, 증심사에 가면 그 입구 옆 너머에 편백나무 골이 있거든요. 약사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입구에서 왼쪽으로 등 넘어가면은 제1수은지가 있어요. 그 제1수은지 위에는 편백나무 숲이에요. 그 편백나무 숲에 그 회재단 호흡기계통 허만택 환자가 거기서 치유를 한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광주 동구 숲생태해설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

---

서 활동을 했어요. 그레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피톤치드, 그 편백나무 숲의 기능,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편백나무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그리고 그때 조선대학교에 장미원이 있어요. 장미 시즌이 되면 장미원에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해설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근무할 때 곡성 군수님하고 군청 사람들이 곡성에 장미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거기 장미원을 보시러 왔어요. 장미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하고 매치가 되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 장미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랬죠. 그 뒤로 곡성 장미원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어찌 그분들과 매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내가 되었구나, 하나의 인연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까 그 통명산 거기 편백나무 숲은 사람이 전혀 통행을 안 해서 천연 그대로의 편백나무 숲이었어요.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우거진 편백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그 편백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 일행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했지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장성에 편백나무 숲, 그리고 장흥의 편백나무 숲 그런 데를 다 설명하고 그 뒤에 이제 펜션에 와서 유흥행사를 하고 돌아왔지요.

---

---

그때 인제 김범진 회장이 우리 죽곡도 오래된 고을이고 그러니까 될 전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이 없는가 모르겠다, 죽곡 전설을 한번 탐색해 보는 것이 어떠냐? 둘이 이 얘기하고, 그래서 인제 죽곡에 어떤 전설이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보자 서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인제 저는 아까 죽곡이 대나무밭, 대실곡, 대실골이라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이 죽곡이 이렇게 대가 잘 자라는 곳인데 저기 담양에는 죽녹원이 있지 않습니까? 죽녹원은 대가 그렇게 많이 잘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죽녹원이 있고, 대장미관이 있고, 대박물관도 있고 대로 인해서 산업적 혜택을 보고 있는데 죽곡은 대가 잘 자라는 곳인데도 대로 인해서 산업의 혜택을 못 보고 지낸다는 것에 생각에 미쳤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울산에도 대나무 숲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박대통령이 대나무 숲에서 쉬고 했다고. 거기는 대나무밭이 산책길로 이어져 있다, 그레가지고 울산이 대나무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런데 죽곡이 대나무골이니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 죽곡은 아주 대나무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버렸구나, 그런 거 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죽곡은 대가 잘 자라는 곳이고, 옛날부터 대나무가 무성한 곳이었

---

---

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점차 인구가 많아지면서 농토가 좁으니까 대나무밭을 전부 농토로 개발했지요.

하죽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앞에 대가 이렇게 무성해서 옛날에 하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부 개간해 버리고 지금은 대나무가 거의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봉정에는 죽산리가 있는데, 봉정 죽산리라 그러면은 대나무로 하나의 성을 쌓은 것처럼 대가 이렇게 울창했는데 지금 죽산에는 대나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자 당동, 당동에는 또 죽천리가 있어요. 죽천리는 대샘골이에요. 대나무 죽竹 샘 천泉. 대나무가 무성히 되어서 하나의 천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전부 없잖아요. 전부 농토만 있지.

그런데 딱 이렇게 보니까, 아! 봉정이 또 그 봉황새 봉鳳자 봉정. 왜 봉정만 봉황새냐?

그래서 인제 죽곡의 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죽곡의 산 이름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깐 그 산에서 아 봉황새하고 관계된 산이 비래봉, 그다음에 봉두산, 그리고 인제 태안사…… 그렇게 산이 있고, 동계리 마을을 이렇게 보니까 오동나무 동桐자 계곡 계溪자. 그리고 태안사가 있는 산이 또 동리산이에요. 그 동자가 오동나무

---

동자예요.

그리고 아까 봉정에 죽선리가 있었지만, 거기 일부는 오동나무 밭 오동나무밭골, 거기 덕양리에가 오동나무가 무성했어요.

그리고 인제 하죽에는 죽실리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죽실이라는 게 무엇이나면 대나무는 백 년이 돼야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이제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죽실이 돼요. 그래서 하죽리 앞에 있는 대나무가 이렇게 백 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 붙인 이름이 죽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정 거기는 봉황새가 머무는 봉정리라고 했는데, 그 봉정에— 봉정에 아까 통명산, 그다음에 천덕산 이것을 봉황새의 두 날개로 보고, 그 가운데 있는 산이 뭐죠? 그 봉정에 있는..

그 산을 몸통으로 하고, 또 봉정리 앞에 큰 바위가, 하얀 바위가 있다 그래요. 그 바위를 봉황새의 알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한 마리 봉황새가 거기에서 비봉포란飛鳳卵— 비봉이라는 것은 날아온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다, 품은 것이 봉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봉포란.

그러니까 날아온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자리가 봉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황새가 거기 살아요. 알 만든 곳이 거기 죽선리 대나

---

무밭이 있고, 또 덕양리 오동나무밭이 있고, 그다음에 하죽리에 대 나무가 있고, 죽실 있고……. 그렇게 해서 봉정리가 봉황새가 살기 알맞은 지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제 비봉포란 형상으로 봉정이 라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한 마리는 이렇게 봉정리에 있고, 또 한 마리는 어디로 갔을까나? 봉황새도 짝이 있을 거인데……. 어디로 갔느냐면 동계 리, 동계리로 갔어요.

그게 오동나무 동촌자에 계곡 계류자잖아요. 그리고 동리산 태안사 거기도 오동나무, 그러니까 그 골이 오동나무골이에요. 인자 오동나 무골인데, 거기 오동나무골에 인제 드디어 봉황새가 살기 좋은 터전 을 갖췄다, 그 말이 '봉황의 터'. 그리고 이제 거기 비봉산이 있다— 비봉이라는 것은 날아온 봉황새이거든요.

거기도 또한 비봉포란— 날아온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자리에 요. 조금도 올라가면 봉두산이 있는데, 봉두산은 그 봉의 머리라는 말이죠. 봉두산이 알을 품고 있는 봉황새의 머리에요.

이렇게 해서 한 쌍의 봉황새가 거기서 알을 품고 이렇게 사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비래봉 봉두산. 또 유봉리라는 것은 날아온 봉황 새가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산다. 머무를 유溜 봉황 봉.

---

---

그렇게 해서 한 쌍의 봉황새가 연결이 되는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아 이것은 보통 연결고리가 아니다. 그래서 봉정에 한 마리 그다음 에 동계동에 한 마리. 그래서 여기는 죽곡강 죽곡천이, 여기는 동계 천이 합쳐서 압록으로 가는 대항강— 이렇게 해서 그 한 쌍이 살고 있는 터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탐색할 때 거기 큰 바위가 나왔는데, '봉의 알' 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제 그것이 화두가 됐어요.

지금 청와대에 가면 청와대 입구에 큰 탑이 있는데, 그 탑이 봉황 새 탑이에요, 봉황새 탑!

하기택(남. 80세) / 죽곡면 태평리

---

## 죽곡

예로부터 평화와 부 그리고 부부애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전설의 봉황새인데, 이 봉황새는 오동나무에 집을 짓고, 죽실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 새가 살기에 알맞은 곳이 바로 죽곡 지역이고 한 쌍이 봉정리 지역과 동계리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봉정리를 보면 장자산을 봉황새의 몸통으로 하고, 통명산과 천덕산을 양 날개로 하고, 당산당을 봉의 머리로 하고, 마을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봉황새의 알로 하는 현상으로서 이것은 날아온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 즉 포란비봉형으로서 봉정이라고 했어요.

또 한 쌍 중 다른 한 마리 새는 아까 동계리를 중심으로 설명 드렸던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전설을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리 앞에 있는 섬터는 죽곡과 봉정에서 흘러나오는 죽곡강과 대항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와류가 생기면서 섬터가 이루어진 거죠.

---

그런데 봉정리에서 흘러온 그 죽곡강이 태평리에 와서 지류로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 지류하고 이쪽 지류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 지류에 물이 많을 때는 하류 봉정리 쪽의 사람이 잘살고, 이쪽지류에 물이 많을 때는 이쪽 태평리, 연화리 사람들이 잘산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물을 가지고 갈려고 했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중간에 저쪽 하죽 쪽의 물이, 거기 인자 산 아래 있던 물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물로만 흘러와서 보성강하고 죽곡강이 이렇게 만납니다. 거기가 와류가 생기면서 섬터가 생겼지요. 그 섬터에는 인제 머 모래받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섬터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간 물하고 저쪽으로 흘러간 물하고 거의 섬터에도 저쪽 물이 있고, 저쪽 물이 있었어요. 양쪽으로 흘러가서 만나는 그 지점에 계를 만들었죠. 계를 만들어가지고 봄에 상류로 올라갔던 장어와 은어 같은 민물고기들이 자란 후에 가을철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그 홍수를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 하류 쪽에다 대나무로 탈을 만들어 물고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골을 막아가지고 중앙 부분에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그 밑에다가 대나무를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흘러온 물고기들이 그 밑에 받쳐지죠. 찬륙에 은어, 장어, 황어 같은 물고기들이 특히 비가 온 뒤에는

---



---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에서 모아진 고기들이 죽곡 사람들의 생선감이 되었지요. 인제 평상시에는 양은 적어도 거기서 계속 잡 아묵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강물이 적어지고, 인제 중앙댐을 막은 뒤로는 어획량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전부 없어져버리고, 지금은 섬터가 이제 완전히 이쪽, 태평리 쪽은 메워져버렸지요. 저 쪽으로만 강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저쪽 섬터가 만나는 쪽에는 커다란 쏘가 있었어요. 죽곡강하고 보성강하고 만나는 거기는 여울이 저가지고 평상시에도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 밑에는 쏘가 있는데 명주 한 꼬리가 들어가면 코뿔소가 형성 됐지요. 거기는 낙차를 이용해서 쏘가 형성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제 강물이 흘러가게 된 거지요.

이제 그 보성강에 가다가 동계천에서 흘러간 물하고 만나는데 또 섬터가 형성이 돼요. 섬터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동계천 물이 적 으니까 거기를 완전히— 섬터가 저쪽 동계 쪽으로 붙어가지고 하나의 육지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됐지요. 거기를 윤현제가 개발하고.

가다가 인자 지류가 생긴 데가 있어요. 거기에 와류가 생겨가지

---

고, 그 와류에 의해서 물속이 아주 깊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저 아래에서 북소리가 들린다고 '북소'라고 했어요. 뭐 그 북소리가 들리는 것은 옛날에 어떤 스님이 거기를 지나다가 빠뜨린 북이 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그런 전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인제 태안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그 봉황새하고 봉정리에서 살았던 봉황새 한 쌍이 이렇게 있다, 거기서 태평을 누리고 살면서 태안사가 주민의 태안을—클 태자 편안 안자, 주민의 태안을 빌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태평리—클 태자 편안할 평자를 넓은 들이라 했는데 넓은 들이 아닙니다. 온 주민이 크게 태평을 누리면서 산다, 그래서 한 쌍의 봉황새가 이렇게 살면서 죽곡의 면민 모두가 천안의 보호 속에서 태평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지대가 바로 죽곡면 전체의 전설이다 이렇게 엮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북소에는 옛날에 스님이 거기를 지나가다 깊은 소가 있기 때문에 북을 가져와서 빠뜨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빠뜨린 북에서 소리가 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많은 북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깊은 소 속에서 물이 흐르는 유속에 의해서 북소리가 났었는지도 모르죠. 근거없는 말이 아

---

년께. 그렇게 해서 대항강의 전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지혜지요.

그리고 아까 봉정리의 그 대나무 숲은 광주 거 중심사 입구의 측백나무 숲보다도 더 울창하고 더 넓어요. 나무는 작을란지 모르지만, 더 울창하고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숲이에요. 그곳을 개발한다면 치유 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도 드물고 인적 타지 않는 치유의 어떤 계보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얘기는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때 그곳을 개발하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봉정리 천덕산 그 당중 밑에다가 펜션을 지었는데 그 펜션에 친구 조용재 씨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아들이 산업부에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펜션을 지어 줬지요. 그래서 아까 측백나무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봤을 때 죽곡은 아직 미개발지역이에요.

죽곡이 옛날에는 경상도만 개발하고 여기는 등한시했다고 그냥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개발을 안 해서 천연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으니 어찌 보면 정말 고맙고 우리 국민의 행복으로 생각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재광 곡성향우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

그래서 인제 작년 페이지에 실었어요. 이것은 금년에 재임을 하면서 만든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년에 외지에서 새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읽고는 아이고, 우리 죽곡에도 이런 전설이 있느냐고 다들 놀라는 말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편백나무 숲에 섬터라든지 동계천에 섬터 하는 거, 그런 것은 쉽게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곡이라는 이름대로 대나무를 살려서 담양에서와 같이 대나무로 인한 산업체 혜택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죽곡이 대나무 아니 봉황새와 이렇게 관련이 있고, 한 쌍의 봉황새 전설을 인정받게 된다면 죽곡의 상징을 봉황술에서 봉황새로 해서 산업적 어떤 무엇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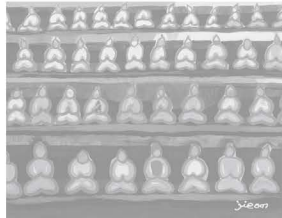
그래서 저기, 그 축제들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장성, 영광 뒤 그런 데 축제할 때 가보면 그냥 막 무대를 만들고 전무를 때문에 그렇게 산업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러는데, 불감사 상사화 축제 그런 것처럼.

그런 인정만 얻게 된다면 아까 그 기차마을이라든지 심층마을이

---

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죽곡은 봉황새의 고장으로 산업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기택(남, 80세) / 죽곡면 태평리



---

## 도깨비

고달에 도깨비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인제 도깨비가 살았는데, 그 도깨비가 흠칫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자 불량한 짓을 했다든지, 부정한 짓을 했다든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도깨비가 나타나 가지고 징벌을 해요.

그냥 장난치고 놀리는 게 아니라 징벌을 하는 도깨비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뒤로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위를 못 가요. 그니까 그 마을에는 인제 선량한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사람들도 엄청 좋아했죠.

고달 면소재지에 하씨들이 살았는데, 그 하씨들이 제각을 하나 지었다대요. 남원에서 살던 하씨들이 거기 와서 정착하면서 제각을 지었는데, 그 제각이 잘 운영되다가 그 손들이 전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제각이 거의 폐가가 되었는데, 그 좋은 제각을 어

---

땡게 좀 살려가지고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재로 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어요.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고 해요.

하기택(님 80세) / 죽곡면 태평리

---

## 대사리 시집살이 이야기

여가 대사리여. 맏골.

대가 많이 난께 대사리라 근가, 나 시집은 께 대사리래. 나 열아홉에 시집왔어. 우리 영감은 스무 살이고.

옛날에 화전하면 집에 숨어갖고 쌀을 안 주믄 어쩔까 벌벌 떨었지. 화전 간다고 하면 우리 영감이 나 죽일라 그래. 글픈 눈물이 나 올라 그래. 그칸디 우리 시어머니는 순해갖고 쌀을 주나. 우리 영감이 난리야. 집구석 난리네. 화전에 못 나가게.

화전 가믄 저 뒷동산에서 아리 아리랑~ 그리고 놀제.

그때 같이 놀던 또래들이시방은 다 죽어블고 얼마 안 남았어. 한량들이었제. 곡성떡, 방매떡, 동성떡, 셋동네..... 아이고~ 한량 수 없었어. 다들 이쁘고 한량이어. 그때는 숨어서 쪼깨씩 놀았지. 아이고, 그때 좋았어-. 시방은 인자 세상이 좋아졌는디 이러코롬 갈 때가 되야브씨.

---

우리 시어머니는 천석골 딸이라 대숲에서 왔는데, 본계 시집살이 안 해. 근데 술을 잡취쌍고, 저 함은댁 가서 똥맹거리고 놀고. 행 팔에 들어 목 저스께 타고 얼려논 물고 맹겨. 그러면 인자 예 어머니 놀다 오쇼. 시상에 놀다 와도 어머니 놀다 왔소? 하믄 새뜸해 눈이 지금—

하이고, 나는 정직하고 생전 물 등지기, 우리 큰성은 밭일만 하구. 식구가 많응께. 한집에 스무 살, 스물, 스물 둘, 그러. 몸살 나제 스물둘인께. 얘기를 딸 셋 낳고 그롱게로 저 잡것이 문딩이 좋다고 나 갔어.

인자 우리 영감이 곡성중학교 땡기다가 군대를 가브렀어. 글고 인자 영감이 군대 가 있을 때 우리 아들을 낳어. 나는 인자 얘기 업고 나룻배 타고 오지리 가서— 친정이 오지리여.

얘기만 업고 허송세월 보내고. 열다섯 밤도 자고 오고, 스무 밤도 자고 오고. 여기 와서 보믄 또 아구~ 솔단지는 강 빠져죽게 생기고 — 솔이 커갓고. 나무 한 박은 물이 눌러서갓고 불도 못 허졌고. 다 물어블고 못 있어. 어찌게 식구가 많은가. 그레갓고 고생, 고생했어. 근게 그렇게 시집살이 했어.

영감이 군대 가갓고는 휴가도 안 와. 늦게늦게 왔어. 인자 아들을

---

낳잖애.

내가 아들을 나갓고 있는데 터빅터빅 휴가를 왔어. 근데 인자 행 자기— 행자가 우리 시누여. 행자가 아들을 업고 동산지기 나룻배를 탔는데, 그 배에 우리 영감이 타뵈어. 휴가 온겨.

행자가 얘기를 업고 있음게 “니가 어찌게 아를 낳냐?” 한게, 행자가 “아이고, 셋째오빠 얘지요~” 했어. 그롱게로 “아이고, 나 있을 땐 얘기도 안 뵈는데, 뭘 나 얘기라고?”

아, 그래서 인자 집에 와갓고는 식구들이, 우리 시엄매가 좋아갓고 “아이~ 아들이야. 시상에 군대가 있다가 어찌 얘기 나갓고 요런 때 휴가를 왔냐?” 그러. 어찌게 부끄러운가! 문통때기 열어본게 군화를 신고 넓적허니 커갓고, 얘기를 딱 보듬고 있어. 지 새끼다고……. 지 새끼니까 이쁘제.

얘기 설 때 산모따리 군대를 갔는데 이제 그 얘기를 나갓고 터덕 터덕한께 휴가를 왔어. 나 혼자 얘기를 낳네.

친정살이도 많이 했어. 아들을 업고 오지리 가서 있으며는 행자가 또 “언니, 오빠가 휴가 온다네. 휴가—.” 글면 언능 집으로 와서 있어. 그럼 또 아들을 업고 행자한테 가고. 글믄 행자가 땡날 다른 얘기는 안 업고 아들만 업어. 왜냐믄 친정서 옷을 이쁘게 해다 입혀

---



---

논게.

내가 누비바지, 턱걸이, 앞치마 옷을 요러케 해갖고 여기서 입히 제. 다른 애기들은 거럭지도 없는디 첫애기다고 우리 친정엄마가 걸 력지도 해주고. 다른 애들 보고 샘내지 말어이~ 하고. 막 검은 비누 허고.

근께 첫 애기다고 막 비누하고 옷도 이렇게 해주니까 며느리들이 샘내고 하는디, 샘 내지 말라 그래. 그랬어~.

할머니(89세) / 고달면 대사리

---

## 문지기

오지리 사람들이 독 너머 그쪽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하고 진짜 그쪽사람은 대접을 안 해 줬어. 독 너머 사람들이 오지리 사람들한테 얼굴 치켜들고 못 대냈어.

그전에 우리 클 때. 암만 해도 독 너머 사람이 짚을 때로 오지리 오면 깔팡테랑 베를 다 찢어붙고 막 보내붙고 그랬었어. 나도 직접 해 보기도 허고 그랬었어. 그러면 싫어헌디. 사람들은 아이 저 우리 오지리가 양반 모시기를 잘 했었그만 그려.

그리고 동서남북 그 저저 동문이랑 문지기 있지. 오지리 각 부락 마다 톨마니들 다 있었어. 부락일을 다 봐주고, 부락 농사짓고, 부락에서 돈을 좀 해주고, 그리 해준게로 그 정도 부리지. 내가 아는 누구는 우리 일구에서 톨마니 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굉장히 지금 부자 되어가지고 있잖애.

할머니(89세) / 오곡면 오지리

---

## 삼인동과 형제봉

아이구, 삼인동은 상당히 험한 데여. 거가 6·25때 인민군들이 양민을 많이 죽인 디잖애. 거기 삼인동에서 총살을 많이 시켰어. 근께 거가 무서워서 잘 안 갔어. 지금 인자 여가 변하면서 저수지가 생기고 인자 모두 공원화되니까 운동도 다니고, 물 뜨러도 가고 그러지 그전에는 굉장히 거를 무서워라 그랬어. 그래서 잘 가지를 안 했지.

거 죽인 디가 정확히 어디냐면 군부대 있잖애, 그 군부대 못 가서, 지금 군부대 갈라카면 조금 산 쪽으로 튀어나온 디, 그니까 좌측에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 그 쪽 돌아가는 데 거그. 그 밑에서 했다고 우리 영감이 거를 가리켜 줬거든. 이 자리네. 여서 학살을 많이 했네 그랬어. 그래갖고 거를 우리가 무서워라 카고 혼자는 안 갔었어. 학살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지 그 외에는 무섭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거든.

그때는, 육이오 사변 때는 솔직한 말로 그 총 들고 내려온 인민군

---

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집안, 인자 세뇌된 사람들이 더 무서웠었지. 그 사람들이 민폐 짓을 해가지고 공무원 가족들, 덕망 있는 사람들, 좀 저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처형을 했어. 전부 다 잡아죽였지.

그속에는 친일파라고 저저하던 사람도 들어가 있네. 여러 이름이 있더라. 표현하기를 ‘양민학살터’ 이렇게 표현들을 했지. 우리 집 영감이 살아 계시면 올해 구십하나? 근께 곡성에 대한 그 저저를 알기 때문에 가는 장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저 도깨비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어.

우리 영감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조태석, 일명 조포라고 불렀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포수였으니까. 조포라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아. 서울서도 주소 없이 곡성 조포 카면 편지가 들어왔으니까.

그때 뭘 사냥했냐면 멧돼지도 하고, 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저저 할때니까 자기가 18살 때부터 총을 들고 저저를 했다 카던 양반이니까. 그리하다가 인자 저저 하면서 이거 총 쥐서 경찰서에 영치하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알기로.

그리고 워낙 인심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아주 좋아라 그래. 우리 영감은 아가씨면 모두가 다 좋아라 그랬지.

---

---

우리 영감 이야기 들으면 자기가 안 잡아본 거는 호랑이밖에 없더라. 호랑이는 없은게 못 잡제. 늑대도 봤다 그러고. 늑대도 인자 저 거 했다카고. 뭐 이런 흔해빠진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거는 안 놓고. 지리산 반달곰 같은 것도 인자 자기가 잡지는 안 해도 이 양반들도 철칙이 있어. 산에 가면 잡을 것과 못 잡을 걸 가려. 왜 그냐면, 이 양반 말씀으로 절 부근에 가면은 절대 사냥이 안 된대요. 희한하게 사냥이 안 되더라.

근데 인자 산에 가가지고 절대 새끼 뺨 거는 또 안 잡아. 사냥꾼들 철칙이에요. 그게 지켜줘. 고거는 새끼 달린 놈 안 잡고, 멀리 있어도 새끼를 뺨지 안 뺨지 안대. 자기가 여서 태어나고, 저 성덕에서 태어났거든. 여서 태어나고 여서 살아나는께 곡성서나 이런 거를 자기가 잘 알았지. 그래서 봄에 나물 캐러 가면은 같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는 이래 돼서 무서운 자리네— 그래썩고. 그래서 내가 조금 들어서 알지. 곡성에 진짜 사학자 분들은, 지금 그 곡성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어. 그전에는 총무계장 하던 김동진 씨도 사학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었고잉. 알라고 많이 노력했고, 백제 안테봉 씨도 그랬고.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지금은.

---

사냥 나갈 때 집안에서 절대 오늘 많이 잡아오시오 키는 법이 없어.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그 소리는 할지언정 잡아오시오 소리를 해블면 안 가버려. 그리고 애기 뺨 여자가 아침에 자기 앞에 가블면은 가다가 도로 들어와버려.

삼인동 산에 성터 같은 게 있단디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거 꼭 대기에 올라가면 저쪽으로 해서 벼바위골까지 다보이잖아. 촛대바위 벼바위골 거리 다 보이잖아. 벼바위골 저거는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

벼바위골은 옛날 기우제 터래. 저쪽에 도림사 뒤에 신선바위 말고 어디냐 카면 이 신월리 이래 마주 보는 데가 지금 신월리 2구가 됐지. 월평이나 저가? 월봉이 저 위이고 여가 월평이제.

도림사 밑이 월봉이고 여가 월평. 월평 안에 들어가면 배바위 골짜기라고 있는데, 거 가면은 옛날 기우제 지내던 터가 있어. 내가 그 골짜기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

땀 꼭대기 위까지 가다 보면 요 우측으로 도로가 하나 있고 굴도 또 하나 있고 잉. 저가 옛날에 월평리 하고 신월리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갖고 제를 지내고 내려왔대요. 내려오다 보면 도중에 돌탑이 하나 있는데 거까지도 못 와갖고 비가 온다. 거기서 기우제를

---

지내고 오면. 신월리 분들한테나 월평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전설이 나와.

기우제는 인자 때가 되면 농부들이 팽이, 삽 들고 올라갔다 카더라. 거 가가지고 인자 풍도 싸고 그랬다 그라디. 그래가 중반에 내려오다 보면은 절반도 못 와갔고 비가 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거 그쪽 할매들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

그리고 인자 기우제라 카면 그 저거를 했는데 오늘 우리 곡성의 이 해밭로 따지든지 이라면 우리 저 통명산도 높은 산이제. 기우제는 그 쪽에서보다는 이쪽에서 주로 많이 지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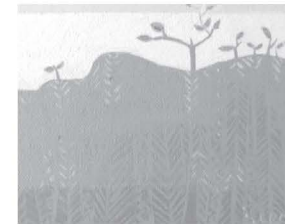
형제봉은 봉이 두 개라서 형제봉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김동진 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형제봉 때문에 곡성에 초상이 잘 난디야. 뭇 영업을 하거나 일을 해도 돌이 시샘을 해갔고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형제봉 중 하나가 사산이대. 사산이 뭐냐면 — 두 산 중에 하나는 꼭 죽어야 돼서, 옛날에 어떤 어른들이 그 조치를 해갔고 산 하나를 죽였대. 그래서 사산인데, 이게 백 년을 가면 지대로 살아난다고 했다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지금은 살아났을 것이다. 그래갔고 곡성 사람들이 시샘이 많고 누가 잘되는 걸 못 보고 그런다 그런 말씀도 농담 삼아 하시면서.

---

---

근디 누가 그러대. 그렇다면 그 반대로 곡성에 좋은 일이 생기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구. 거, 그럴 수도 있겠지.

할머니(73세) / 곡성읍 학정리



---

## 석곡 미륵동

인자 여기 석곡으로 중이 인자 거시기를 왔어. 인자 시주를 왔어.  
중이 시주를 온게 그 집 며느리가 쌀을 줄라고 갖고 나온게로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썩 머라 했어. 시아버지가 고약해— 고약해갖고는 독사였어. 그래갖고 며느리가 이제 못 갖다주고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시주는 해얏으께 소막에서 소똥을 퍼다가 그 중들 밥그릇에— 그 중들은 나무 밥그릇이거든 나무를 이쁘게 파갖고는 색칠을 해갖고 빨가꺼머매. 속이 똥그래 이빠갖고. 인자 소똥을 거기다가 붓어줬대.

그니께 인자 딱 중이 가면서 시부령시부령한 소리를 며느리가 딱 들으께 이 석곡이 물바다가 된다 그래. 이제 석곡은 물바다가 되는데. 저, 욕심 많은 자는 죽는다 이 식이여.

이제 며느리가 얘기 업고 뜰레뜰레한게 중이 나를 따라 나오라 그래. 인자 그 중이 강경에서 살았대. 강경에서 살았는데 나를 따라 나

---

오라 그렇게 며느리가 따라가다가 저기 저 미륵등이라는 데가 있어— 여그 석곡중학교 앞애가 있어.

근디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시아버지가 딱 나 좀 살려주라고 막 소리를 질러쌍께 며느리가 뒤를 돌아다봤어. 중이 뒤를 돌아보믄 거시기 돌부치가 되분다 그랬어. 그래서 돌아다보지 말라 그랬는디 며느리가 돌아봐서 돌부치가 돼벗어.

여그 저, 석곡 거시기에 나온 거여 텔레비전에.

현영자(여. 77세) / 석곡면 석곡리

---

## 뽕뽕다리 이야기

뽕뽕다리가 옛날 처음에는 쇠로 되어 있었어. 아 그 먼저는 나무로 되어 있었제. 사람만 다니게끔 조그마하제.

근디 인자 저 다리가 저그 저, 저것보단 좀 좁았었어, 쇠다리네. 지금은 좀 넓어요. 인자 뽕뽕다리가 변형이 된 거여. 인자 보강을 하다 보니께. 지금은 인자 철판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서 뽕뽕다리라고 하제.

저그에 차가 다닐 정도의 좁은 도로는 나 있었어. 저그로 해서 차가 요리로 다녔어. 한 십 년 좀 넘었나?

홍인표(남, 75세) / 옥괴면 죽산리

---

## 황축과 용머리

저그 안에 있는 황등을 원래는 황축이라고 했는디, 청담리 저그 말여. 그 황축이 물이 들어 망해브렸어.

옛날에는 그 보가 물이 많은 테여. 근디 지금은…….

그런게 용의 머리라 그래. 용의 머리 저그는 길이 요로케 국도로 꼭 들어간 다음에 요러케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지금은 딱 잘라가지고 냇가를 막 쌓아가지고 길을 고로케 만들어버리니까 그러지. 그 용의 머리 그 용을 이무기가, 이무기가 막 막아섰디야. 그래갖고 용이랑 이무기랑 다 죽었디야.

아주 오래된 이야기여.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있는 얘기니까 나는 못 봤지.

저가 용두리가 아녀. 용의 머리여.

홍인표(남, 75세) / 옥괴면 죽산리



## 설화 보고서

### 우리 고장 이야기 2

---

초판 1쇄 발행 | 2017년 12월 29일

펴낸이 | 곽광운

엮은이 | 조준원

펴낸곳 | 곡성군, 곡성문화원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전 화 | 061) 362-0890

제작처 | 도서출판 문예바다

전 화 | 02)744-2208

메 일 | qmyes@naver.com

© 곡성문화원, 2017. Printed in Seoul, Korea

---

ISBN 979-11-6115-029-1

---

\* 이 책의 판권은 곡성군과 곡성문화원에 있으며 2017년 창조지역사업으로 발행되었습니다.

